

지역맞춤형 여성·가족 지원을 위한 「여성·가족시설 블록」 구축

책임연구원 : 강희영(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실 연구위원)
공동연구원 : 국미애(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실 연구위원)
 문은영(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실 연구위원)
위촉연구원 : 홍정아(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실)



발 간 사

1970년대 부녀복지관에서 2000년대 이후 복합적 기능을 수행하는 커뮤니티 공간에 이르기까지 여성가족시설은 그 명칭과 주요 기능이 변화되어 왔습니다. 여성가족시설은 취약계층여성에 대한 프로그램 제공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일반 여성과 모든 시민들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까지 변모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가 제공하는 급여나 수당과는 달리 우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요 사회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연구는 각종 사회서비스의 중요성과 시설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성이 이용하는 주요 시설들이 여성 안전이나 성폭력 등 일부에 치우쳐 있고 또한 공간적 분포와 지역적 욕구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서울시 여성가족 관련 시설의 현황과 자치구 및 권역별 여성 가족의 특징 분석을 통해 지역 수요에 부합하는 여성가족시설의 배치(안) 도출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여성가족시설이 서울시민의 요구에 충실히 답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존 여성가족시설 기능의 유기적 연계와 서울시 여성가족 정책에 부합하는 새로운 복합공간 설치를 제시하였습니다. 새로운 여성가족복합공간은 여성과 가족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소통과 연계를 실현하고, 서울시가 지향하는 여성가족 정책을 구체화하는 기능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지역의 요구에 충실하고 나아가 지역의 역사와 의미를 재구성하는 실행자로서 여성가족 복합공간의 ‘상’을 만들어 가는 작업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수행해 갈 과제입니다.

이 연구의 진행과정에서 조언과 자문을 해주신 다양한 분야의 활동가, 전문가분들께 감사드리며 향후 이 연구가 서울시 공간 정책의 젠더 관점 반영에 기여하고, 서울시의 여성가족 공간 조성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4년 12월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이숙진

Contents

I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3
2. 연구 방법 및 내용	5
1) 연구방법	5
2) 연구내용	7
3. 선행연구 검토	8
1) 여성가족 서비스 및 관련시설 복합화에 관한 연구	9
2) 서울시 도시 공간의 변화 및 권역별 특성에 관한 연구	12
4. 연구의 의의 및 한계	15

II 서울시 여성가족의 특성과 관련 시설 실태

1. 서울시 여성가족의 현황 및 특성	19
1) 서울시 여성가족의 현황	20
2) 자치구별 현황	25
3) 2030 도시플랜과 5대 권역별 특징 연계	42
2. 여성가족시설의 현황	45
1) 여성관련 시설	45
2) 가족 및 보육 시설	47

3. 아동·청소년시설의 현황	48
4. 여성·가족시설 프로그램에 대한 검토	50
1) 여성회관 및 각종 여성센터	50
2) 여성인력개발 기관	57
3) 가족지원기관	64
4) 폭력피해여성 지원기관	67
5. 요약 및 시사점	69

III

여성·가족시설의 변화 가능성

1. 여성·가족시설의 개념 및 역할 재정립	75
2. 관련기관과의 연계 사례	78
1) 거점 성격의 시설 복합화 : 복사골 문화센터와 금산 다락원	78
2) 소규모 지역단위 시설 복합화 : 영등포구와 동대문구	80
3. 여성·가족의 다양성을 고려한 시설 사례	81
1) 돌봄과 교육 : 독일 마더센터	81
2) 여성과 아동, 환경의 만남 : 일본 크레용 하우스	83
3) 고령여성의 커뮤니티 공간 : 영국 나나 카페	85
4) 상상과 창작의 여성 공간 : 미국 MHM	86
4. 요약 및 시사점	88

IV 여성·가족 시설 블록 구축을 위한 시민 요구 분석

1. 여성·가족 시설에 대한 시민 수요 : 설문 분석	93
1) 서울시민의 전반적인 수요	95
2) 권역별 여성·가족시설에 대한 시민 수요	97
2. 지역맞춤형 여성·가족시설을 위한 FGI 분석	100
1) 지역과 함께 하는 여성·가족시설	103
2) 세대를 아우르는 프로그램 기획	110
3) 지역 내 다른 기관과의 유기적 구조화	112
4) 교육과 경제활동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공간	114
5) 프로그램에 대한 제언	117
6) 운영과 관련된 사항	123
3. 요약 및 시사점	126

V 서울시 지역맞춤형 여성·가족시설 블록 구축(안)

1. 서울시 여성·가족시설 블록 구축의 방향	133
2. 기능적 연계를 통한 블록 구축	134
1) 공간 공유를 통한 블록화의 한계와 개선 방안	134
2) 기관 간 네트워킹 강화를 통한 블록화의 가능성	135
3. 여성·가족복합시설 설치를 통한 지역맞춤형 블록 구축	136
1) 권역 특성에 따른 복합시설 설치의 우선 순위	137

2) 사례 권역 여성·가족 복합시설의 지향점	138
3) 운영의 방향 및 원칙	139
4. 복합공간의 주제별 프로그램	140
1) 일자리 및 공유경제	140
2) 가족	151
3) 문화 예술	154
4) 커뮤니티	156
5. 기대 효과	160

참고문헌 _ 162

Abstract _ 165

부록 _ 167

부록 1) 서울시 여성·가족 관련 시설지도	169
부록 2) 서울시 여성 관련 시설 지도	170
부록 3) 서울시 가족 및 육아지원 시설 지도	171
부록 4) 서울시 청소년시설 지도	172

표 목차

표 I - 1	FGI 주요 참여자 및 조사내용	6
표 I - 2	생활권 범위에 따른 복합 커뮤니티 센터의 특징	11
표 I - 3	복합커뮤니티센터 형태별 유형	12
표 I - 4	서울의 창조경제 클러스터 맵	14
표 II - 1	가구주의 연령 및 성별 서울시 1인가구 분포(2000, 2005, 2010)	21
표 II - 2	가구주의 혼인상태별 한부모 가구 분포(2000, 2005, 2010)	24
표 II - 3	자치구별 성별 국민기초보장 수급자 현황(2012)	32
표 II - 4	자치구별 성별 자원봉사활동 경험(2012)	38
표 II - 5	자치구별 성별 여가활동 참여율(2011)	40
표 II - 6	권역별 자치구 별 여성가족 인구 특성	44
표 II - 7	서울시 여성 관련 시설 분포 현황	46
표 II - 8	서울시 가족 및 시간제 보육 등 시설 분포 현황	48
표 II - 9	서울시 아동청소년시설 분포 현황	49
표 II - 10	자치구 별 여성센터 등 프로그램	51
표 II - 11	서울여성플라자 공간 구성	56
표 II - 12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의 운영 사업(2012년)	57
표 II - 13	여성발전센터 생활문화교육과정	58
표 II - 14	여성인력개발센터 사회문화 교육 과정	60
표 II - 15	2014년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공통사업	65
표 II - 16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개별 프로그램 사례	66
표 II - 17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사업	67
표 II - 18	가정폭력 예방 관련 상담소 특화 프로그램 현황	67
표 II - 19	성폭력 예방 관련 상담소 프로그램 현황	69
표 III - 1	여성의 삶을 바꾸는 서울 6개 분야 10대 핵심 분야	77

표 IV- 1	응답자 특성	94
표 IV- 2	지역 내 필요시설에 대한 예시	94
표 IV- 3	서울시민 성별*연령별 지역에 최우선 필요 시설/공간(1순위)	95
표 IV- 4	성별*연령별 주거지역에 최우선 필요 시설/공간(2순위)	96
표 IV- 5	성별지역에 우선 필요 시설 및 공간 1순위(도심권)	97
표 IV- 6	성별지역에 우선 필요 시설 및 공간 1순위(서북권)	98
표 IV- 7	성별지역에 우선 필요 시설 및 공간 1순위(서남권)	99
표 IV- 8	성별지역에 우선 필요 시설 및 공간 1순위(동북권)	99
표 IV- 9	성별지역에 우선 필요 시설 및 공간 1순위(동남권)	100
표 IV-10	지역맞춤형 여성가족시설 블록 구축 관련 면접 조사 개요	101
표 IV-11	면접 조사 참여자 특성	102
표 V- 1	‘일자리 및 공유경제’ 주제 공간의 운영 목표, 운영 방향, 운영 전략	143
표 V- 2	‘가족’ 주제 공간의 공간가치, 운영 목표, 운영방향, 운영 전략	152
표 V- 3	가족공간 운영방안	154
표 V- 4	‘문화 예술’ 주제 공간의 공간가치, 운영 목표, 운영방향, 운영 전략	155
표 V- 5	‘커뮤니티’ 주제 공간의 공간가치, 운영 목표, 운영방향, 운영 전략	157

그림 목차

Ⅰ 그림 II- 1 Ⅰ 2010년 서울시 성별 연령별 인구 현황	20
Ⅰ 그림 II- 2 Ⅰ 서울시 거주 외국인 성별 등록 현황(2010-2013)	22
Ⅰ 그림 II- 3 Ⅰ 서울시 성별 경제활동 참가율 추이(2000, 2005-2012)	23
Ⅰ 그림 II- 4 Ⅰ 세대 구성별 가구분포(1995, 2000, 2005, 2010)	24
Ⅰ 그림 II- 5 Ⅰ 한부모 가족이 겪는 어려움 및 부부가구의 관계 만족도	25
Ⅰ 그림 II- 6 Ⅰ 자치구별 총인구 및 성비(2012)	26
Ⅰ 그림 II- 7 Ⅰ 자치구별 연령3계층별 인구 구성(2012)	26
Ⅰ 그림 II- 8 Ⅰ 자치구별 성별 고령(65세 이상)인구 비율(2012)	27
Ⅰ 그림 II- 9 Ⅰ 자치구별 성별 외국인 인구 수(2013)	28
Ⅰ 그림 II-10 Ⅰ 자치구별 가구형태(2011)	29
Ⅰ 그림 II-11 Ⅰ 자치구별 여성가구주 가구 비율(2005, 2010)	29
Ⅰ 그림 II-12 Ⅰ 자치구별 한부모 가구 비율(2010)	30
Ⅰ 그림 II-13 Ⅰ 자치구별 조손가구 비율(2010)	31
Ⅰ 그림 II-14 Ⅰ 자치구별 1인 가구 비율(2005, 2010)	32
Ⅰ 그림 II-15 Ⅰ 자치구별 성별 장애인 등록 현황(2012)	33
Ⅰ 그림 II-16 Ⅰ 자치구별 성별 주관적 건강 수준 인지율(2012)	34
Ⅰ 그림 II-17 Ⅰ 자치구별 성별 우울감 경험률(2012)	35
Ⅰ 그림 II-18 Ⅰ 자치구별 성별 전반적인 지역 환경 만족도(2011)	36
Ⅰ 그림 II-19 Ⅰ 자치구별 성별 전반적인 지역 안전수준 만족도(2011)	36
Ⅰ 그림 II-20 Ⅰ 자치구별 성별 일자리 만족도(2012)	37
Ⅰ 그림 II-21 Ⅰ 자치구별 성별 친목활동 참여 정도(2011)	39
Ⅰ 그림 II-22 Ⅰ 자치구별 문화예술 시설 및 체육시설 현황(2012)	41
Ⅰ 그림 II-23 Ⅰ 자치구별 지역문화 복지시설 현황(2012)	42

연구요약

1. 연구 배경

- 여성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확대의 필요성 대두
 - “사회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사회보장기본법)로 정의됨. 이를 여성에 대한 사회서비스에 초점을 두고 재해석하면 제시된 7개 분야에서 다양한 지원을 통한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회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함을 의미함.
 -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들이 과거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여성 안전이나 성폭력 등 기초적인 부분에만 치우쳐 있고 체계적이지 못한 것이 현실이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서비스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확대가 지적되고 있음(서울복지재단, 2013).
- 공공시설의 복합화 현상이라는 사회적 변화에 따라 시대와 지역의 요구에 맞는 여성·가족 공간에 대한 정책의 필요성 제기
 - 1970년대까지 부녀사업관, 부녀복지관의 명칭으로 복지기능을 주로 담당하던 여성 관련 시설은 1990년대까지 여성회관, 부인회관의 이름으로 교육기능을 담당하였고, 1990년대 이후에는 발전센터, 문화회관의 이름으로 문화의 기능이 더해졌다면 2000년대 이후에는 지역별 다양한 이름을 가진 커뮤니티·복합기능을 수행하는 단계로 변화해 옴(임선주, 2006).
 - 건축에서 복합화의 의미는 서로 다른 2가지 이상의 기능이 하나의 공간 또는 대지에 속하여 서로 융합되고 융합된 기능에 의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이성룡 외, 2011), 여성가족시설 복합화는 여성회관, 여성발전센터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는 관련시설들이 복지시설로 출발하여 여성정책과

사회적 변화에 따라 교육, 문화, 커뮤니티 기능이 추가되는 경향으로 해석(정희선, 2009)되고 있음.

- 서울시는 여성발전기본조례의 명칭을 “서울시 성평등 기본조례”로 바꾸는 등 “여성 배려” 중심에서 “실질적 성 평등 실현”에 방점을 두고 시정 전반에 성 평등의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왔으나 이를 지원하는 시설에 대한 연구 및 제도적 기반은 미흡한 실정임.
- 서울시는 행정자료를 통해 여성·가족 시설의 현황을 보고하고 있고, 통계로 보는 서울 여성, 자치구 성인지 통계 등의 연구에서 여성·가족 시설의 지역별 배치는 파악되고 있으나, 그에 따른 보완책이나 장기적인 전망 특히 서울시의 생활권 계획과 연계한 배치계획은 나와 있지 않음.¹⁾
- 생활권을 중심으로 다양한 여성·가족 서비스가 집약적으로 제공되기 위해서는 공간정책, 제공되는 서비스 및 교통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들과의 연계가 필수적임. : 여성친화도시의 생활지원 서비스는 각 분야간 논의와 협력을 통해서 결정되어야 하며, 공간구조의 형태 및 구성방식과 연계되어 통합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음.
- 서울시는 2~3개 행정동을 묶어 140개 지역으로 새 틀을 짜고 이를 도심권, 동북권, 서남권, 동남권 등 5개 권역으로 나누는 도시계획 체계를 마련할 계획을 밝힌 바 있으나(2013.09.09 보도자료), 여성·가족 시설의 배치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전체적인 생활권 계획의 맥락에서 논의된 바 없음.
- 2013 통계로 보는 서울여성, 2013 자치구 성인지 통계에서 드러난 서울시 각 자치구별 여성 가족의 인구 특성과 서울시 여성가족시설의 배치현황을 서울시 생활권 계획과 연계하여 여성·가족 시설의 배치 계획 수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1)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내부 자료를 통해 파악할 때 청소년시설에 대해서는 “1 자치구 1 수련관, 4 문화의 집”이라는 원칙이 명시되어 있으나 여성·가족 관련 시설에 대해서는 뚜렷한 원칙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2. 연구 목적

- 서울시 여성·가족의 지역별 특성을 토대로 현재 여성가족시설의 현황에 비추어 향후 여성·가족 시설²⁾의 권역별 수요를 예측하고, 그에 따른 배치 계획을 수립함. : 시설의 배치 현황과 권역별 여성 가족 인구 특성을 복합적으로 분석하여 여성가족시설의 배치에 대한 서울시의 전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고, 지역의 수요와 서울시의 정책 방향이 함께 하는 여성가족시설 배치(안)을 제시함.
- 개별 시설 간 기능의 유기적 연계와 신규 시설의 복합화를 통한 여성가족시설의 블록 구축 방안을 제시함. : 여성가족시설이 상호 연계를 통해 각 시설의 기능적 블록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창출되는 효과가 지역사회 여성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다양한 여성 가족의 요구를 반영한 복합 시설의 설치를 통한 여성가족시설의 공간적 블록이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 여성가족시설이 지역에 기반한 실천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담보해 낼 방안을 모색함.
- 여성·가족 시설이 지역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지역 친화적인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방안을 모색함.

2) 이 연구에서는 여성가족시설의 범주를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에서 관할하는 시설 중 여성가족 관련 시설을 중심으로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3. 연구 방법

- 문헌연구 및 통계분석 : 서울시 여성가족시설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기존의 행정자료와 문헌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검토함. 서울시를 5개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 여성가족 인구의 특성을 행정 자료와 해당 기관, 자치구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파악하고, 서울시민의 여성가족시설에 대한 권역별 수요조사 결과를 분석함.
- 설문 분석 : 2013년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안) 성 분석 연구의 진행과정에서 실시하였던 설문조사 ‘성 평등 여건변화와 도시 공간 환경에 대한 시민 설문조사’ 중의 일부 항목에 대한 권역별 분석을 통해 서울시민의 전반적인 편의시설에 대한 수요를 파악함.
- FGI(Focus Group Interview) 실시 : 기존 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 활동가 FGI를 통해 신규 시설에 대한 요구를 분석하는 한편, 이 연구의 또 다른 축의 목표인 여성주의 문화경관 조성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사례지역에 대해서는 기존의 시설과 신규 시설이 유기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상승효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을 모색함.

4. 연구 내용

- I 장에서는 서울시 여성가족의 수요에 부합하는 여성가족시설의 배치(안)도출이라는 이 연구의 목적과 연구 방법을 제시하고,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함.
- II 장에서는 서울시 권역별 여성가족 인구의 특성을 분석하였음. 이후 서울시의 행정자료 검토를 통해 여성가족시설과 프로그램 현황 파악을 하고, 이 연구에 포함될 여성가족시설을 범주화하였음. 이를 통해 서울시에서 문화시설 기반이 가장 약한 권역으로 꼽히는 동북권과 서남권의 신규 시설 설치를 염두에 둔 사례 권역으로 선정하였음.
- III 장에서는 여성가족시설의 변화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하여 다른 시설과의 연

계 현황을 정리하고 여성가족의 다변화에 따른 다양한 여성가족시설의 사례를 분석하였음. 이를 통해 여성가족시설의 새로운 ‘상’이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지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였음.

- IV장에서는 여성가족 관련 시설에 대한 서울 시민의 수요를 분석함. 서울시 전체와 권역별 전반적인 경향에 대해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분석하고, 이 연구에서 주목하는 두 사례 지역의 지역 활동가에 대한 FGI를 실시하였음.
- V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 여성가족시설의 배치방향을 제시하고, 기존 시설들의 기능적 연계를 통한 블록 구축의 방안과 함께 신규 복합 시설이 지향해야 될 바를 제시하였음.
- 마지막으로 VI장을 통해 신규 복합시설이 기존의 시설들과 차별화되는 동시에 변화하는 여성가족의 요구를 담아내고, 지역 친화성을 견지하기 위한 운영 방안과 주제별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음.

5. 정책 과제

- 정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
 - 여성가족시설이 기존의 각 기능별로 설치되던 데에서 나아가 여성과 가족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소통과 연계를 실현하는 공간으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함.
 - 제한된 범주에서나마 기존의 시설들이 서울시민의 요구에 충실히 답하기 위해서 고유의 기능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방안이 나와야 함. 즉 시민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어디에서 받을 수 있는지 이용가능한 시설이 어디에 있는지 기존 시설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구축될 때 이미 존재하고 있음에도 정보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불합리를 방지할 수 있음.
 - 서울시의 특성을 가진 여성가족 정책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그에 맞게 설계된 공간이 마련되어야 함. 서울시의 여성가족 정책이 실현되는 장으로서 여성가족 복합시설은 여성과 가족이라는 주제어가 공간을 통해 지역과 만난다는 점에서 공간을 통한 성주류화의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음.

○ 정책 과제

- 공간 공유를 통한 블록화 : 특정 공간에 여성가족시설이 더해지는 형태로 시설 간 복합화가 이루어질 경우 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시설운영의 차원이 아닌 공간운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함. 즉 입주해 있는 기관이나 단체, 진행되는 프로그램 강사에게 자율성을 부과하는 것과 별도로 각 프로그램이 연관성을 갖고 운영될 수 있도록 기관과 프로그램 전체를 관통하는 퍼실리테이터 (facilitator) 역할이 강화되어야 함. 이는 전체 공간 운영 주체가 각 프로그램 단위 혹은 입주 기관과 회의체 등을 통해 서로의 가치를 이해함으로써 특정 프로그램이나 기관에 참여하는 이들이 다른 프로그램으로 이어지고, 공간 내 다양한 기관의 교류 활성화가 일어나는 공유와 연계라는 공동체의 의미를 되살리게 됨.
- 기관 간 네트워킹 강화를 통한 블록화 : 특정 지역 안에 해당 서비스를 표명하는 시설이 없을 때 주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받게 해주기 위해서는 그 정보를 알려 줄 네트워킹 실무자 배치
- 여성가족복합시설 설치를 통한 지역맞춤형 블록 구축 : 서울시에서 문화시설 기반이 가장 약한 권역인 서남권과 동북권에 여성가족시설을 중심으로 지역 문화 기반의 재구조화를 시도함.
 - 지역민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과제로는 우선 지역민에게 개방적인 공간으로 태어나기 위해 지역 주민이 운영위원회 등에 일정 비율 참여가 보장되어야 함.
 - 편의시설 운영에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우선 입주권 부여 : 회계 처리 등 지속 교육
 - 각각의 활동이 선형 구조를 이루며 순환하는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공간으로서의 통합적 구상과 함께 특정 프로그램의 이용자가 다른 프로그램의 이용으로 연결될 수 있는 프로그램 이용의 연계성과 공간 구조를 함께 고려해 가야 함.
 - 각 주제에 맞는 실행단위를 발굴해 프로그램 운영자로 선정함으로써 공유 공간으로서의 가치 또한 살아날 수 있음. 운영주체가 직접 실행하는 프로그램이든 입주 단체에 의해 실행되는 프로그램이든 그것이 지향하는 가치에 일관성 유

지. 대관을 통한 일회성 행사라고 해도 전체 공간 운영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함. 공간의 대관에 대해서도 기획이 들어감으로써 공간이 지향하는 가치가 전반적으로 살아나야 함을 제안함. 그러기 위해서는 시설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활동을 관통하는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의 역할 강조.

정책 방향

■ 여성가족의 수요에 중점을 둔 여성가족시설의 블록화 방안

- ▷ 공간 공유를 통한 블록화 : 관련 기관 공간 공유의 시너지 효과를 위한 퍼실리테이터의 역할강화
- ▷ 기능적 연계 : 기관 간 서비스 연계를 담당하는 네트워킹 인력 배치
- ▷ 복합공간 설치 : 서로 이해하고 함께 참여하는 주민 프로그램 강화

○ 세부 프로그램

일자리 및 공유 경제	가족	문화 예술 및 커뮤니티
<p>〈발굴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열린 작업 공간: 협업 공간, 재능 나눔, 메이커 스페이스(테스트베드(Test-Bed) 공간) 재능맘 일터 구현 육아맘/육아대디를 위한 교대형 근무 공간 <p>〈배양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몸 살림 공방 예비 일모임 지원: 공간, 사람, 경험 사회적경제 학교 운영: 가치 확산, 차세대 양성 <p>〈소통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칭)사회적경제지속가능협의체 구성, 운영 세대별 일 경험 존중 및 응원 의 일상축제 여성인력개발기관과의 유기적 구조화 <p>〈유통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점포형 창업실 운영 자체 제작 상품 연계 지원: 온라인 장터(HER : Help Each other) 연계 비즈니스 인프라 확보 및 제공 여성일자리 관련 정보의 집적 및 유통 <p>〈혁신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젠더 관점의 퍼실리테이팅 역할 강화 (가칭)무한상상릴레이토론: 담론 생산의 장 대안적 일자리 경로 공유를 위한 청소년 진로체험 장 시범사업 실시를 통한 사례 구축 지역사회 혁신을 위한 여성가족정책 실행의 장 구현 	<p>〈‘가족살림학교’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족문제 상담, 치유 <p>〈‘파더 센터’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성 대상 돌봄 교육 남성 육아참여 정보제공 워킹대디 온오프라인 소통창구 마련 남성대상 요리교실 운영 <p>〈‘가족 와락’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기가족 치유공간 가족 힐링 프로그램 운영 <p>〈‘가족 나눔’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대간, 서로 다른 가족들간의 지원 스스로 돌보기, 돌봄을 공유하기 <p>〈‘노노케어’ 활동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조모임구성 및 노노케어 활동 지원 <p>〈‘지역커뮤니티’방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내 커뮤니티 지원 가구원의 임파워먼트 재능기부 활동 지원 	<p>□ 문화 예술</p> <p>〈여성 창작과 공유 공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작업 공간 지원 여성가족 갤러리 <p>〈치유를 위한 공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술 치유 춤, 음악 치유 <p>〈지역동아리 공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음악 연주 활동 지원 독서, 세미나 등 인문학 공간 <p>□ 커뮤니티</p> <p>〈돌봄과 건강의 거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생활+ 병아보육시설 여성건강과 치유센터 돌봄 및 복지 연계 네트워크 지원 <p>〈환경과 생활의 연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주의 백화점 함께 하는 유기농 식탁(세대 공감) <p>〈지역공동체 활성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활동가 자율공간 : 마더센터 움직이는 도서관 및 휴먼 라이브러리 찾아가는 프로그램

운영의 원칙

- ▷ 지역에 개방적인 공간 운영
- ▷ 서비스 이용과 공간 구성의 연계성을 통한 선순환 구조 만들기

I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방법 및 내용
3. 선행연구 검토
4. 연구의 의의 및 한계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I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일반적으로 사회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사회보장기본법)로 정의되고 있다. 이를 여성에 대한 사회서비스에 초점을 두고 재해석하면 각 분야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을 돌아볼 때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들이 과거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여성 안전이나 성폭력 등 일부에 치우쳐 있고 체계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서비스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확대가 지적(김미현 외, 2013)되고 있다.

여성에 대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으로서의 여성·가족 시설은 시기에 따라 그 명칭과 주요 기능이 변화되어 왔다. 1970년대까지 부녀사업관, 부녀복지관의 명칭으로 복지기능을 담당하였다면, 1980년대 이후에는 여성회관, 부인회관의 이름으로 교육기능이 주를 이루었다. 1990년대 발전센터, 문화회관의 이름으로 문화의 기능이 더해졌다면 2000년대 이후에는 지역별 다양한 이름을 가진 커뮤니티·복합 기능을 수행하는 단계로 변화를 거듭해 왔다(임선주, 2006). 그러나 그 변화 안에 다양

한 여성과 가족, 시민의 요구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현재의 진단이다.

서울시는 행정자료를 통해 여성·가족 시설의 현황을 보고하고 있고, 서울여성통계, 자치구 성인지 통계 등을 통해 여성·가족 시설의 지역별 배치 상황을 파악하고 있으나, 현재의 실태가 서울시 여성·가족의 인구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토된 바 없다. 지역의 현황과 당사자들의 요구가 구체적으로 분석될 때 정책의 근거가 확고해질 수 있으며, 그에 따른 관련 시설의 확대와 다변화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점이 간과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지역의 요구를 반영한 지역 맞춤형 여성가족시설의 배치와 신설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지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이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시 여성·가족의 지역별 특성과 여성가족시설의 현황을 파악하여 향후 필요 시설의 권역별 수요를 예측하고 그에 따른 배치계획을 수립한다.

시설의 배치현황과 권역별 여성 가족 인구의 특성을 복합적으로 분석하여 여성가족시설의 설립과 배치에 대한 서울시의 전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서울시의 정책이 실현되는 공간으로서 여성가족시설에 대한 정책을 제고한다.

둘째, 개별 시설 간 기능의 유기적 연계와 신규 시설의 복합화를 통한 여성가족시설의 블록 구축 방안을 제시한다.

여성가족시설의 상호 연계에 의한 각 시설의 기능적 블록화를 도모하고 그 효과가 지역 사회 여성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방안과 더불어 다양한 여성 가족의 요구를 반영한 복합시설의 설치를 통한 시설의 공간적 블록이 지역에 기반한 실천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담보해 낼 방안을 모색한다.

셋째, 여성가족시설이 지역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지역 친화적인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방안을 모색한다.

복합시설, 여성복지시설, 인력개발기관, 가족 지원기관 등 주제별로 나누어 지역에 배치되어 있는 여성가족시설은 그 기능이 지역의 특성과 지역민의 의사를 고려해 정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지역민에게 개방적인 성격을 갖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이 연구는 여성가족시설이 여성과 가족을 중심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방안을 탐색해 갈 것이다.

2. 연구 방법 및 내용

이 연구는 서울시의 여성가족시설의 배치 현황 파악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여성가족시설 블록 구축을 목표로 한다. 이에 연구에서 사용하는 블록 구축³⁾이란 여성가족시설이 상호 부조 시스템을 구축, 각 시설의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시스템을 통해 창출되는 효과가 지역사회 여성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취지에 기반한다. 각 분야별 기능적 연계와 거점 시설의 복합화를 통한 블록 구축의 실현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이때의 복합화는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기능이 하나의 공간이나 대지에 속해 서로 융합되고 융합된 기능에 의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음을 뜻한다. 여성가족 복합 공간은 기존의 단일한 기능 위주의 여성가족시설에서 나아가 여성정책과 사회변화에 따른 다양한 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추가되는 경향으로 사용되고 있다.

1) 연구 방법

주요 연구 방법으로는 기존 여성가족시설 현황에 대한 행정자료 분석과 새로운 여성가족시설에 대한 서울시민의 수요 파악을 위한 설문 분석, 지역 활동가들이 보

3)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으며 경제적으로 상호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이 공통의 이해 증진을 위해 경제 블록을 형성한 데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블록화의 개념은 사회적 경제에 도입되어 사회적 경제 조직이 상부상조 시스템을 구축, 이곳에서 창출되는 이윤을 지역사회에 환원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의 지역화 실천 전략으로 사회적 기업이 지역에 기반한 실천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담보해내기 위한 목표의 실현 수단으로 해석됨. 한 예로 원주 지역에서는 특히 친환경 농업과 가공·유통 분야, 신용 분야, 소비자 분야, 사회 서비스 분야, 교육 분야, 문화 분야, 환경·생태 분야 등 7개 분야로 나눠 사회적 경제 블록이 구축되고 있음.

는 여성가족시설의 역할에 대한 FGI 조사가 사용되었다.

연구의 진행은 여성가족시설 설치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갖지 못했던 현 시점까지의 여성가족시설의 현황을 검토한 후 기존 시설간의 연계와 신규 시설의 배치 계획을 통해 여성가족시설이 상호 유기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서울시민의 여성가족시설에 대한 기본적인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였다. 분석 자료는 새로운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보다는 2013년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안) 성 분석 연구 진행과정에서 실시하였던 설문조사 ‘성 평등 여건변화와 도시 공간 환경에 대한 시민 설문조사’ 중의 일부 항목에 대한 권역별 분석을 통해 서울시민의 전반적인 시설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였다.

서울시 여성가족시설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기존의 행정자료와 문헌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검토하였다. 서울시를 5개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 여성가족 인구 특성을 2013 자치구 성인지 통계와 2013 통계로 보는 서울 여성을 통해 파악하고, 서울시민의 여성가족시설에 대한 권역별 수요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기존 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 활동가 FGI를 통해 신규 시설에 대한 요구를 분석하는 한편, 이 연구의 또 다른 축의 목표인 여성주의 문화경관 조성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사례지역에 대해서는 기존 시설과 신규 시설이 유기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상승효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표 I-1】 FGI 주요 참여자 및 조사내용

대상	세부 내용
지역 활동가	지역의 특성과 주민 활동을 반영한 여성가족시설의 가능성
주제별 활동가	청년, 마을, 돌봄 등을 주제로 한 커뮤니티 활동과 여성가족시설의 가능성
주제별 전문가	문화예술, 일자리, 가족 등 분야에 대한 프로그램 제안

기존 시설의 현황 분석에 이어 현재 운영 중인 프로그램에 대한 검토에 기반한 지역 활동가 FGI를 실시하여 프로그램 운영 및 공간 활용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지역민의 요구를 반영해 갈 방안을 구체화하였다. 지역의 여성가족 문화의 거점 기관으로서 신규 시설의 프로그램을 제안하기 위하여 전문가 조사를 통해 프로그램 안

을 구성하고 지역에 밀착되어 있는 동시에 여성친화적인 시설로서의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2) 연구 내용

이 연구는 서울시의 여성가족 관련 시설의 현황과 자치구 및 권역별 여성 가족의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서울시 여성가족의 수요에 부합하는 여성가족시설의 배치(안)을 도출해 낼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II장에서는 서울시 권역별 여성가족 인구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서울시의 행정자료 검토를 통해 여성가족시설의 현황 파악을 하고, 이 연구에 포함될 여성가족시설을 범주화하였다. 각 시설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 검토도 함께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전반적으로 서울시에서 문화시설 기반이 가장 약한 권역으로 꼽히는 동북권과 서남권에 신규 시설 설치를 염두에 둔 사례 권역으로 선정하였다. 두 권역은 서울시에서 거주 인구 비율이 높은 권역이라는 특성도 함께 가지고 있다.

III장에서는 여성가족시설의 변화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하여 다른 시설과의 연계 현황을 검토하였다. 여성가족의 다변화에 따른 다양한 여성가족시설의 사례를 분석하여 여성가족시설의 새로운 '상'이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지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였다.

IV장에서는 여성가족 관련 시설에 대한 서울 시민의 수요를 분석하였다. 서울시 전체와 권역별의 전반적인 경향을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분석하고, 이 연구에서 주목하는 두 사례 지역의 지역 활동가와 분야별 전문가에 대한 FGI를 실시하였다.

V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 여성가족시설의 배치방향을 제시하고, 기존 시설들의 기능적 연계를 통한 블록 구축 방안과 함께 신규 복합 시설이 지향해야 될 바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VI장을 통해 신규 복합시설이 기존의 시설들과 차별화되는 동시에 변화하는 여성가족의 요구를 담아내고, 지역 친화성을 견지하기 위한 운영 방안과 주제별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3. 선행연구 검토

지역 내에서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고려는 해당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동시에 여성이 지역사회의 주요 주체임을 인식할 때 경제 위주의 관점을 벗어난 보다 강한 지역으로의 성장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는 점은 최근 여성주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공간연구(손문금 외, 2013; 최유진 외, 2013)에서 강조되고 있는 바이다. 동시에 도시 공간이 여성의 사회활동을 지원·촉진하고 지역사회 내 여성의 임파워링(empowering)을 하기 위해서는 여성들의 커뮤니티 활동과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공공 서비스 기관이 연계된 보행 가능 구역을 가장 기본적인 생활권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EU에서는 여성이 도시에서 누려야 할 권리를 안전, 커뮤니티 서비스, 보육 서비스, 환경의 질, 교통, 자원에 대한 접근, 일에 대한 접근으로 정의하였다. 결국 일상의 뒷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여성들이 오피스, 보육, 서비스 시설을 제공하는 지역 활동 거점장소(activity hub)를 절실히 원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역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거점이 필요하며, 이는 자유로운 복합 공간 개발에 의해 실현될 수 있다(손문금 외, 2013)는 논지로 이해될 수 있다.

물론 근린주구 단위⁴⁾로 필수적인 생활기반시설이 설치되거나 적어도 시설 간 연계를 통해 다양한 기능이 지원되어야 모든 시민이 균등하게 공공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최유진 외, 2013) 또한 간과할 수 없다. 문제는 어떻게 거점장소와 근린주구별 커뮤니티 공간이 유기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공간 논의에서는 지역사회 활동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은 대중교통 및 도보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하고, 근린주구 단위는 지역 및 광역 대중교통 체계를 통해서 지구중

4)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생활권은 이웃 간 면식 가능한 보행권인 근린분구들을 기초로 하여 주민 간의 상호작용이 유지되고 보행이동이 가능한 근린주구(neighborhood unit : 1924년 미국의 페리(C.A. Perry)가 제안한 주거단지 개념으로 어린이들이 위험한 도로를 건너지 않고 걸어서 통학할 수 있는 단지 규모에서 생활의 편리성과 쾌적성, 주민들간의 사회 교류 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조성된 물리적 환경)를 범위로 설정할 수 있다. 보행이동이 가능한 근린분구와 주구는 거리상으로 각각 반경 250m, 500m를 기준으로 설정될 수 있으나 지역별로 가로의 보행환경 등을 고려하여 실제 도보로 5분, 10분간 도보로 이동할 수 거리를 우선시하는 것이 더 적절한 범위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지구중심생활권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한 번에 또는 마을버스 등으로 쉽게 환승하여 이동할 수 있는 범위로 하며, 도시생활권은 하나의 완결된 공간적 체계를 이룬다.

심생활권 단위에 설치되는 전문적인 교육·일·돌봄·여가 등의 지원기관에 연계될 수 있어야 한다는 답을 내고 있다. 거점 장소는 하나의 권역 내 어디서든 대중교통 체계를 통해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라는 점에서 향후 서울시 여성가족 거점 시설 설치의 원칙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한 접근 용이성이 간과될 수 없을 것이다.

1) 여성가족 서비스 및 관련 시설 복합화에 관한 연구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들이 기초적인 부분에 치우쳐 있고 체계적이지 못한 현실에 대한 비판은 앞서 이미 제시된 바 있다. 이와 연장선상에서 여성을 위한 사회서비스로 긴급 야간 돌봄 서비스, 한부모 가정 자녀 돌봄 서비스, 중산층 맞벌이 가구 초등자녀 방과 후 서비스, 우울증 해소 및 일·생활 균형을 위한 상담 서비스, 폭력 피해여성 자활지원 서비스, 미혼모 자립지원 및 주거 지원 사업, 일하는 여성을 위한 인프라 확충, 여성창업지원, 여성사회참여 커뮤니티 확대, 경력단절 여성 재교육 서비스 등이 추가보완되어야 한다(김미현 외, 2013)는 점이 제시되었다. 돌봄 지원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다는 면에서 이는 단지 여성을 위한 서비스라기보다는 가족을 포함한 광범위한 지역사회 서비스로 보는 편이 보다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여성가족시설에 대한 논의는 대상으로서의 여성과 가족에만 국한될 수 없다. 공공시설이 어떻게 다변화하는 시민들의 요구에 답할 수 있을 것인지, 여성가족시설이 어떠한 가치를 담을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함께 진척될 때 여성가족시설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지역 문화의 가능성을 논할 여지가 생길 수 있다.

공공시설의 복합화(양혜원, 2013)는 크게 물리적 차원과 기능적 차원으로 구분된다. 전자가 시설 간 복합화를 통해 투입 비용을 최소화하고 개별 시설 간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역 주민에게 가능한 동일 장소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라면, 후자는 장소와 관계없이 지역 주민이 필요로 하는 공공 서비스를 관련 시설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공공 서비스의 통합성과 연속성을 유지하여 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

여성회관, 여성발전센터 등으로 불리는 여성 관련 시설들이 교육, 문화, 커뮤니티 기능을 추가하는 경향 또한 복합화로 보는 견해(정희선 외, 2009)도 있는데, 이는 물

리적 복합화 경향과 맥을 함께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실적으로 특정 공간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물리적 복합화를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선결 과제가 있다. 따라서 그러한 규모의 시설을 확보하기 어려운 곳이라면 주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들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할 것인지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는 방과 후 유희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학교 시설과 복합된 수련시설을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1차적 수련시설로 하고, 이들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기존 청소년 수련관이 거점시설로 활용되는 Hub-and-Spoke⁵⁾ 모형을 제안한 생활권 청소년 활동시설 활성화 방안(반영선, 2010)을 참고 할 수 있다. 즉 입지적 접근성 확보를 위해 새로운 대규모 시설의 수를 늘리는 것보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청소년들의 이용률을 높이고, 수련활동의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공간 구성 체계를 재편하는 구도라는 점에서 여성가족시설 블록 구축의 한 축인 기존의 여성가족시설의 기능적 연계 방안에 참고할 만하다.

청소년시설에서 학교의 역할을 해줄만한 1차적인 여성가족시설로는 보육시설의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실제 선행 연구에서는 보육시설을 근린생활권의 복합 가능 시설로 분류하기도 하였다.

5) 도시권을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고 - 그 발전의 성과를 주변지역으로 확산하는 방식

표 1-2 생활권 범위에 따른 복합 커뮤니티 센터의 특징

구분	기초생활권		지역생활권	도시생활권
	근린생활권	지구생활권	지역생활권	도시생활권
주요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시설, 보육시설, 어린이공원/근린공원	주민자치센터, 중학교, 어린이도서관, 근린공원	행정관청(출장소), 도서관, 복지회관, 청소년수련관, 사회복지관	행정청사(구청), 문화체육센터, 전문사회복지시설, 보건소
접근수단 공간범위	보행 10분 이내		대중교통으로 10-15분	대중교통
이용빈도	일간	일간/주간	주간/월간	주간/월간
인구규모	1만명	2-3만명	5-10만명	20-30만명
시설규모	소	소	중	대
전문성	하	하	중	상
설치주체	공공/민간	공공	공공	공공
복합효과	중	상	상	하

출처 : 양혜원, 2013

문제는 이용 영유아의 안전을 고려할 때 보육시설이 근린 인구를 전반적으로 포괄할 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1차적 여성가족시설로서 근린 생활권의 가능성은 해당 공간에 모이는 이들 간의 커뮤니티가 어떻게 지구 생활권, 지역 생활권, 도시 생활권으로 연계될 수 있는가의 문제에서 출발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이다. 광범위한 생활권의 거점 시설과 근린 및 지구생활권 커뮤니티의 연계와 함께 지역 내 여성가족시설 및 커뮤니티 지원 시설들이 어떻게 기능적으로 연계될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이 다각적으로 고려될 때 여성가족시설의 블록 구축이라는 그림이 완성될 수 있을 것이다⁶⁾.

실제로 여성복지시설 및 가족시설은 보육정보센터, 아동상담실과 같이 부모들이 동시에 이용대상이 되는 아동복지시설과 여성복지시설을 복합화 할 때 이용도가 증

6) 거점으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들이 중심이 된 복합커뮤니티센터의 형태별 유형으로는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이 연구가 여성가족시설의 블록 구축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면에서 여성가족시설이 중심이 된 복합커뮤니티센터와 함께 기존 복합센터에 어떻게 여성가족의 요구가 포함되는 구조를 만들 것인지도 함께 고려할 것이다.

가할 수 있음을 근거로 여성복지회관과 지역아동센터의 복합화 또는 건강가정지원 센터와 지역아동센터의 복합화의 가능성도 제시되고 있다(인천발전연구원, 2009). 운영주체가 상이한 기관의 부분적인 기능 공유를 위해서는 각각의 시설들이 다른 기능에 대해 개방성을 갖고 지역민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보다 큰 의미를 둘 때 가능해진다.

도심 지역의 개발을 통한 용지 확보나 기존 건물 리모델링과 관련해서는 부천의 복사골 문화센터와 같은 대규모 복합센터의 건립도 검토할 수 있는데, 지역사회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우선적인 공공시설 즉 도서관, 체육시설, 문화시설과 함께 복지 시설 등을 복합화 한 사례이다. 복합문화 커뮤니티 센터에 관한 선행연구(양혜원, 2013)에서는 도심형의 경우 인프라가 포화상태인 경우가 많으므로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시설 중심으로 조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여성가족시설이 “지역맞춤형”이라는 성격을 어떻게 담보해낼 것인가의 문제에 대한 답은 90년대 후반 문화복지 정책의 실천 프로그램으로 제안된 ‘문화의 집’ 연구(정갑영 외, 1996)에서 찾아볼 수 있다. 문화의 집이 지역 문화의 거점으로서 전망을 갖는다면 “지역 여성(가족)의 거점이 되는 공간, 확장된 여성·가족 개념이 실현되는 장으로서의 여성가족시설, 여성·가족을 배려한 공간에서 다양한 여성·가족 문화의 사회적 실현 장으로서의 전환, 여성 중심의 지역 주민 소통 활성화”라는 전망을 가진 여성가족시설의 재구축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2) 서울시 도시 공간의 변화 및 권역별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의 도시공간이 어떻게 변화해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광역화와 함께 분산화가 진행되는 다핵도시로의 발전과 함께 도시의 내부분화에 의한 지역 특화가 미래에

【 표 I-3 】 복합커뮤니티센터 형태별 유형

유형	사 례
학교복합시설	금호초교(열린금호교육문화회관), 옥정초교(옥정스포츠클럽센터), 언남고교
주민자치센터	성수1가 1동 주민자치센터, 성수2가 1동 주민자치센터 등
행정타운	용인문화복지행정타운
복지문화시설	군포시 매화종합사회복지관, 금산다락원

드러낼 주요 특징으로 지적되고 있다(정희운, 2012).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은 다핵화를 현재의 1도심에서 도심과 강남, 여의도 등의 3도심 체제로의 전환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심을 중심으로 한 한양도성-세계적 역사문화중심지, 영등포·여의도-국제 금융 중심지, 강남-국제 업무 상업중심지의 3도심과 용산, 상암·수색, 마곡, 가산·대림, 청량리·왕십리, 잠실의 7광역으로 설명이 된다. 또한 도심과 광역의 각 지역에서 클러스터화에 의한 지역 특화 현상이 눈에 띄게 늘어 각각 문화적 경관을 지닌 지역으로 변화발전할 것을 예측한 바 있다.

거시적인 도시 계획 차원뿐 아니라 지역민의 일상에서도 권역에 따른 특성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서울을 5대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 소득 수준 및 문화 생활비 지출, 문화 활동의 종류, 선호 장르 등을 유형화 하여 거주민의 문화적 특성을 고찰한 연구(박현주, 2007)에 따르면 권역 특성에 따른 문화정책과 문화향유 확대 방안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문화 활동의 직접 관람과 매체 활용도는 도심권 거주민이 가장 활발하고 문화 취향 공유자 수도 도심권이 많다. 이에 반해 동북권은 영화를 제외한 문화 활동 직접 관람 활동이 낮고, 문화 참여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북권은 가족 공유 문화자본의 경우 영화 관람과 서적 구입에서 높은 빈도율을 보였고, 동남권은 음악 취향과 영화 장르가 고급 취향과 대중 취향 모두 높은 선호도를 보여 소득 수준의 분포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남권은 15세 이전 가족공유 문화자본에서 클래식 음악 청취가 타 지역에 비해 높다는 점이 특징이다.

여성·가족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기존의 여성가족시설이 서울시의 인구 특성이나 지역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연구(조연숙 외, 2009)도 있다. 즉 권역별 여성인력개발기관 프로그램의 지역 맞춤형 운영을 제안하기 위해 서울시 산업 특성을 5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이를 반영해 산업과 연계한 업종의 인력 수요를 도출하였다. 조사의 권역별 산업 특성은 2030 서울플랜의 서울 창조경제 클러스터 맵과 일치하는 경향을 보인다.

【 표 I -4 】 서울의 창조경제 클러스터 맵

권역	집적화	강한 집적
도심	출판, 공연예술, 영상(영화), 광고, 디자인	출판, 공연예술, 디자인, 광고
동북	-	-
서북	출판, 공연예술, 게임, 음악, 영상, 디자인, 애니메이션	출판, 영상, 디자인
서남	공연예술, 게임, 음악, 애니메이션, 영상(방송)	영상, 애니메이션
동남	출판, 공연예술, 게임, 음악, 애니, 영상(영화), 광고, 건축, 디자인	게임, 영상, 건축, 광고, 디자인, 애니메이션, 공연예술

자료 : 정병순, 2011

권역별 특성화 직종과 업무 분야를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도심권이 출판, 공연예술, 디자인 분야에 강함 집적을 보이고 있는 만큼 여성인력 또한 출판인쇄의 편집이나 출판디자인, 창작·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의복의복 액세서리 등의 디자인 관련 직종을 중점 육성해야 함을 제시하였다. 한편 동남권은 정보통신·컴퓨터 정보시스템, 네트워크 시스템 분석관리 등 과학기술 서비스업과 함께 유아교육, 아동·안전교육, 학부모 상담의 교육 서비스업 등으로 특화되었다. 서울 창조 경제 클러스터 맵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었던 동북권은 주거권역의 비중이 높고 상대적으로 사업체 및 종사자 비율이 낮은 권역이라는 점이 고려되었다. 이에 서비스교육, 병원코디네이터, 고객상담 등 보건업 관련 직종에 대한 교육훈련 및 보육교사, 유아교육, 고객 상담 및 직업교육 등 교육서비스 관련 직종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하였다. 서남권은 IT, 첨단제조업, 금융 중심권역 성장계획에 따라 여성인력 개발도 금융과 첨단 지식산업 등이 혼합된 특성을 반영해야 함을 강조하였고, 서북권은 주거중심의 산업이 발달하여 사회복지 및 교육 서비스업 분야 인력수요를 예측하여 여성인력개발의 방향을 제안하였다.

서울이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정의하기에 어려운 지역별, 권역별 특성이 드러나고 있다면 지역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한 그러한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으로 답해야 함은 분명하다. 특히 신규 시설의 경우 서울시 전역을 포괄하는 거점 성격을 띠는 해도 특정 지역에 소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어떻게 지역

의 수요에 부응하는 공간으로 구성되어야 할지에 대해 보다 섬세한 접근이 요구되는 바이다.

4. 연구의 의의 및 한계

이 연구의 가장 큰 의의는 서울시 차원에서 여성가족시설 전반에 대한 로드맵을 구상한다는 데에 있다. 기존 시설의 역할을 보완할 기능적 연계와 권역별 신규 시설의 설립이라는 두 축의 여성가족시설 블록 구축을 통해 거점과 지역이 촘촘히 연계되는 여성가족 정책 실행의 지역화를 고려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법률 제정과 그에 따른 시설 설립이라는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여성인력개발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정지원센터 및 폭력피해여성지원시설 등을 통한 정책 실행의 이면에는 서울시의 지역성이 살아나는 기능이 부족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묻혀 있었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정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기존 시설에서는 시도할 수 없었던 지자체 차원의 여성가족 정책 실현의 장을 마련한다는 데 의미가 크다. 서울시 권역별 인구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여성가족 시설 모델을 개발해 여성과 가족을 중심으로 지역 공동체의 의미를 살려내는 명실상부한 지역맞춤형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다면 공간을 통한 성주류화의 가능성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여성가족시설 블록 구축(안)이 거점 신규 시설의 설치로 실현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신규 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와 비용의 문제에서 기존의 시설과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실행할 전문가 집단을 발굴하는 문제까지 고려되지 않는다면 자칫 하나의 이상적인 안에 그칠 우려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성가족시설 설치와 배치의 비전을 서울시가 준비해 중앙정책과는 차별화된 지역정책 실행의 장을 마련하는 새로운 시도라는 데에 이 연구의 의의와 한계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II

서울시 여성·가족의 특성과 관련 시설의 실태

1. 서울시 여성·가족의 현황 및 특성
2. 여성·가족시설의 현황
3. 아동·청소년시설의 현황
4. 여성·가족 시설 프로그램에 대한 검토
5. 요약 및 시사점

II

서울시 여성·가족의 특성과 관련 시설의 실태

서울시는 지역별로 인구의 구성이 다를 뿐 아니라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 수준도 차이가 나는 것이 현실이다. 이 장에서는 서울시의 전반적인 여성·가족의 특징과 여성가족시설로 불리는 인프라의 배치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서울시의 여성가족시설이 여성가족의 특성에 맞추어 배치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점검해 보고자 한다.

1. 서울시 여성·가족의 현황 및 특성

서울은 2014년 3/4분기 현재 주민등록인구 10,122,661명(여 5,131,093, 남 4,991,568)의 거대 도시로 다양한 특징을 품은 사람과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반적으로 여성인구의 비율이 높지만, 구로, 영등포, 금천, 관악구는 반대의 특성을 보이는 한편, 세대당 인구 평균은 2.41명이지만, 자치구별로는 2.07명(관악)에서 2.72명(양천)까지 편차가 존재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인구밀도는 km²당 17,162명으로 나타나지만 이 또한 6,952명(종로)에서 28,262명(양천)까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⁷⁾ 이는 서울시의 여성과 가족에게도 예외가 아니어서 여성인구와 가족의 특성이 자치구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서울의 일반적인 현황과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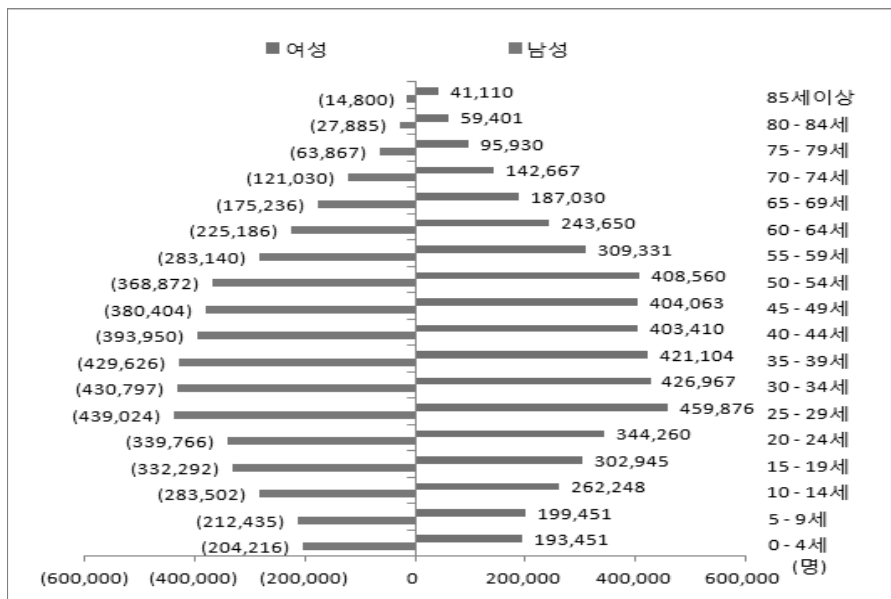
7) 서울통계(<http://stat.seoul.go.kr/>) 참조

1) 서울시 여성·가족의 현황

서울시의 여성인구가 남성에 비해 많다는 점은 앞서서도 이미 언급된 바 있다. 더불어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는 한편으로 젊은 2030세대 비율이 전국보다 높다는 점이 두드러진 특징으로 지적되고 있다(남정연 외, 2013a).

2030세대 인구 비율은 전국 평균(30.0%)보다 높은 34.2%로 최대이며 여성인구 중 2030세대의 비중 또한 전국 평균(29.1%)보다 높은 33.7%로 전국 최고치를 나타내고 있다(문은영, 2013).

【그림 II-1】 2010년 서울시 성별 연령별 인구 현황



출처: 남정연 외, 2013a

서울 총인구에서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2년 2분기 10.32%에서 2014년 2분기 10.96%로 증가해 서울시는 빠른 고령화 진척도를 보이고 있다. 고령가구 중 1인 가구 비율은 2002년 14.8%, 2004년 16.1%, 2006년 18.8%, 2008년 20.5%, 2010년 20.1%, 2012년 21.5% 등으로 꾸준히 증가세에 있다. 이같은 추세는 2010년 들어 잠시 주춤했으나 2년 후인 2012년 오히려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고령 1인 가구의

성별 현황은 2012년 남성 35.3%, 여성 64.7%로 여성의 비율이 압도적이다.⁸⁾

1인 가구의 경우 꾸준히 늘어 서울은 24.4%로 전국 평균 23.9%보다 높게 나타난다. 특히 여성가구의 증가가 두드러져⁹⁾, 2010년 서울시 1인가구의 52.7%인 450,030가구는 여성가구주 가구이다(남정연, 2013a).

표 II-1 | 가구의 연령 및 성별 서울시 1인 가구 분포(2000,2005,2010)
(단위 : 가구, %)

연도	연령	전체	여성	남성	여성비율
2000	계	502,245	264,905	237,340	52.7
	- 19세	7,268	3,800	3,468	52.3
	20-29	158,248	76,832	81,416	48.6
	30-39	126,551	48,190	78,361	38.1
	40-49	72,971	36,755	36,216	50.4
	50-59	47,395	28,274	19,121	59.7
	60-69	49,041	37,252	11,789	76.0
	70-79	33,202	27,716	5,486	83.5
	80 +	7,569	6,086	1,483	80.4
2005	계	675,739	353,835	321,904	52.4
	- 19세	7,512	3,987	3,525	53.1
	20-29	192,880	100,685	92,195	52.2
	30-39	177,271	67,073	110,198	37.8
	40-49	102,789	46,539	56,250	45.3
	50-59	67,872	38,091	29,781	56.1
	60-69	65,379	46,639	18,740	71.3
	70-79	47,907	39,315	8,592	82.1
	80 +	14,129	11,506	2,623	81.4
2010	계	854,606	450,030	404,576	52.7
	- 19세	9,079	4,957	4,122	54.6
	20-29	219,229	116,972	102,257	53.4
	30-39	213,731	87,412	126,319	40.9
	40-49	127,572	52,942	74,630	41.5
	50-59	102,075	53,046	49,029	52.0
	60-69	87,839	59,220	28,619	67.4

8) 서울연구원 인포그래픽스 제98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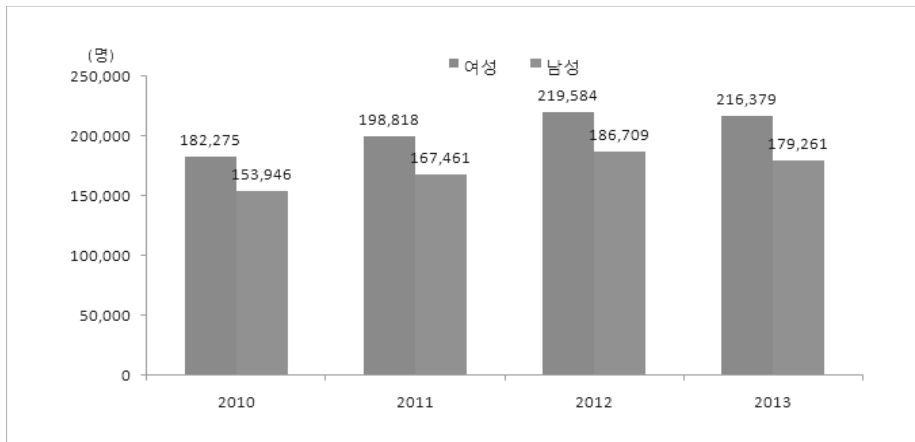
9) 출처: 통계청 해당 연도, 인구총조사, DB 웹서비스, 서울시 자료 발췌; 2013 통계로 보는 서울여성 재인용

연도	연령	전체	여성	남성	여성비율
	70-79	69,625	54,421	15,204	78.2
	80 +	25,456	21,060	4,396	82.7

자료 : 통계청(2000,2005,2010), 인구주택총조사, DB 웹서비스, 서울시 자료 발췌 (남정연 외, 2013a)

외국계 주민의 증가와 집적도 큰 특징으로 꼽히고 있다. 서울시의 외국계 주민의 전체 규모는 전국적으로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 위치를 차지하나, 전체 인구대비 비율(서울 4.1%, 경기 4.0%, 전국 3.1%)에서는 그 비율이 전국 최대이다. 25개 자치구 중 외국계 주민이 차지하는 비율이 5%를 넘은 곳이 영등포, 금천, 구로, 중구, 용산, 종로, 관악, 광진구로 서울의 도심권과 서남권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성별에 따른 구성 또한 여성의 비율(여성 54.4%)이 높다¹⁰⁾. 서울시 외국계 주민 인구의 두드러진 특징은 전국적인 현황에 비추어 결혼이민자뿐 아니라 동포, 유학생의 경우도 여성의 비율이 높으며, 근로자의 여성 비율 또한 전국적인 현황보다 큰 편이다.

■그림 II-2■ 서울시 거주 외국인 성별 등록 현황(2010-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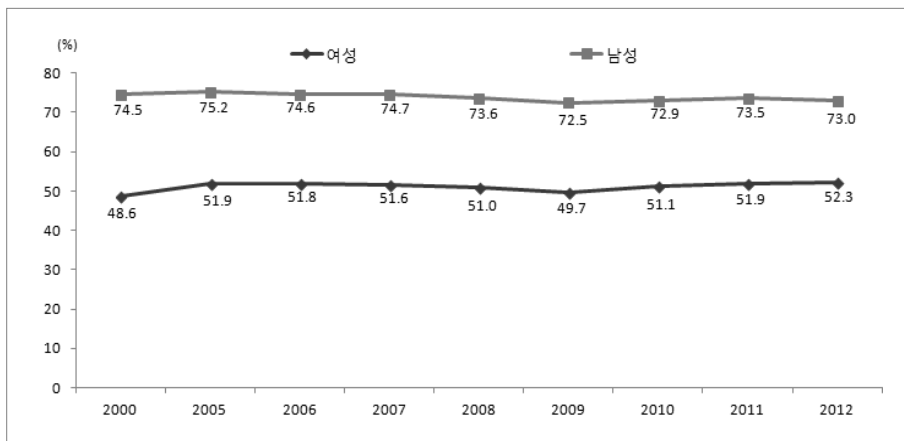
자료 : 안전행정부(2010-2013),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 (남정연 외, 2013a)

10) 2014 안전행정부 외국인 주민 통계

서울 거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2005년 이래 큰 변동을 보이고 있지 않은 한편으로 만혼 및 비혼, 이혼 등의 경향에 따른 다양한 서비스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14년 1월 52.7%를 기록해 2005년 6월 52.6% 대비 큰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으며, 고용율은 2005년 6월 50.2%에서 2014년 1월 50.9%로 조사되어 10년째 큰 변동이 없다¹¹⁾. 임금근로자 380만명 중 45.23%가 여성이며, 비정규직의 비율은 남성에 비해 높다(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12).

그림 II-3 | 서울시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2000, 2005~2012)



* 구직기간 1주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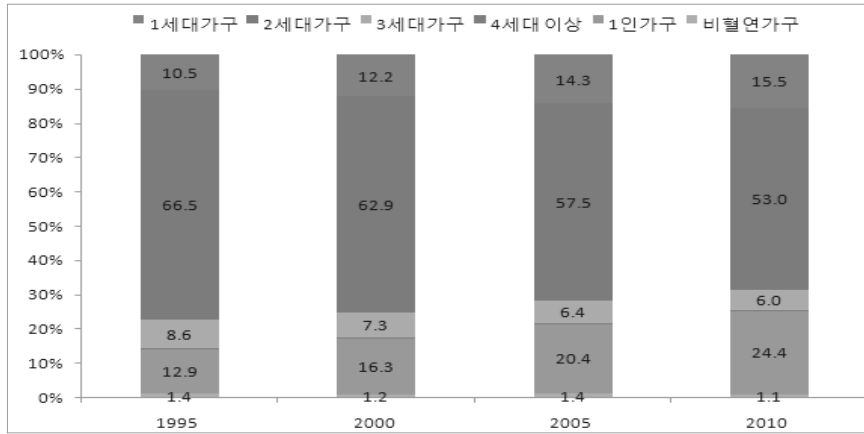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2000, 2005~2012), 경제활동인구조사 DB 웹서비스, 서울시 자료 발췌

출처 : 남정연 외, 2013a

2010년 통계청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서울시의 총 가구 수는 3,504,297가구로 2005년 3,309,890가구에 비해 약 19만 가구가 증가하였다. 가구의 세대구성을 보면 부부+자녀 구성을 포함하는 2세대 가구가 가장 많아 53.0%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은 전체 가구의 37.9%에 이르고 있다. 다음으로 1인 가구는 24.4%, 1세대 가구는 15.5% 순으로 높은 분포를 나타내고, 3세대 이상 확대 가족 가구는 6.0%에 불과한 상황이다(남정연 외, 2013a).

11) 뉴스1, 2014.3.7일자

그림 II-4 세대구성별 가구분포(1995, 2000, 2005, 2010)



자료 : 통계청 해당 연도, 인구총조사, DB 웹서비스, 서울시 자료 발췌 (남정연 외, 2013a)

서울시 여성의 초혼 연령은 30.4세로 전국(평균 29.6세)에서 가장 높으며, 전국 이혼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경기도(24.9%)에 이어 2위(17.5%)를 차지하고 있어 (2013 혼인·이혼통계), 한부모 가족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¹²⁾.

표 II-2 가구주의 혼인상태별 한부모 가구 분포(2000,2005,2010)

(단위 :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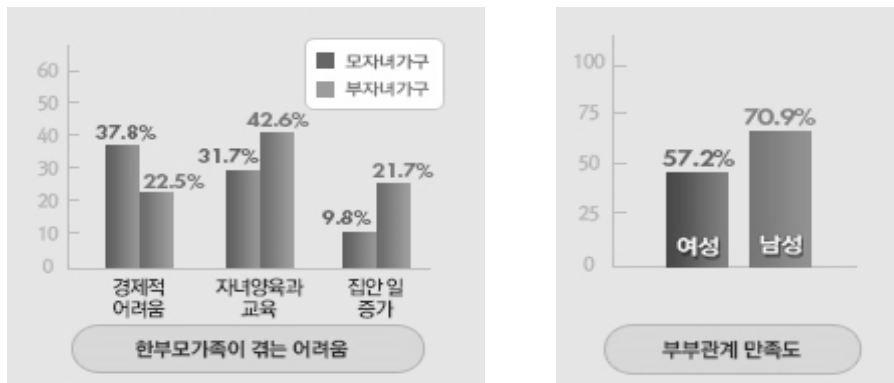
연도	계	유배우	사별	이혼	미혼	
한부모 가구 (계)	2000	270,199	63,721	111,684	65,259	29,535
	2005	317,607	74,839	114,019	94,660	34,089
	2010	351,848	87,022	104,961	114,253	45,612
(한)부+자녀	2000	51,978	15,043	14,505	21,141	1,289
	2005	63,445	15,512	16,669	28,926	2,338
	2010	71,510	20,271	15,496	31,144	4,599
(한)모+자녀	2000	218,221	48,678	97,179	44,118	28,246
	2005	254,162	59,327	97,350	65,734	31,751
	2010	280,338	66,751	89,465	83,109	41,013

자료 : 통계청(2000,2005,2010), 인구주택총조사, DB 웹서비스, 서울시 자료 발췌 (남정연 외, 2013a)

12) 부부 가구는 1980년 대비 2010년 4배 이상 증가, 한부모가족은 1980년 9.4%→2010년 10%로 증가

각 가족 안에서도 남녀에 따른 인식 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남정연 외, 2013), 가족관계에 대한 여성의 만족도가 낮으며,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문제제기도 여성 쪽에서 보다 심각하게 제기된다. 부부가구 내에서 여성의 부부관계 만족도가 57.2%인데 반해 남성은 70.9%, 모자녀 가구의 37.8%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반해 부자녀 가구는 22.5%가 경제적 어려움을 들고 있다. 다만 자녀양육과 교육, 집안일 증가에 대해서는 부자녀 가구의 어려움이 보다 크다는 특징이 있다. 결국 여성에 대한 경제적 자립지원이 일상적으로 필요하다면 양육과 돌봄에 대한 남성들의 일상적인 관심과 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Ⅱ-5 | 한부모 가족이 겪는 어려움 및 부부가구의 관계 만족도



자료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젠더 그래픽스 2014-02호¹³⁾

2) 자치구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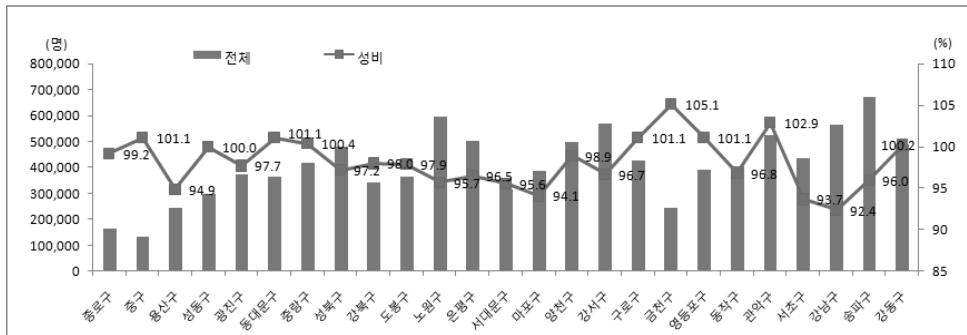
여기에서는 2013 서울시 자치구 성인지 통계(남정연 외, 2013b)를 토대로 자치구별 여성 가족 인구의 특성을 알아보고 이를 통해 권역 특징을 도출하여 서울시의 각 권역별 여성가족 인구의 특성을 반영한 여성가족시설의 배치와 설립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자치구별 문화, 복지 인프라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설치될 여성가족시설이 어느 곳을 우선 고려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검토하고자 한다.

13) 한부모 가족이 겪는 어려움은 2010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이 수행한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의 결과이고, 부부가구의 부부관계 만족도는 2012년 통계청의 사회조사 결과를 인용하였다.

(1) 인구 구조

2012년 12월 기준 서울의 여성은 5,153,982명, 남성은 5,041,336명으로 서울시는 여초 도시로 평가할 수 있다. 여성인구 100명에 대한 남성인구를 나타내는 성비는 97.8%로서, 경기도(101.5%)에 비해 여성비율이 높은 편이다. 9개 자치구는 남성인구가 많고, 14개 자치구는 여성인구가 많다. 여성인구가 많은 자치구는 강남구(92.4%), 서초구(93.7%), 마포구(94.1%)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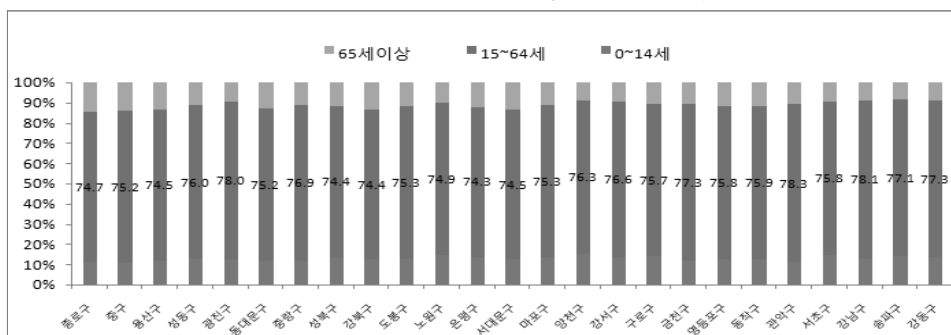
그림 II-6 자치구별 총인구 및 성비(2012)



자료 : 안전행정부, 「주민등록인구통계」, DB웹서비스 (남정연 외, 2013b)

2012년 기준 서울시의 연령별 인구구조에서 연소인구의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양천구(15.0%)이고, 생산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관악구(78.3%)이며, 고령인구 비율은 종로구가 14.4%로 가장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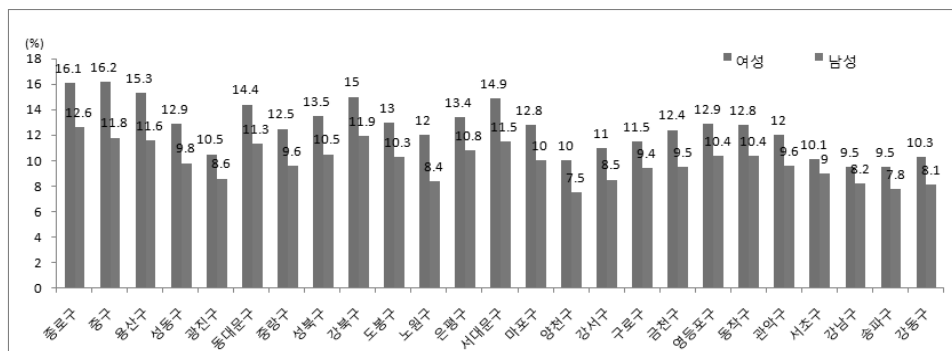
그림 II-7 자치구별 연령3계층별 인구 구성(2012)



자료 : 안전행정부, 「주민등록인구통계」, DB웹서비스 (남정연 외, 2013b)

자치구별 고령화 진전 수준도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서울시 평균 수준인 고령인구 비율 10.8%에 미달하는 젊은 자치구는 양천구(8.7%), 송파구(8.7%), 강남구(8.9%), 강동구(9.2%) 등이다. 고령사회로 이동하는 경계점인 고령인구비율 14%를 상회하는 자치구는 종로구(14.4%)와 중구(14.0%)인데, 이 두 지역은 오랜 역사와 장기적으로 거주하는 노인층이 많다는 공통점이 있다. 여성고령 인구만을 보면 중구(16.2%), 종로구(16.1%), 용산구(15.3%), 강북구(15.0%), 서대문(14.9%), 동대문구(14.4%)는 ‘고령 사회 도시’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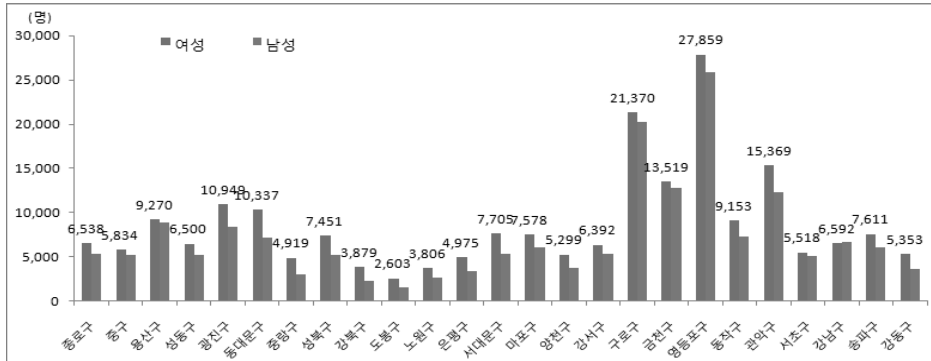
■ 그림 II-8 ■ 자치구별 성별 고령(65세 이상) 인구 비율(2012)



자료 : 안전행정부, 「주민등록인구통계」, DB웹서비스 (남정연 외, 2013b)

서울시 거주 총 외국인 주민은 2013년 1월 현재 395,640명으로 2010년 336,221명에 비해 59,419명이 증가하였다. 외국인 주민이 많은 자치구는 영등포구(53,666명), 구로구(41,622명), 관악구(27,673명), 금천구(26,287명), 광진구(19,352명) 등의 순이다. 외국인 주민의 성별 구성에서 여성은 216,379명(54.7%), 남성 179,261명(45.3%)으로 여성인구가 많으며, 이는 모든 자치구에서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림 II-9 자치구별 성별 외국인 인구 수(2013)



자료 :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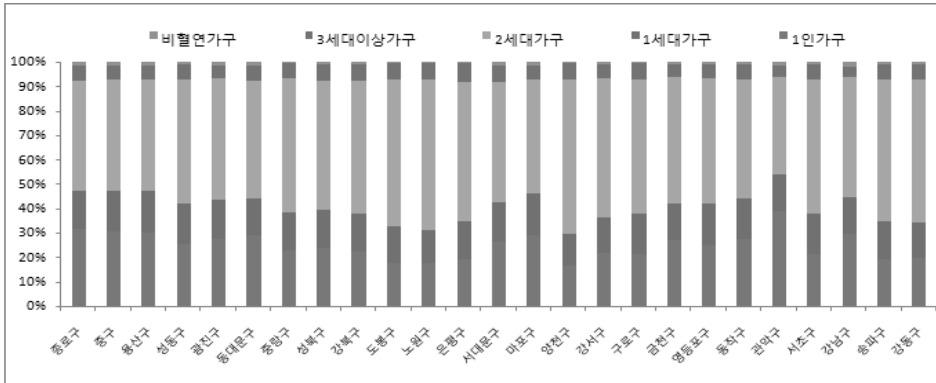
외국인을 거주 유형 혹은 법적 체류 자격 등에 따라 보다 세부적으로 구분해보면, 우선 외국인 근로자가 전체 외국인의 29.3%로 가장 많이 나타난다. 다음으로 재외동포 19.9%, 결혼이민자 7.8%, 외국인주민 자녀 7.5%, 유학생 7.3% 순이다. 자치구 중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가장 많은 곳은 금천구로 외국인 중 43.4%를 차지하며, 그 다음 영등포구(41.4%), 구로구(40.0%), 관악구(33.3%) 순이다. 외국인 여성 중 근로자의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영등포구로 36.5%에 달하고 있다.

한편 결혼이민자가 가장 많은 자치구는 도봉구로 외국인 중 17.9%를 나타내고 있다. 그 다음 결혼이민자는 강북구(16.4%), 노원구(16.3%), 중랑구(16.2%) 등에 많이 분포하고 있다. 결혼이민자여성의 국적을 보면 중국(한국계 중국인)이 32.0%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그 다음 중국(24.0%), 베트남(17.3%), 일본(9.8%), 필리핀(4.3%) 등의 순이다.

(2) 가족 특성

세대구성의 자치구별 특성은 다음과 같다. 1인 가구의 비중은 관악구(38.8%)가 가장 높고, 부부가구 비중은 영등포구(14.0%)가, 부부+자녀 가구 비중은 양천구(47.8%)가, 비혈연 가구 비중은 강남구(1.9%)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10 자치구별 가구 형태(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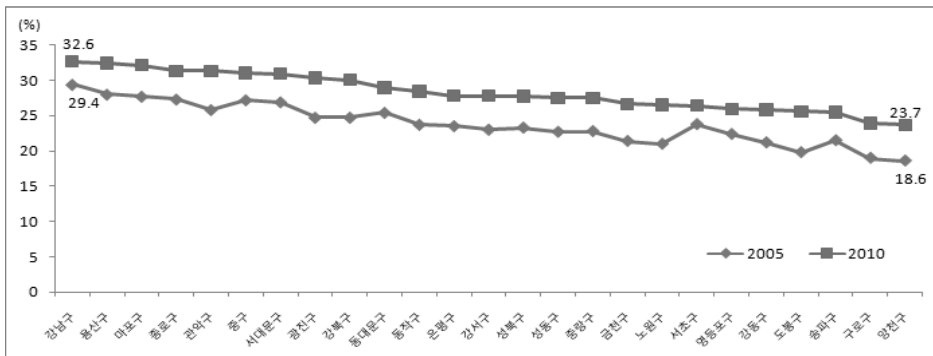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 DB웹서비스 (남정연 외, 2013b)

서울시 총 가구 중 여성 가구주 가구는 2005년 780,573가구에서 2010년 984,950가구로 약 20만 가구 증가하였고, 그 비중은 2005년 23.6%에서 2010년 28.1%로 증가하였다. 여성가구주 가구의 비중이 높은 자치구는 강남구(32.6%), 용산구(32.4%), 마포구(32.1%)이고, 상대적으로 낮은 자치구는 양천구(23.7%), 구로구(23.9%), 송파구(25.5%) 등의 순이다.

여성 가구주의 연령은, 40대가 24.1%, 다음으로 50대, 30대, 65세 이상 고령자, 20대 이하, 60-64세 순이다. 65세 이상 고령 가구주의 비중은 여성(18.6%)이 남성(13.7%)보다 높고, 20대 이하 가구주 역시 여성(18.5%)이 남성(7.0%)보다 높아 여성 가구주 가구 중 고령자 및 연소자 취약 가구 비중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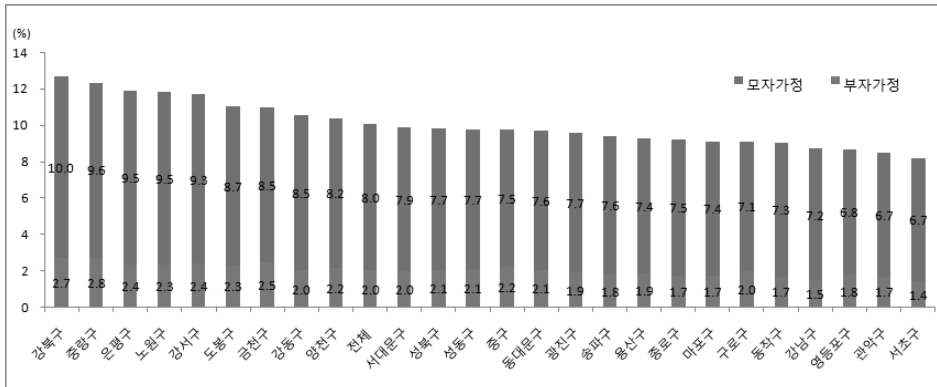
그림 II-11 자치구별 여성가구주 가구 비율(2005, 2010)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 DB웹서비스 (남정연 외, 2013b)

2010년 서울시 가구 중 한부모 가구(조손가구 제외)는 351,848가구로 전체 가구의 10.0%를 차지하고, 한부모 가구의 약 80%에 해당하는 280,338가구가 모자가정을 구성하고 있다. 이를 자치구별로 세분해보면 전체 가구 중 한부모 가구의 비중이 높은 자치구는 강북구(12.7%), 중랑구(12.3%), 은평구(11.9%) 등이고, 낮은 자치구는 서초구(8.2%), 관악구(8.5%), 영등포구(8.7%)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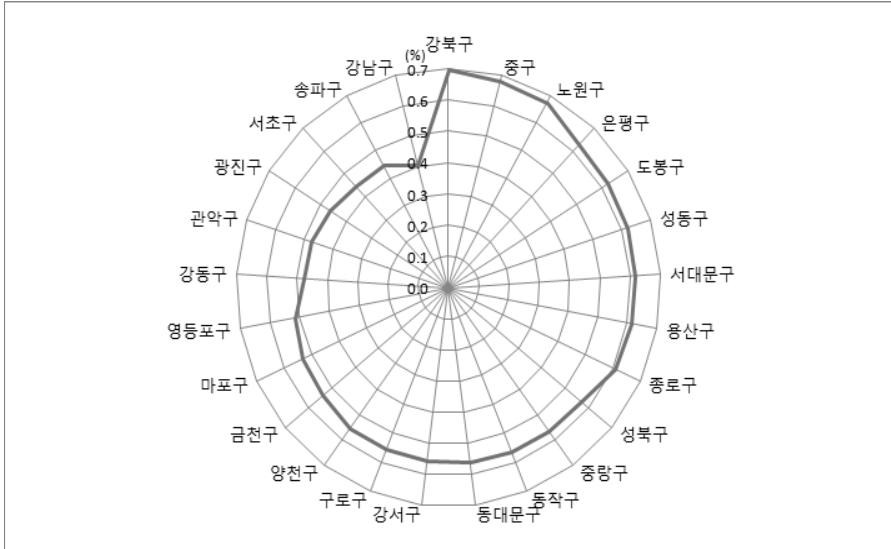
그림 II-12 자치구별 한부모 가구 비율(2010)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 (2010). DB웹서비스 (남정연 외, 2013b)

2010년 서울시 조손가구는 19,159가구로 전체 가구의 0.5%를 차지하고 있다. 조손가구의 61%인 11,622가구는 조부 또는 조모+미혼손자녀 가구이며, 약 39%인 7,537가구는 조부모+미혼손자녀 가구이다(남정연 외, 2013b). 조손가구의 비중이 높은 자치구는 전체가구의 0.7% 비중을 나타내는 강북구, 중구, 노원구 등이며, 낮은 자치구는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모두 0.4%)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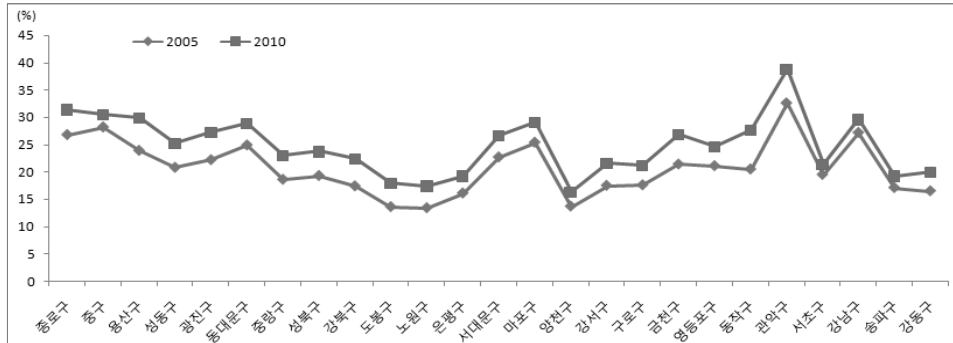
그림 II-13 자치구별 조손가구 비율(2010)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 (2010). DB웹서비스 (남정연 외, 2013b)

1인 가구의 비중이 높은 자치구는 관악구(38.8%), 종로구(31.4%), 중구(30.5%) 등 이고,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은 자치구는 양천구(16.3%), 노원구(17.4%), 도봉구 (17.9%) 등이다. 특히 2010년 서울시 1인가구의 52.7%인 450,030가구는 여성가구주 가구인데, 1인 가구 중 여성가구주 가구의 비중이 높은 자치구는 강남구(59.7%), 노 원구(59.7%), 도봉구(57.0%) 등이고, 금천구(44.0%), 관악구(44.9%), 구로구(47.7%) 등 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여성은 20대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자가 각각 27.1% 와 23.6%로 많은 반면, 남성은 30대의 1인 가구와 20대 이하가 각각 31.2%, 26.3%로 많이 나타난다. 여성1인가구 중 고령자 가구의 비중은 고령인구가 많은 자치구일수 록 더욱 높은데, 노원구는 여성1인가구의 37.1%가 고령자 가구이며, 도봉구는 34.7%, 강북구는 32.9% 순으로 나타난다(남정연 외, 2013b).

【그림 II-14】 자치구별 1인 가구 비율(2005, 2010)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 (2005, 2010). DB웹서비스 (남정연 외, 2013b)

(3)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장애인 현황

25개 자치구중 국민기초생활보장 가구 수가 가장 많은 곳은 노원구(11,814가구)이며, 그 다음 강서구(10,263가구), 관악구(6,580가구) 등이다. 반면 가구 수가 적은 곳은 서초구(1,851가구), 종로구(2,323가구), 중구(2,647가구) 등의 순이다.

【표 II-3】 자치구별 성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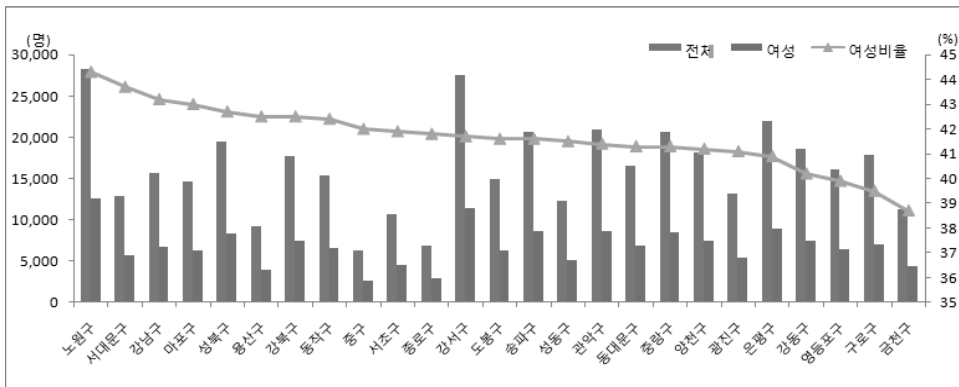
구분	총수급자			
	가구수	시설수	인원	
			전체	여성
전체	120,704	557	200,371	112,508
종로구	2,323	16	3,934	1,978
중구	2,647	2	3,574	1,732
용산구	3,319	14	4,534	2,310
성동구	3,472	14	5,581	3,120
광진구	3,240	26	5,037	2,955
동대문구	5,844	24	8,568	4,650
중랑구	6,135	28	9,897	5,658
성북구	5,832	17	9,182	5,302
강북구	6,263	23	10,481	6,077
도봉구	3,252	32	5,220	3,019
노원구	11,814	32	21,315	12,438
은평구	6,096	35	12,335	6,478
서대문구	3,497	30	5,348	3,107

구분	총수급자			
	가구수	시설수	인원	
			전체	여성
마포구	3,852	16	6,438	3,712
양천구	4,270	28	7,030	4,102
강서구	10,263	32	17,596	9,964
구로구	3,785	20	6,041	3,502
금천구	4,683	26	7,712	4,345
영등포구	5,340	21	8,106	4,139
동작구	3,614	15	5,804	3,387
관악구	6,580	27	10,561	6,063
서초구	1,851	8	3,002	1,688
강남구	5,122	10	9,017	5,347
송파구	3,640	23	6,306	3,617
강동구	3,970	26	6,691	3,818
본청	—	12	1,061	—

자료 : 서울시 복지정책과 내부자료 (남정연 외, 2013b)

2012년 서울시 등록 장애인 총 407,528명 중 여성은 41.7%이다. 여성 장애인 비율은 2010년 41.6%에서 2012년 41.7%로 증가폭이 미미한데, 여성장애인 비율은 노원구(44.3%), 서대문구(43.7%), 강남구(43.2%) 순으로 높게 나온다.

그림 II-15 자치구별 성별 장애인 등록 현황(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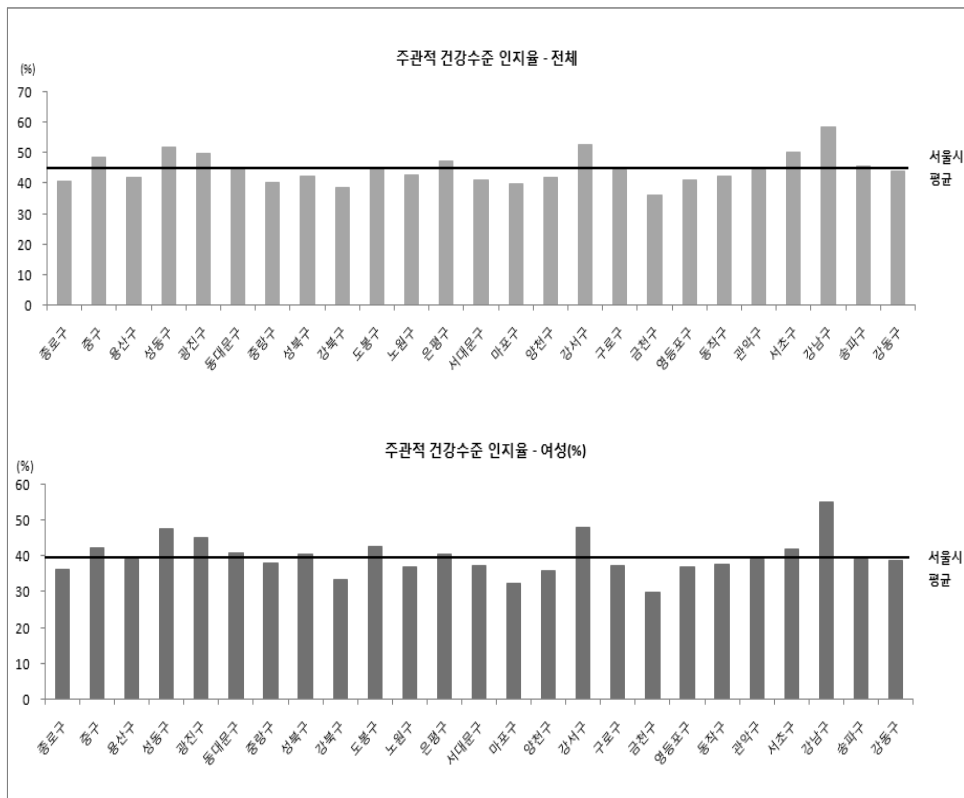


자료 : 보건복지부. 「장애인현황」 (2012). 통계청 DB웹서비스 (남정연 외, 2013b)

(4) 건강 및 생활 만족도

2012년 서울시의 주관적 건강 수준 인지율¹⁴⁾은 최대 58.3%(강남구)에서 최소 35.9%(금천구) 사이에 있다. 모든 자치구에서 여성의 건강 수준 인지율이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성의 건강 수준 인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곳은 강남구(54.9%), 강서구(48.1%), 성동구(47.5%)의 순이다.

■그림 II-16 ■ 자치구별 성별 주관적 건강 수준 인지율(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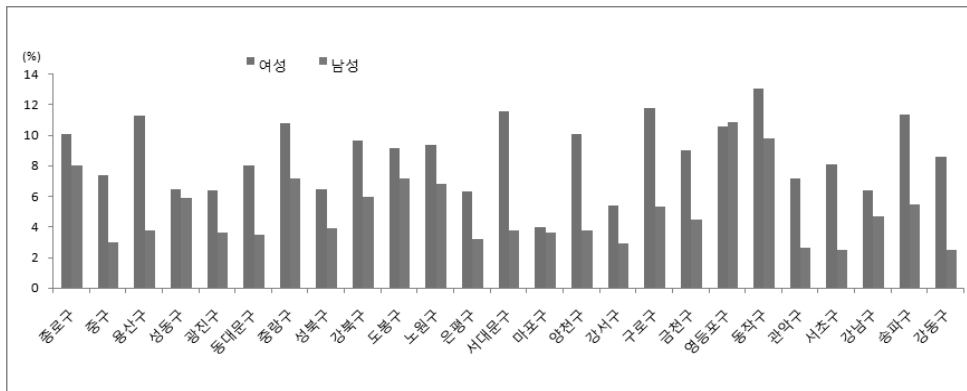


*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은 평소에 본인의 건강이 어떻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5점 척도 질문에 대해서 “매우 좋음” 또는 “좋음”에 응답한 사람의 비율
 자료 : 각 자치구 보건소, 「2012 지역사회 건강통계」(2013), 질병관리본부 DB웹서비스
 출처 : 남정연 외, 2013b

14) 스스로 건강수준이 좋다고 생각하는 비율

2012년 자치구의 우울감 경험률¹⁵⁾을 살펴보면, 영등포구를 제외하면 여성의 우울감 경험률이 남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치구별로 보면 우울감 경험은 동작구(11.5%), 영등포구(10.8%), 종로구(9.1%) 등에서 높고, 마포구(3.8%), 강서구(4.2%), 은평구(4.8%) 등에서 낮게 나타나고 있다.

■ 그림 II-17 ■ 자치구별 성별 우울감 경험률(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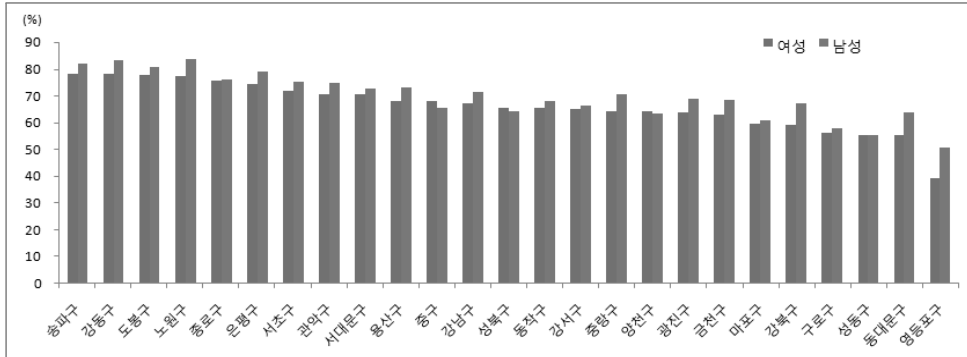


자료 : 각 자치구 보건소, 「2012 지역사회 건강통계」(2013), 출처 : 남정연 외, 2013b

2011년 지역의 자연환경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지역의 자연환경에 만족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자치구는 강동구(80.8%), 노원구(80.5%), 송파구(80.1%)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지역환경 만족도가 높은 자치구는 송파구(78.3%), 강동구(78.2%), 도봉구(77.7%) 순이고, 남성의 지역환경 만족도가 높은 자치구는 노원구(83.7%), 강동구(83.4%), 송파구(82.0%) 등이다.

15) 조사대상 응답자 중 최근 1년 동안 연속적으로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슬픔이나 절망감을 경험한 사람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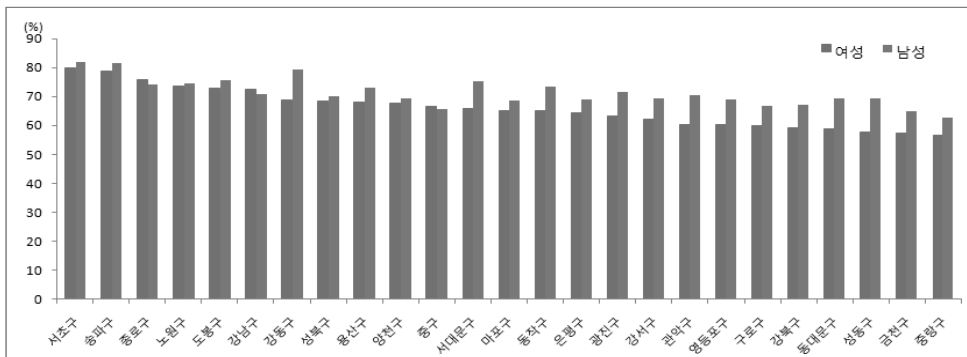
■ 그림 II-18 ■ 자치구별성별 전반적인 지역환경 만족도(2011)



* 기초자치단체(시, 군, 구) 보건소입. 자연환경(공기질, 수질) 등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임.
 자료: 각 자치구 보건소, 「2011 지역사회 건강통계」(2012). 질병관리본부 DB웹서비스
 출처: 남정연 외, 2013b

자치구별 전반적인 안전수준에 대한 만족도(2011년)가 높은 자치구는 서초구(80.8%), 송파구(80.3%), 종로구(75.0%) 순이다. 이에 반하여 지역 안전 수준의 만족도가 낮은 지역은 중랑구(59.6%), 금천구(61.4%), 강북구(63.0%) 등의 순이다. 성별로 종로구, 중구, 강남구를 제외하고 22개 자치구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지역안전 수준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 여성의 지역안전 만족도 수준이 높은 자치구는 서초구(79.9%)이고, 남성의 지역 안전만족도 수준이 높은 자치구도 서초구(81.8%)로 나타난다.

■ 그림 II-19 ■ 자치구별성별 전반적인 지역 안전수준 만족도(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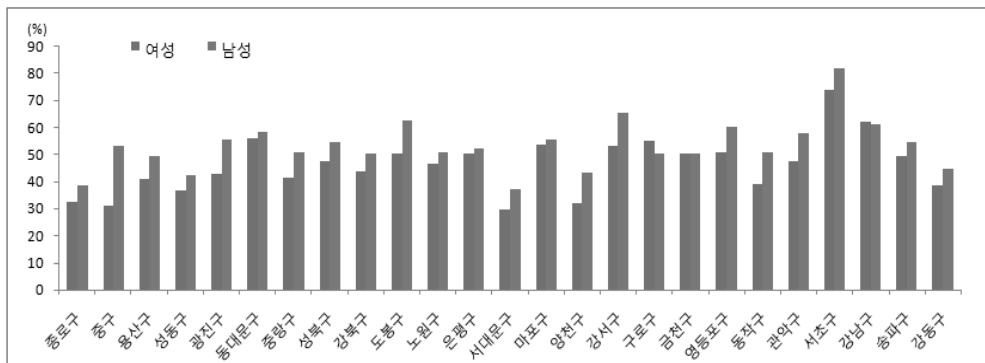
자료: 각 시군구 보건소, 「2011 지역사회 건강통계」(2012). 질병관리본부 DB웹서비스.
 출처: 남정연 외, 2013b

2012년 「서울서베이」의 분석결과 서울시민의 범죄 위험 인지 정도를 살펴본 결과 전체의 34.1%(‘매우 그렇다’ 5.1%, ‘어느 정도 그렇다’ 29.0%를 합한 수치)가 범죄 위험을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성별로 살펴보면 범죄위험 인지율은 여성이 38.9%, 남성이 29.3%로 성별에 따른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자치구별로 보면 범죄위험 인지율이 높은 가장 높은 곳은 마포구(48.4%)이고 가장 낮은 곳은 중구(14.0%)이다. 여성의 범죄위험 인지율이 높은 자치구는 영등포구(54.3%)이고 낮은 곳은 중구(11.6%)이다(남정연 외, 2013b).

성별 일자리 만족도를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여성 일자리 만족도는 서초구(74.2%)가 가장 높고, 강남구(62.1%), 동대문구(56.1%) 순이며, 남성 일자리 만족도 또한 서초구(82.0%)가 가장 높으며, 강서구(65.5%), 도봉구(62.6)순이다.

여성 일자리 만족도가 낮은 자치구는 서대문구(29.8%), 중구(31.1%), 양천구(31.9%) 등이고, 남성 일자리 만족도가 낮은 자치구는 서대문구(37.0%), 종로구(38.8%), 성동구(42.6%) 등의 순이다.

■ 그림 II-20 ■ 자치구별·성별 일자리 만족도(2012)



자료 : 서울시, 「서울서베이-가구원 조사」 (2012), 원자료 분석
출처 : 남정연 외, 2013b

(5) 사회참여 및 문화 활동

2012년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25개 자치구의 총 자원봉사자 수는 1,536,858명이고, 이 중 여성은 922,269명으로 60%에 이르고 있다. 자치구별로 보면 자원봉사자의 수가 가장 많은 곳은 강서구로 133,357명을 나타내고 있다. 그 다음

송파구(112,088명), 강남구(106,593명)의 순이다(남정연, 2013b). 자원봉사자의 여성 비율은 모든 자치구에서 50%를 상회하고 있어 여성참여가 높다. 여성자원봉사자 참여비율이 특히 높은 자치구는 광진구(69.8%), 마포구(64.2%), 구로구(63.8%) 등인 것으로 나타난다.

■ 표 II-4 ■ 자치구별성별 자원봉사활동 참여 경험(2012)

(단위 : %)

구분	전체		여성		남성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전체	22.7	77.3	25.5	74.5	19.9	80.1
종로구	33.0	67.0	36.5	63.5	29.4	70.6
중구	20.8	79.2	22.2	77.8	19.5	80.5
용산구	27.2	72.8	33.9	66.1	20.2	79.8
성동구	25.5	74.5	27.9	72.1	23.1	76.9
광진구	28.2	71.8	30.9	69.1	25.5	74.5
동대문구	22.1	77.9	26.1	73.9	18.2	81.8
중랑구	37.7	62.3	42.3	57.7	33.2	66.8
성북구	24.1	75.9	27.7	72.3	20.3	79.7
강북구	14.7	85.3	16.2	83.8	13.2	86.8
도봉구	22.0	78.0	24.8	75.2	19.2	80.8
노원구	14.8	85.2	17.7	82.3	11.7	88.3
은평구	20.0	80.0	25.0	75.0	14.9	85.1
서대문구	22.1	77.9	25.3	74.7	18.7	81.3
마포구	28.6	71.4	30.9	69.1	26.2	73.8
양천구	16.9	83.1	21.1	78.9	12.5	87.5
강서구	19.6	80.4	19.0	81.0	20.2	79.8
구로구	21.6	78.4	22.0	78.0	21.2	78.8
금천구	26.1	73.9	28.7	71.3	23.7	76.3
영등포구	21.3	78.7	22.1	77.9	20.5	79.5
동작구	20.7	79.3	24.3	75.7	17.0	83.0
관악구	30.4	69.6	32.8	67.2	28.2	71.8
서초구	18.0	82.0	23.1	76.9	12.5	87.5
강남구	15.0	85.0	16.8	83.2	13.0	87.0
송파구	26.9	73.1	31.0	69.0	22.5	77.5
강동구	21.9	78.1	22.4	77.6	21.3	7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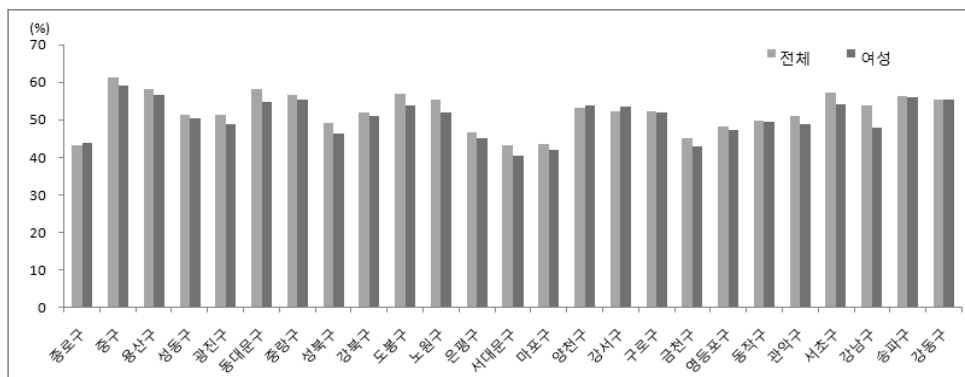
*지난 1년간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응답임.

자료 : 서울시, 「서울서베이」(2012).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출처 : 남정연 외, 2013b

2011년 서울시민의 친목활동 참여정도를 보게 되면 친목활동이 가장 많은 자치구는 중구(61.3%), 동대문구·용산구(58.3%), 서초구(57.1%) 순으로 나타난다. 친목활동이 가장 적은 자치구는 서대문구(43.3%), 종로구(43.4%), 마포구(43.5%) 등의 순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성별로 종로구, 강서구, 강동구를 제외하고 모든 자치구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친목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활동의 내용에 따라 성별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여성의 친목활동 참여율(59.0%)과 남성의 친목활동 참여율(63.5%)이 가장 높은 자치구는 중구인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II-21 자치구별성별 친목활동 참여 정도(2011)



자료 : 각 자치구 보건소, 「2011 지역사회 건강통계」(2012). 질병관리본부 DB웹서비스.
출처 : 남정연 외, 2013b

서울시민의 여가활동 참여 수준¹⁶⁾을 2011년 「지역사회 건강통계」에 나타난 수치를 통해 파악해보면, 자치구별 성별로 격차가 상당히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우선 자치구별로 최대 51.2%(송파구)에서 최소 19.1%(금천구)로 지역간 격차가 크다. 그 외에 여가활동 참여율이 높게 나타나는 지역은 서초구 50.4%, 강남구 46.4%이며, 여가활동 참여율이 낮게 나타나는 지역은 서대문구 23.7%, 종로구 28.8% 순이다.

모든 자치구에서 남성의 여가활동 참여율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난다. 성별 여가활동 격차가 가장 큰 곳은 서초구(19.3%p), 노원구(18.5%p), 중랑구(17.5%p) 등이고 성별 격차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은 광진구(5.0%p), 서대문구(6.1%p), 종로구(6.5%p)이다.

16) 한 달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문화나 레저 활동에 참여하는 비율

【 표 II-5 】 자치구별 성별 여가활동 참여율(2011)

(단위 : %)

구분	전체	여성	남성
종로구	28.8	25.6	32.1
중구	41.3	36.0	46.6
용산구	38.9	33.8	44.5
성동구	36.7	30.3	43.1
광진구	43.0	40.5	45.5
동대문구	35.0	28.9	41.4
중랑구	31.4	22.7	40.2
성북구	35.2	28.4	42.4
강북구	32.3	27.9	36.8
도봉구	34.6	28.2	41.3
노원구	39.1	30.2	48.7
은평구	30.3	26.2	34.6
서대문구	23.7	20.7	26.8
마포구	29.0	22.9	35.6
양천구	40.7	37.2	44.3
강서구	36.6	32.7	40.8
구로구	35.3	26.5	44.0
금천구	19.1	14.5	23.5
영등포구	42.3	36.3	48.4
동작구	38.6	33.7	43.7
관악구	39.2	31.3	46.8
서초구	50.4	41.2	60.5
강남구	46.4	41.4	51.9
송파구	51.2	46.9	55.7
강동구	32.1	26.6	37.9

*여가활동 참여율은 한 달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문화나 레저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의 비율임.

자료 : 각 자치구 보건소, 「2011 지역사회 건강통계」(2012). 질병관리본부 DB웹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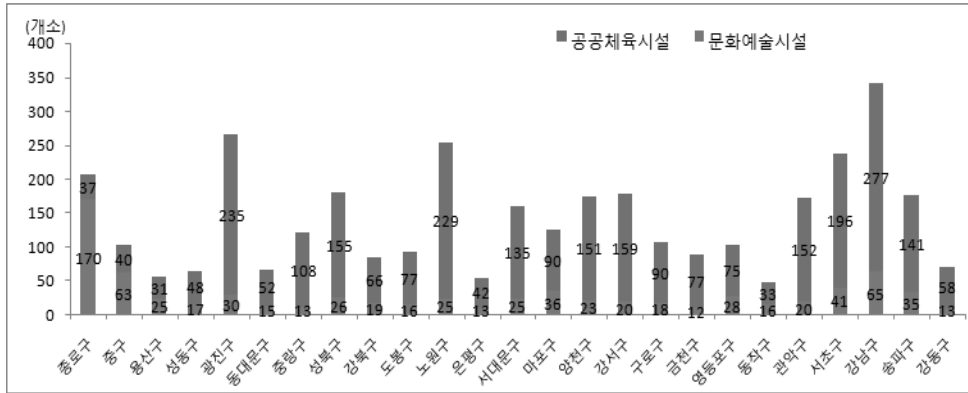
출처 : 남정연 외, 2013b

(6) 문화 및 복지 기반

2011년 기준 서울시 소재 문화예술시설은 총 784개소인 것으로 파악된다. 유형별로는 공공 공연장 87개소, 민간 공연장 198개소, 영화관 71개소, 박물관 114개소, 미술관 34개소, 문화 보급 전수시설 31개소, 지역 문화 복지시설¹⁷⁾ 186개소로 나타나고 있다.

같은 시기 서울시 소재 공공체육시설은 총 2,754개소로, 유형별로는 육상 경기장 3개소, 축구장 62개소, 하키장 1개소, 야구장 12개소, 테니스장 59개소, 간이운동장(동네체육시설) 2,354개소, 체육관 112개소, 수영장 86개소, 국공장 8개소, 양궁장 1개소, 승마장 1개소, 골프연습장 29개소, 빙상장 3개소 등이다.

그림 II-22 | 자치구별 문화예술시설 및 체육시설 현황(2012)



자료 : 1) 서울시 문화정책과, 문화산업과, 역사문화재과, 복지정책과, 체육진흥과, 아동청소년담당관 「문화공간」, 서울통계정보시스템 DB웹서비스.

2) 서울시 체육진흥과, 「공공체육시설」, 서울통계정보시스템 DB웹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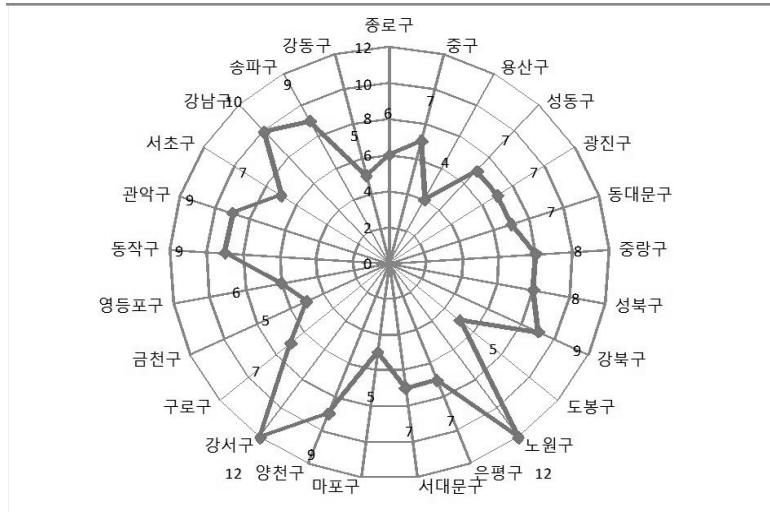
출처 : 남정연 외, 2013b

위에 제시된 바와 같이 지역민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예술 및 체육시설 현황에서도 자치구별 차이가 뚜렷하다. 특히 문화예술 시설의 경우 도심지인 종로구에 집중된 경향을 보여, 금천, 강동, 은평, 중랑구의 현황이 보다 열악한 것으로 드러나 있다.

문화예술회관·구민회관·종합복지회관·구민체육시설을 포함한 지역문화 복지시설 현황에서도 자치구별 차이는 있다. 아쉬운 점은 전반적인 문화예술 및 체육시설 기반과 지역문화 복지시설이 상호 보충적 관계를 이루고 있지 않은 현실이다. 다른 자치구에 비해 열악한 동작이나 은평, 금천구의 경우, 지역 문화 복지시설이 다른 자치구에 비해 좋은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향후 관련 시설의 배치에서 우선 고려가 되어야 할 것이다.

17) 문화 보급 전수시설은 문화원, 국악원, 전수회관이 포함되고 지역문화 복지시설에는 문화예술회관·구민회관·종합복지회관·구민체육시설이 포함된다.

■ 그림 II-23 ■ 자치구별 지역문화 복지시설 현황(2012)



자료 : 남정연 외(2013b)

지표를 중심으로 본 서울 도시 공간 변화에 관한 보고서(맹다미, 2010)에서는 문화시설이 서울 평균 이상인 자치구는 종로, 강남, 중구뿐으로 나머지 22개 자치구는 모두 평균 이하임을 지적하고 있다. 더불어 성동, 광진, 중랑구는 사회복지 시설이 가장 적게 분포되어 있으며, 특히 동북권은 서울 전체 인구의 1/3이 거주하고 있지만, 종사자 수는 20%에 그쳐 고용기반이 매우 취약하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1인당 공원면적도 자치구별 편차가 심해 1인당 공원 면적이 가장 넓은 서초구(36.5㎡/인)와 가장 적은 영등포구(1.6㎡/인)의 차이는 약 20배에 달한다.

3) 2030 도시 플랜과 5대 권역별 특징 연계

이상의 자치구별 특성을 바탕으로 서울을 5대 권역으로 나누어 여성 가족 인구의 특징을 정리해 보면 아래 표와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서울시 5대 권역은 서울시 2030 도시계획에 따라 구분하여 전체적인 서울의 도시계획과 여성가족시설의 배치 계획의 연계를 염두에 두고 있다.

서울시는 2013년 2030 도시계획안을 발표하면서 서울의 미래상으로 “소통과 배려가 있는 행복한 시민도시”를 표방하고, 핵심 이슈로 차별 없이 더불어 사는 사람

중심도시, 일자리, 활력 넘치는 글로벌 상생도시, 역사가 살아 있는 즐거운 문화도시, 생명이 살아 숨 쉬는 안심도시, 주거안정과 이동이 편리한 주민공동체 도시를 선정하였다.¹⁸⁾ 이 중 복지·여성·교육 카테고리의 핵심 이슈가 바로 차별 없이 더불어 사는 사람중심 도시이다. 그 목표 중 하나로 제시된 것이 ‘성평등과 사회적 돌봄의 실현’이다.

이슈	차별 없이 더불어 사는 사람 중심 도시				
목표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복지 시스템 마련	시민 누구나 건강하게 사는 생활터전 조성	양극화 및 차별 해소를 위한 사회 시스템 구축	전생애 걸쳐 학습 가능한 교육 시스템 구축	성평등과 사회적 돌봄의 실현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 강화 고령인구의 사회 참여 기회 확대와 세대통합 문화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효율적 공공보건 의료체계 구축으로 건강사각지대 해소 생애주기별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환경성 질환 예방 관리 및 시민 먹거리 안정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별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문화적 약자의 권리 보장 강화 나눔과 참여로 자발적 복지 공동체 기반 마련 문화다양성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누구나 차별없는 교육기회 제공 전인교육을 위한 학교 기능의 회복 지역자원을 활용한 교육 공동체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 평등한 가족 사회 환경 조성 여성의 경제활동을 위한 사회 환경 조성 위험·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 지역사회 돌봄 공동체 구현

자치구별 여성 가족 인구특성 분석을 통해 볼 때 여성가족시설의 지향점은 ‘차별 없이 더불어 사는 사람 중심 도시’의 목표 ‘성 평등과 사회적 돌봄의 실현’에 국한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고령 인구의 비율이 높고 그 중에서도 여성 고령인구의 비율이 높은 도심권의 경우 초고령 사회에 대응한 복지시스템 마련과 성평등과 사회적 돌봄의 실현이라는 목표를 함께 고려할 때 보다 높은 시민 체감도를 견인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성평등과 사회적 돌봄의 실현이라는 목표 실현의 전략을 각 권역별 여성가족시설의 기본으로 삼고 그 외 네 가지 목표 전략을 권역별 여성가족의 특성에 비추어 여성가족시설 블록 구축에 적용하고자 한다. 이에 자치구별 여성가족의 특성을 5대 권역별로 분석하여 범주화하고, 2030 서울 도시계획의 권역별 미래상과 함께 차별 없는 사람중심 도시 이슈를 연계하였다. 권역별 여성가족 복합

18) 2013년 9월 27일 시민참여형 도시계획 2030 서울플랜(안) 발표자료 참조.

공간의 주제는 여성가족 인구의 특성에 권역 미래상을 반영한 ‘차별 없이 더불어 사는 사람 중심 도시’의 전략을 통해 도출하였다.

【 표 II-6 】 권역별 자치구별 여성가족 인구 특성

권역	권역별 여성 가족 인구 특징	2030 서울플랜 미래상	2030 서울플랜 전략 적용
도심권 (종로, 중구, 용산)	서울시에서 최소 인구 거주권(전체인구의 5%)인 도심권의 고령화 진척도가 빠름. 여성인구 중 고령여성 비율로 볼 때, 중구(16.2%), 종로구(16.1%), 용산구(15.3%)는 고령화 도시.	역사문화 도심으로서의 위상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 고령인구의 사회참여기회 확대와 세대통합 문화 조성
서북권 (은평, 서대문, 마포)	서울 전체 인구의 12% 거주. 전반적으로 여성 인구의 규모가 남성 인구에 비해 큼. · 여성 장애인(서대문), 여성 수급권자(은평) 등의 비율이 높음.	창조문화산업 특화 및 양호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 나눔과 참여로 자발적 복지 공동체 기반 마련
서남권 ¹⁹⁾ (강서, 양천, 구로, 영등포, 금천, 관악, 동작)	서울 전체 인구의 30%가 거주. 고령화를 제외한 서울시 여성 가족의 다양한 특성이 드러나는 권역 · 영등포구, 구로구, 관악구, 금천구는 외국계 주민이 많은 자치구 · 강서구, 관악구는 수급권자 많은 구 · 1인가구와 여성가구주가 최다인 구는 관악구 · 영등포구는 1인당 공원 면적이 가장 적은 자치구(서초구 36.5㎡/인, 영등포 1.6㎡/인) · 동작구는 우울증 경험 주민 多(11.5%) · 2030 도시계획 : 문화시설의 불모지	신 성장산업거점 육성 및 주민생활기반 강화	· 차별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문화적 약자의 권리 보장 강화 · 문화다양성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 조성 · 생애주기별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동남권 (서초, 강남, 송파, 강동)	서울 전체 인구의 21%가 거주하는 권역 · 2011년 전반적인 안전 수준 만족도에서 서초구, 송파구 순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 거주민의 생활만족도가 비교적 높은 권역임. · 송파구와 강남구는 자원봉사참여율이 높은 구 · 강남구는 여성인구가 많고, 여성가구주 비율이 서울 자치구 중 최대인 자치구	글로벌 업무상업 기능강화 및 기존 주거지 계획적 관리	· 지역자원을 활용한 교육 공동체 실현

19) 외국인 근로자가 가장 많은 곳은 금천구로 외국인 중 43.4%를 차지하며, 그 다음 영등포구(41.4%), 구로구(40.0%), 관악구(33.3%) 순이다. 외국인 여성 중 근로자의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영등포구로 36.5%에 달하고 있음.

20) 결혼이민자가 가장 많은 자치구는 도봉구로 외국인 중 17.9%, 강북구(16.4%), 노원구(16.3%), 중랑구(16.2%) 등에서 많이 분포, 전체 가구 중 한부모 가구의 비중이 높은 자치구는 강북구(12.7%), 중랑구(12.3%), 은평구(11.9%) 등, 조손가구의 비중이 높은 자치구는 전체가구의 0.7% 비중을 나타내는 강북구, 중구, 노원구 등.

권역	권역별 여성 가족 인구 특징	2030 서울플랜 미래상	2030 서울플랜 전략 적용
동북권 ²⁰⁾ (도봉, 강북, 노원, 성북, 중랑, 동대문, 성동, 광진)	<p>전반적으로 주거 밀집도가 높은 지역으로 서울 전체 인구의 32%가 거주하는 권역 노원구는 여성 장애인 비율이 최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기반이 취약한 권역 · 외국인 중 결혼이민자 비율 높음(도봉 17.9%, 강북 16.4%, 노원 16.3%, 중랑 16.2%) · 성동, 광진, 중랑 등은 사회복지시설이 가장 적게 분포, 강북(12.7%) 중랑(12.3%)은 한부모 가구 비중이 높은 구, 강북, 노원은 조손가구 비중 높음 · 2030 도시계획에서 문화시설의 불모지로 정의 	<p>가족 기능 강화 및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 활성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별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문화적 약자의 권리 보장 강화 · 나눔과 참여로 자발적 복지 공동체 기반 마련

2. 여성가족시설의 현황

이 연구에서 여성가족시설의 범주는 기본적으로는 서울시 여성가족 정책실에서 관장하는 시설 중 여성, 가족 시설로 분류된 곳과, 아동 청소년시설과 시간제 보육 시설에 한정해서 보고 있다. 아동 청소년시설을 함께 고려하는 것은 여성가족시설에 대한 수요에 비해 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아동 청소년시설과의 복합화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모색하기 위함이다. 현실적으로도 영등포구 같은 사례가 있는 만큼 신규 시설을 설립할 여지가 적은 지역에서는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사안이다. 시간제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여성들의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여성의 활동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인 시설이라는 점이 연구의 범주에 포함된 이유이다.

1) 여성관련 시설

기존 연구에서 여성가족 복합시설로 명명된 서울시의 시설은 동작구 대방동에 위치한 ‘서울여성플라자’ 한 곳에 지나지 않는다. 다만 이 연구에서는 여성플라자와 더불어 각 자치구에서 설치·운영 중인 여성가족시설도 함께 고려 하고자 한다. 이 연구가 실제 서울시 여성가족시설의 배치현황과 시민 수요를 파악하여 그에 따른 정지적인 배치(안)의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서울시에서 행정적인 관여를 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실제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여성회관 등의 시설까지를 포함시킬 때 보다 현실을 반영한 여성가족시설의 블록 구축이 가능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표 II-7】 서울시 여성 관련 시설 분포 현황

구 분	도심권		서북권		서남권					동남			동북					합계									
	종로구	중구	용산	은평	서대문	마포	강서	양천	구로	영등포	김천	관악	동작	서초	강남	송파	강동		도봉	강북	노원	성북	중랑	영등포	아동	관악	
복합 시설	여성회관 ²¹⁾	1	1	1		1			1				1	1		1			1			2				12	
	여성플라자											1															1
여성 인력 개발 기관	능력개발센터											1															1
	발전센터					1	1		1											1						1	4
여성 복지 시설	인력개발센터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7
	서울 1366								1																		1
	가족상담소	2	1	2	2	2	3	2	4	1	4	1		3	1	1				1	1	1	2		2	34	
	성폭상담소 ²²⁾		1		1	1	2	1		1	2	1	3	1	1		1	1		(1)							19
	성매매관련상담												1			1							1				3
	가족피해자보호	1			2	1			1		1		1	1				3					1				12
	성폭피해자보호					1								1													2
	성매매피해보호 ²³⁾	1	1			2			2	1			2								3		2				14
	폭력피해이주여성보호	2				2															2						6
	폭력피해자통합지원	1				1	1						1	1	1				1								7
	여성노숙인시설 ²⁴⁾													1													2
	성매매피해자활지원									1																	1
	이주여성자활지원									1																	1
	여성장애인어울림						1	1	1					1													4

21) 여성가족정책실의 관련 시설 목록에는 빠져 있으며 대부분 구 단위 운영 시설로 동대문구는 여성 복지관 이름으로 2개소, 서초구는 구립서초여성회관, 도봉구는 구청이 설립주체인 도봉여성센터, 성북구는 성북여성회관, 송파구는 송파여성문화회관, 중구는 중구여성플라자, 용산구는 용산여성 문화회관, 종로구는 동부여성문화센터, 서대문구는 문화회관 내에 여성센터, 강서구는 강서여성문화나눔터로 강서구 종합복지관에서 운영 중이며, 영등포구는 청소년문화의집 내에 위치한 여성복지센터이다.

22) ()는 성폭력·가정폭력 통합상담소

23) 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에는 일반지원시설 6개소, 청소년 지원시설 5개소, 그룹홈 3개소가 포함되어 있음.

24) 정원 400명의 여성노숙인시설 1개소는 경기도 용인에 위치하고 있음.

특정한 분야로 정의할 수 없는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여성회관, 문화센터 등은 도심권의 경우 모든 자치구에 설치되어 있다. 서북권의 은평, 마포, 서남권의 양천, 구로, 금천, 관악, 동남권의 강남, 강동, 동북권의 강북, 노원, 중랑, 성동, 광진구에는 관련시설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전반적으로 서남권과 동북권의 자치구에 관련 시설이 보다 보강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분명한 것은 기존 여성 관련 시설들이 그 고유의 기능을 넘어서 역할을 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여성복지시설의 경우 특정 주제별로 이용자가 지극히 제한적이며, 여성인력개발 기관이 취창업 관련 분야 이외의 기능으로 확장될 여지를 찾기도 쉽지 않다.

2) 가족 및 보육 시설

건강가정지원법에 의해 설치되는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모든 자치구에 설치되어 있고, 특히 중구는 서울지역센터가 설치되어 있어 총 26개소가 서울시에서 실질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그 주 이용층이 다문화가족과 결혼이주민으로 지역민 전반에 대한 프로그램이 부각되지는 않았다. 여기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통합 논의가 진행되는 시점임을 감안할 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개방성을 논하기는 어렵다. 또한 가족 관련 시설이라고 해도 보호시설, 공동생활시설은 여성복지시설과 같이 특정한 상황에 처한 이들을 중심으로 한 시설이라는 점에서는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는 없다.

다만 자치구별로 설치되어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권역별로 설치되어 있는 한부모가족지원센터가 전반적으로 지역의 가족 이슈에 대해 얼마나 특화된 접근을 하고 있으며, 가족 관련 이슈에 대해 지역 커뮤니티에 얼마나 개방성을 가지고 있는지는 계속해서 논의해 볼 문제이다.

【표 II-8】서울시 가족 및 시간제 보육 등 시설 분포 현황

구 분	도심권			서북권			서남권					동남권				동북권					합계				
	중구	영산	영등포	서대문	마포	강서	양천	구로	영등포	금천	관악	동작	서초	강남	송파	강동	노원	강북	성북	중랑		도봉	성동	관진	
가 족	건강가정지원센터	1	2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26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	1	1	1	1	1	1	1	1	1	1	-	1	1	1	1	1	1	1	1	1	1	24	
	다문화가족교육센터												1												1
	한부모가족지원센터 ²⁵⁾				1			1	1						1		1						1		6
	모자보호시설			2					2								1	1							6
	모자일시보호								1																1
	미혼모자시설					3	1	1						1											6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	1			1	2			1									1	1						6
	부자공동생활가정						1																		1
	보 육 26)	시간제 보육시설 ²⁷⁾							1			1	1	8			2								13
육아종합지원센터		1	2 ²⁸⁾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26	
	서울상상나라																						1	1	

3. 아동·청소년시설의 현황

아동·청소년시설의 현황을 살펴보는 것은 앞서 논의된 시설 간 기능 연계를 통한 블록구축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함이다. 교육시설이나 보호시설과 같은 곳보다는 활동시설로 분류되는 수련관, 문화의 집 등에 여성가족의 수요를 담아낼 가능성을 타진하는 동시에 청소년 휴 카페의 사례를 통해 여성가족의 수요를 담아내는 여성

25) 서울센터는 구로구에 있으며, 동남권센터는 송파, 동부권센터는 성동, 동북권센터는 강북, 서남권센터는 양천, 서북권센터는 서대문구에 설치되어 있다(서울한부모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eoulhanbumo.or.kr> 참조).

26) 보육시설은 시간제 보육시설과 지원시설에 한정해서 보고자 한다.

27) 서울시는 2014년 시간제 보육시설을 32개소로 확대 운영할 계획임을 밝혔다. 기존 11개소에 추가되는 21개소는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국공립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새롭게 설치될 예정이다. 올해 추가된 21개소 중 2개소(서초, 동작)는 7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리모델링을 거쳐 ▲8월 13개소 ▲9월 4개소 ▲10월 2개소를 차례로 운영할 예정이다(여성신문, 2014.08.11일자).

28) 중구의 경우 자치구 센터와 시 센터가 있는 관계로 2개소이다.

주의 카페의 가능성도 함께 모색해볼 수 있을 것이다. 여성복지시설 중 각종 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이 지역민에게 개방되는 데 한계를 갖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동·청소년시설 중에서도 보호시설, 이용시설, 생활시설은 다른 기능이 부가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표 II-9 서울시 아동·청소년시설 분포 현황

구 분	도심권			서북권			서남권					동남권			동북권					합계							
	중랑구	종로구	영산	이평	서대문	마포	강서	양천	구로	영등포	금천	관악	동작	서초	강남	송파	강동	노원	성동		강남	영등포	동대문	성동	광진		
청소년	7	10	16	7	7	17	16	13	8	31	10	11	18	7	9	15	5	11	9	11	7	9	15	8	10	277	
활동 시설	수련관		2	1	1	1	2	2	1	1	1	2	1	2	3	2	1	1	1	1	1	2	1	1	1	33	
	특화시설 ²⁹⁾		1	1						1			1	1												5	
	문화의집	1			1	1	2		2			2	1					3	1	1				1		18	
	유스호스텔		1				1			1						1											4
	수련원																	2	1								3
	야외체험장 ³⁰⁾													1													2
교육 시설	공부방	1	2	9		1	2	6	7	3	15	5	2	11	1	1	4		1	3	4	5	10	2	1	95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1	1	2		2	1		1	1	1		1		1				1				2	1		16	
	학력미인정	2	2	1	2	3	4	1	1	1	4		1			3	1	3	3			1	1	2	4	36	
	대안교육현장 ³¹⁾ (민간)	1			2	3	1			4	3		1		2	2	1	1							1	21	
보호 시설	쉼터 ³²⁾			1		2		1		2	2			2					1							11	
	청소년상담시설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25	
	인터넷중독예방센터					1	1						1					1	1							6	
성문화체험관					1				1				1	1		1			1						7		
기타	청소년 휴카페			2	2	1		1	2	1	1	1	1	2	2	1	1	3	3	2	3	1				30	
아동(지역아동센터 제외)	-	3	4	9	7	6	5	9	6	7	3	16	6	2	4	7	5	-	4	2	6	1	5	2	3	122	
아동 생활 시설	생활시설 ³³⁾		1	2	3	2	1	1	1	2	4	1	3	4	2	2			1				1	1		32	
	아동그룹홈		1		4	3	3	2	6	4		1	11		2	1	6	1		4	1	5	1	3		62	
이용 시설	지역아동복지센터			2	1	2	1	1	1		2	1	2	2			2								1	18	
	아동학대예방센터				1	1	1			1				1	1				1		1					8	
	가정위탁지원센터							1																		1	
	자립지원사업단		1																							1	
이용시설(지역아동센터제외)	-	1	2	2	2	2	22	2	-	3	1	2	2	-	1	1	2	-	-	-	1	-	1	1	-	48	

29) 특화시설 7개소 중 근로복지관은 경기도 광명에 소재해 있으며, 영등포구의 청소년 성문화센터는 뒤의 성문화체험관에 집계되어 이 둘을 제외한 배치표이다.

30) 시립 2개소이나 1개소는 남양주시에 소재해 있다.

31) 청소년 수련시설 내에 프로그램으로 들어가 있는 9개소는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그 현황은 용산구(특화시설)1, 영등포구(특화시설)1, 송파구(수련관)1, 서대문구(수련관)1, 마포구(문화의집)1, 중랑구(수련관)2, 성동구(문화의집)1, 구로구(종합사회복지관)1.

실제 영등포구의 경우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 안에 여성 복지센터가 설치되어 있다. 자치구 단위의 여성가족시설이 없는 경우 이와 같은 사례를 확산하는 방안과 함께 자치구 내에 아동·청소년시설이 여성가족시설이나 프로그램과 공간을 공유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 또한 검토될 필요가 있다.

4. 여성·가족시설 프로그램에 대한 검토

여성가족시설의 프로그램을 검토해 봄으로써 프로그램의 중복을 피하면서 여성가족의 요구를 반영한 새로운 시설들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프로그램이 가능해질 수 있을지 모색한다. 물론 여성의 요구에 충실하고, 서울시 가족의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이라면 단순히 그 프로그램이 많은 곳에서 진행된다는 점이 문제가 될 수는 없다. 다만 구체적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 없이 기존 관행에 의해 그에 대한 평가나 새로운 수요 파악 없이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어떠한 식으로든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1) 여성회관 및 각종 여성센터

서울시 차원의 여성가족시설 중 복합시설로 명확히 분류될 수 있는 곳은 현재 동작구 대방동에 위치한 여성플라자 한 곳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각 자치구에서 여성문화센터, 여성회관 등의 이름으로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는 없다. 결국 새로운 시설이 만들어지거나 기존 시설 간의 연계를 통해 시민들의 이용을 보다 용이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서울시와 자치구 차원에서 운영되는 모든 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파악이 선행될 필요가 요구된다.

32) 센터는 총 13개소로 보고되고 있으나, 강북의 청소년 밀집지역 이동센터(버스 38인승)와 강남의 이동센터(버스 45인승)는 제외한 11개소의 배치현황이다.

33) 총 40개소 중 경기 용인, 양평, 화성, 안성, 이천, 경북 김천, 충남 아산, 서산 소재 각 1개소 즉 총 8개소를 제외한 32개소의 서울 자치구별 배치 현황.

【표 II-10】 자치구 별 여성센터 등 프로그램

지역	시설 명칭	프로그램
도 심 권	종로 동부여성 문화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운영 중인 강좌는 스포츠와 문화 프로그램 총 12개 강좌. ○ 방학, 특별, 무료체험 강좌는 현재 개설 중인 강좌 없음. 1) 스포츠: 헬스, 퍼스널 트레이닝, 에어로빅 등 10개 강좌 2) 문화: 댄스, 요가, 필라테스 등 2개 강좌 ☞ 취미활동 위주의 강좌. 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위주 구성 ○ 프로그램은 종로구시설관리공단에서 확인 가능 http://www.ijongno.co.kr/ (종로구 성균관로 91)
	중구 중구여성 플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강좌 1) 일반강좌: 전문가과정/취창업과정/자격증취득/입문으로 구분 2) 정부지원과정: 내일배움카드/근로자수강지원/평생학습계좌제/학점은행제로 구분 3) 특화교육: 홈카페마스터과정 운영 중, 1일 과정 또는 단기간 교육 등 4) 추천과정: (현재 운영 중인 과정 없음) ☞ 이를 다시 내용에 따라 취미반과 자격증반으로 구분해보면, 1) 취미반: 요리, 커피, 스마트폰 사용법, 어학, 댄스 등 2) 자격증반: 컴퓨터자격증, 제과제빵 자격증, 피부미용 자격증, 각종 상담사 자격증, 문화체험지도사 자격증 등이 포함. ☞ 강의실에서 강사가 진행하는 강의+실습식 프로그램 위주. ○ 홈페이지에서 개설 중인 강좌 확인 및 수강신청 가능 http://www.jgwoman.or.kr/ (중구 다산로 32길 5)
	용산 용산여성 문화회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교실(자격증 과정 위주)과 여성교양대학(영어, 중국어) 프로그램으로 운영. 1) 여성교실: 꽃꽂이, 한식요리, 미용, 피부관리, 쉼트, 제과제빵, 수지침, 네일아트 등 자격증 강좌 포함 2) 여성교양대학: 생활영어, 생활중국어 강좌 포함 ☞ 주로 여성의 창업과 연계하기 위한 자격증 취득반 위주로 개설. ○ 용산구교육종합포털에서 강좌 확인 및 수강신청 가능 http://yedu.yongsan.go.kr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은평	해당없음	별도의 여성 정보 제공 홈페이지 운영 중 http://woman.ep.go.kr/
서 북 권	서대 문 여성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센터 프로그램은 크게 7가지 종류로 구분 1) 요리: 자격증반 2개, 취미반 2개 강좌 2) 헤어: 자격증반 1개, 취미반 1개 강좌 3) 쉼트와 홈패션 프로그램: 취미반 2개 강좌 4) 네일아트 프로그램: 자격증반 1개 강좌 5) 제과제빵 프로그램: 자격증반 1개, 취미반 1개 강좌 6) 의상제작 프로그램: 취미반 2개 강좌 7) 피부관리 프로그램: 자격증반 1개 강좌 ☞ 전체 개설 강좌 12개 중 자격증반 6개, 취미반 6개. ○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프로그램 확인 및 수강신청 가능 www.sscmc.or.kr (서대문구 통일로 484)
	마포	해당없음

지역	시설 명칭	프로그램	
서남권	강서 강서여성 문화 나눔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4.1월 “강서구평생학습관”으로 변경. ○ 평생학습관 프로그램은 크게 1) 여성교양대학 2) 강서리더스아카데미 3) 학부모아카데미 4) 새로미대학으로 분류됨. ○ 여성교양대학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능: 메이크업/피부관리, 네일아트, 제과제빵, 비누공예, 파티플래너 등 2) 요리: 힐링밥상, 손님초대요리, 샌드위치 창업 등 3) 자격증: 제빵, 한식, 커피, 일식 조리사 자격증 등 4) 취미: 댄스, 노래, 기타 등 5) 건강: 요가, 수지침, 피트니스 등 - 요리, 기능, 취미, 자격증 등 총 33개 과목 41개 반 운영 중 ○ 별도의 여성 정보 제공 홈페이지 운영 중 http://www.gangseo.seoul.kr/site/woman/ (강서구 공항대로 615) 	
	양천	해당없음 별도의 여성 정보 제공 홈페이지 운영 중 http://female.yangcheon.go.kr/	
	구로	해당없음 별도의 여성 정보 제공 홈페이지 운영 중 http://www.guro.go.kr/woman/	
	영등포 여성교실 및 여성복지 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교실>과 <여성복지센터> 프로그램을 별도 운영 중 <여성교실> ○ 장소: 영등포 문화원 ○ 여성교실 프로그램은 크게 1) 기술교실 2) 요리교실로 구분. 총 16개 강좌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술교실: 피부관리 및 자격증, 산모도우미 및 베이비시터, 커트특강(헤어) 등 8개 강좌 2) 요리교실: 한식, 중식, 북어 자격증반, 홈베이킹, 에피타이저 등 8개 강좌 <여성복지센터> ○ 장소: 영등포 청소년문화의집 ○ 여성복지센터 프로그램은 총 11개 강좌 개설 ○ 자격증반: 네일아트 자격증, 헤어 자격증, 꽃꽂이(플로리스트)반, 웃음치료 강사 양성과정 등 총 5개 반 ○ 취미반: 비누화장품 만들기, 기초 일본어회화, 리본공예 등 6개 반 ○ 영등포 여성 홈페이지에서 프로그램 확인 가능 http://www.ydp.go.kr/woman/ (신길동 107-2 영등포청소년문화의집 내) 	
	금천	해당없음 별도의 여성 정보 제공 홈페이지 운영 중 http://female.geumcheon.go.kr/	
	관악	해당없음 별도의 여성 정보 제공 홈페이지 운영 중 http://www.gwanak.go.kr/	
	동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 프로그램 1) 수영 2) 헬스 3) 다목적 4) 교육문화 5) 여성 특화 30분 순환운동 1) 수영: 성인수영, 여성전용수영, 자모수영(32개월 이상), 아쿠아로빅 등의 강좌, 가입기 여성(12세~55세)은 5% 할인 혜택 2) 헬스: 여성 대상의 특화된 강좌는 없음 3) 다목적: 요가, 필라테스, 여성방송댄스, 벨리댄스, 노래교실 등 4) 교육문화: 엄마와 함께 영유아 강좌, 어린이 강좌, 성인·취미강좌, 음악 강좌, 원어민 영어강좌로 구분. 성인·취미강좌에는 주로 자격증 취득(바리스타, 캘리그래피, 부동산경매, POP글씨 등)을 위한 강좌 개설 	
			☞ 동작구 여성플라자의 경우, 명칭에 '여성'이 포함되기는 하지만 교육

지역	시설 명칭	프로그램
		<p>프로그램 전반이 일반적인 타 자치구 스포츠센터와 크게 구별되지 않음. 교육 대상에는 성인 일반, 청소년, 영유아 모두 포함됨. 주로 건강증진 프로그램 위주로 구성됨.</p> <p>○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프로그램 확인 및 수강신청 가능 http://sports.idongjak.or.kr/</p>
<p style="writing-mode: vertical-rl; text-orientation: upright;">동 남 권</p>	<p>서초 서초구립 여성회관</p>	<p>○ 서초구 지원금으로 서울카톨릭사회복지회에서 운영</p> <p>○ 주요 사업 : 여성 취·창업지원, 여성평생교육, 여성복지, 여성사회참여지원,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등 5개 사업</p> <p>○ 여성 취·창업지원 사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여성전문인력 양성교육: 정리정돈전문가, 여성노후설계매니저, 실내정원사 등 3개 과정. 가사도우미, 육아도우미 등의 보수교육과 간담회 실시 2) 여성 취·창업보육실: 취·창업을 희망하는 교육생에게 보수교육 및 훈련, 실습 제공 3) 여성전문인력과견: 정리정돈전문가, 여성노후설계매니저, 실내정원사, 가사도우미, 육아도우미 과견 서비스 제공 4) 창업아카데미: 창업에 필요한 사업 실무 관련 교육 제공 5) 여성 취·창업상담: 취·창업을 희망하는 개인에게 상담 제공 6) 기타사업 <p>○ 여성평생교육 사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격증 대비: 한식조리기능사, 커피바리스타자격증, 실용미용교실반 등 2) 어학교실: 영어, 일어, 중국어 3) 건강교실: 에어로빅, 건강요가, 임신부요가, 댄스 등 4) 요리교실: 사찰음식, 힐링음식, 이탈리아요리 등 5) DIY교실: 꽃꽂이, 수선·리폼, 유기농아기용품만들기 등 6) 문화교실: 가곡교실, 기타교실, 사물놀이, 서양미술사 등 7) 어르신강좌 8) 초등강좌 9) 유아강좌 <p>○ 여성사회참여지원 사업은 지역 주민의 환경보호에 대한 이해 증진, 자조모임 조직 및 실천, 친환경 전문강사 양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 친환경 서초만들기를 목표로 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Eco-women 프로젝트: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환경전문가들이 강의(그린아카데미)하고, 수료생들로 구성된 환경봉사동아리(그린브리지)를 운영, 캠페인 진행, 친환경 전시회 개최, 친환경 전문강사 양성 및 과견 등 2) 나눔공동체만들기: 건강한 먹거리 공동체 형성을 위한 활동 3) 동아리 활성화 및 자원봉사 4) 봉사동아리 5) 문화동아리 <p>○ 홈페이지 http://www.women.co.kr/ 서초구 방배로40</p>
	<p>강남 해당없음</p>	<p>별도 여성 관련 홈페이지 없음</p>
	<p>송파 송파여성 문화회관</p>	<p>○ 교육사업, 지역복지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제공</p> <p>○ 교육사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직업능력개발교육

지역	시설 명칭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양성 19개 강좌: 피부미용사/헤어/커피바리스타/공인중개사 등 - 자격증 취득 24개 강좌: 컴퓨터/요리/네일아트/부동산경매 등 - 취·창업 준비 18개 강좌: 캘리그래피/POP/꽃꽂이/천연화장품 및 비누/수선 및 리폼 등 - 직업기초능력개발 44개 강좌: 컴퓨터 활용/메이크업/베이커리/요리 등 - 직장인 커리어개발 13개 강좌: 주로 어학 - 기초능력개발(어학) 36개 강좌: 영어/일본어/중국어 <p>총 154개 강좌 운영 중.</p> <p>2) 문화교양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문화 15개 강좌: 민요/무용 등 - 문화예술 39개 강좌: 악기/서예/미술 등 - 건강 41개 강좌: 댄스스포츠/요가/필라테스 등 - 유아교실 10개 강좌/아동교실13개 강좌/어린이교실 6개 강좌 - 저녁/직장인교실 25개 강좌: 악기/댄스/요가 등 <p>총 149개 강좌 운영 중.</p> <p>3) 송파가족문화학교 4) 특강 실제 운영 중인 강좌 없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복지서비스는 주로 방과 후 교실과 상담으로 구성 ○ 아이돌봄센터, 치과, 소아과 등 1차 진료시설을 갖추고 있음. ☞ 타 자치구 여성 복합시설에 비해 훨씬 다양하고 많은 강좌를 개설, 운영 중. 그러나 자격증 취득이나 취·창업 관련 강좌의 내용면에서는 타 자치구와 비교했을 때 차별성이 떨어짐. ○홈페이지 www.songpawoman.org/ 송파구 백제고분로 42길5(송파동 113-2) 	
강동	해당없음	별도 여성 관련 홈페이지 없음	
동북권	도봉 도봉여성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여성민우회가 운영/ 도봉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와 취업지원실 포함 ○ 교육프로그램 1) 요리·제빵: 한식, 중식, 바리스타, 전통음식 등 15개 과정 2) 컴퓨터: 포토샵, 인터넷, 소셜미디어 등 6개 과정 3) 지도사 과정: 키즈요가, 중등수학지도사, 스피치 지도사 등 4개 과정 4) 공예·미용: 캘리그래피, 전신경락, 두피모발관리사, 헤어컷 & 펌, 천연화장품 등 22개 과정 5) 문화예술교육: 요가, 하모니카, 영어회화, 우쿨렐레 등 18개 과정 6) 인문사회교육: 행복한 엄마 되기 프로젝트, 역사기행 등 4개 과정 7) 단기교육과정: 산후도우미, 영유아마사지자격증, 스마트폰 활용 등 13개 과정 8) 정부지원: 인터넷 쇼핑물 창업, 양식조리기능사 등 4개 과정 ☞ 문화예술교육, 인문사회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나, 실제 강좌는 기존의 취미/건강 위주 교양강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음. 특히 인문사회교육 강좌는 강좌수도 매우 적고, 내용면에서도 전문성은 높지 않다고 보임 ○홈페이지 www.dobongwoman.or.kr/ 도봉구 방학로 12길 28(방학동) 	
	강북	해당없음	별도의 여성 정보 제공 홈페이지 운영 http://women.gangbuk.go.kr/
	노원	해당없음	별도의 여성 정보 제공 홈페이지 운영 http://www.nowon.kr/women/

지역	시설 명칭	프로그램
성북	성북여성회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프로그램 1) 스포츠교실: 침요가, 제즈댄스, 유아&어린이 발레, 직장인 요가 등 2) 유아/놀이/피아노교실: 브레인오감놀이, 뮤직가튼, 레고다타, 구연동화, 스피치교실 등 3) 문화교실: 도자기 공예, Happy Life 문해교실, 초등 원어민 영어, 부동산경매 등 4) 컴퓨터교실: 실버컴퓨터 기초, 인터넷반, 문서활용반, 엑셀, 파워포인트 등 5) 요리교실: 한식자격증반, 양식, 일식, 중식 자격증반, 손님초대요리 등 6) 미술교실: 수채화 및 유화, 한지공예, 전통민화, 유아&초등 미술 등 7) 창작/어학/교양교실: 영어회화, 프리토킹, 아이클레이, 일러회화, 중국어 회화 등 ☞ 성북여성교실은 취미반 이외에 자격증반을 따로 표기하고 있지만 취미반도 자격증반과 쉽게 연계 가능. 헤어디자이너기초/피부미용/한식조리사/제과제빵/꽃꽂이반 등 일반적인 여성 대상 자격증 강좌 위주. ○ 이 밖에 장위1동주민센터에서 진행되는 여성교실도 운영 중 ○ 홈페이지 http://www.gongdan.go.kr/gongdan/sb_whall/intro/intro.jsp 성북구 성북로 4길 177 (돈암동 616-364) 성북구민회관 ○ 별도의 여성 정보 제공 홈페이지 운영 중 http://www.seongbuk.go.kr/site/wm/ ○ 프로그램 확인은 성북구청 홈페이지에서 가능 http://www.seongbuk.go.kr/
중랑	해당없음	별도 여성 관련 홈페이지 없음
동대문	여성복지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대문여성복지관은 여성 대상 교육프로그램만을 운영하는 시설. ○ 교육 프로그램 1) 노래/댄스: 댄스스포츠, 노래교실 등 3개 강좌 2) 건강/미용: 헤어자격증, 생활미용 등 3개 강좌 3) 요리: 중식조리사, 제과제빵 자격증반 등 9개 강좌 4) 예술: 유화 및 수채화, 사군자 및 묵화 등 3개 강좌 5) 노래: 사물놀이, 노래교실 등 3개 강좌 6) 교양취미: 일본어회화, 손뜨개, 한지공예, 영어회화, 패션디자인, 플로리스트 자격증 등 19개 강좌 7) 테스트: (개설강좌 없음) 총 40개 강좌 개설 운영 중. 제1, 2복지관 운영 ○ 홈페이지에서 프로그램 확인 및 수강신청 가능 http://woman.ddm.go.kr/ 제1복지관 : 동대문구 제기로 129번지 (청량리동 60) 제2복지관 : 동대문구 장한로 18길 82-9호(장안동 354-5) 동대문구민회관 3층, 4층
성동	해당없음	별도 여성 관련 홈페이지 없음
광진	해당없음	별도 여성 관련 홈페이지 없음

이상에서 자치구 단위로 설치되어 있는 여성 관련 기관의 프로그램을 검토 해 본 결과, 지자체 단위의 특색이 두드러진다고보다는 취미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성격이 주를 이루어 어느 기관이든 유사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구의 여성플라자와 도봉구의 도봉여성센터에서 다른 시설이나 기관과 달리 일부 취창업지원과 인문사회강좌 프로그램이 눈에 띈 뿐이다. 단 두 자치구는 다른 자치구와 달리 여성발전센터나 여성인력개발기관이 없다는 점에서 해당 역할을 해줄 대체적인 기관이 필요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위 표 여성회관 등의 시설에서 동작구 서울 여성 플라자의 프로그램은 스포츠 센터 위주로 극히 일부 내용만이 소개되어 있다. 서울시 여성플라자의 전체적인 공간 구조는 다음 표와 같다.

표 II-11 서울여성플라자 공간 구성

분류	공간	
사무공간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여성능력개발원, 서울시 위탁기관 사무공간	
대관시설	공연, 전시, 웨딩, 교육, 회의실(대규모)	국제회의장, 아트홀 봄, 회의실
	교육, 회의실(중규모)	시청각실
	교육, 회의실(소규모)	세미나(1,2), 아트컬리지(1~5)
연수시설	숙박공간(38개실)	
여성활동 지원공간	NGO 센터	[입주공간] 펠집터, 돌옴터 [회의.모임공간] 열린마당, 동아리마당
	소규모여성창업지원공간	워킹우먼, 박스샵
부대시설	주차장, 식당, 카페전문점, 별난놀이터(시간제 탁아), 성평등자료실, 스포츠센터	

서울여성플라자는 일반적인 여성회관이나 센터와 달리 서울시 출연기관인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 차원의 정책적 결정에 의해 만들어진 만큼 다른 자치구의 여성센터, 여성회관과의 가장 큰 차이는 여성 활동 지원공간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이다. 특히 NGO 센터의 경우, 여성 NGO들이 저렴한 임대비로 입주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 서울여성플라자가 위치한 동작구 지역 활동가들은 지역 내 여성 NGO의 지평을 플라자 설립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지역 내 여성단체 인프라가 서울여성플라자로 인해 공고해졌음을 증언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FGI 분석에서 보다 자세히 논의될 것이다.

2) 여성인력개발 기관

여성인력개발기관의 주요 프로그램인 직업교육, 취업알선, 맞춤형견, 주부 인턴십, 창업보육, 직무능력향상 등은 기관의 특성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으로 볼 수 있으며, 각 기관에서 모두 진행 중이다. 물론 모든 기관에서 일률적으로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는 것은 아니다. <표 II-12>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으나 2014년 조례 개정에 의해 광진구에 설치된 동부여성발전센터 또한 직업교육, 생활문화, 기타사업, 생활체육 등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표 II-12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의 운영 사업(2012년)³⁴⁾

구분	여건	발전센터				도심권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				동남권	
		중부	서부	남부	북부	종로	용산	강북	노원	동대문	종로	성동	은평	서대문	강서	구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³⁵⁾	송파	
직업교육	지역일꾼		○	○	○	○	○	○	○	○	○	○	○	○	○	○	○	○	○	○	○	○	○
	맞춤형		○	○	○	○	○	○	○	○	○	○	○	○	○	○	○	○	○	○	○	○	○
	장동자격증 되살리기			○		○							○		○								
	여성직업교육 운영	○	○	○	○	○	○	○	○	○	○	○	○	○	○	○	○	○	○	○	○	○	○
취업알선	집단상담		○	○	○	○	○	○	○	○	○		○	○	○	○	○	○	○	○	○	○	
	새일센터	○	○	○	○	○	○	○	○	○	○	○	○	○	○	○	○	○	○	○	○	○	
	부르릉	○	○	○	○	○	○	○	○	○	○		○	○		○		○	○	○			
맞춤과견		○	○		○														○				
주부인턴십	○	○	○	○	○	○	○	○	○	○		○	○		○	○	○	○	○	○			
창업보육	○	○		○	○		○																
직무능력향상					○	○	○	○	○	○	○	○	○	○	○	○	○	○	○	○		○	
생활문화		○	○	○	○	○	○	○	○	○	○	○	○	○	○	○	○	○	○	○	○	○	

출처 : 나영선 외(2013)

34) 제시된 사업은 2012년 현황으로, 표에 제시된 여능원은 2014년 7월 「서울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시행에 의해 여성능력개발원 및 동부여성발전센터로 조직분리되었다. 이에 2014년 10월부터 기존 서울여성능력개발원 자리에는 동부여성발전센터가 개관하였고, 서울여성능력개발원은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에 위치하였고, 개정된 시행규칙 7조에 정의된 다음의 기능을 수행 중이다. 1. 여성발전센터 및 여성인력개발센터 총괄·조정 및 지원 2. 여성발전센터 및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운영실적 평가 3. 여성발전센터 및 여성인력개발센터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4. 여성 인재양성과 여성 복지증진을 위한 교육계획 수립·시행 5. 여성 유망직종 및 특화프로그램 개발·보급 6. 강사 및 종사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7. 여성의 창업 촉진 및 여성기업 육성 지원 등 8. 기타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사업 및 업무수행 지원

35) 강남구에 소재한 여성인력개발기관은 장애부문 특화 기관이다.

여성인력개발기관의 프로그램에 대하여 선행연구(나영선 외, 2013)에서는 거의 모든 기관에서 유사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물론 일반적으로 여성들이 인력개발기관을 이용함에 있어 직주거리를 고려한다고 볼 때 서비스에 대한 여성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유사사업의 운영 자체를 비판할 수 없다는 점도 명시하고 있다. 다만 기관유형에 따라 기능의 차별화가 미흡하다는 점이 큰 문제로 지적되었으며 실제 여성인력개발기관에서 운영 중인 생활문화교육과정은 위에서 살펴본 여성회관, 여성복지회관 등의 프로그램과 뚜렷한 차별성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다.

표 II-13 여성발전센터 생활문화교육과정

구분	과정명
서부여성발전센터	
컴퓨터·스마트폰 활용 관련	초보인터넷반, 기초한글&엑셀, PC관리와 컴퓨터 활용
어학 관련	영어회화초급, 영어회화중급, 빼빼돌ABC
카페, 제과·제빵 및 떡제조 관련	커피바리스타, 초콜릿&케이크, 케이크디자이너반
요리 관련	수제샌드위치반, 보글보글찌개전골
의복 제조 및 수선 관련	현대의상 초·중·고급, 옷본제작, 의류수선, 아동의류, 홈패션DIY, 쉼트DIY
기타	POP손글씨입문, 생활도예, 비즈니스 플라워, 플로리스트(기초부터 전문가까지), 플라워숍 창업반, 웰빙그린 천연가습 미니정원 만들기, 수채화&유화, 데생과 스케치, 서금요법(고려수지침)
남부여성발전센터	
컴퓨터·스마트폰 활용 관련	컴퓨터왕초보, 한글기초, 엑셀기초, 인터넷, 파워포인트, 미니홈피·블로그·동영상, 디지털앨범만들기
어학 관련	파닉스영어
카페, 제과·제빵 및 떡제조 관련	직장인을 위한 웰빙떡, 카페떡 만들기,
요리 관련	생활요리, 맛있는 반찬 만들기, 미리 배우는 김장김치, 손쉬운 명절음식, 페백·이바지특강, 봄나들이도시락특강, 세계면(누들)요리, 전통주(가양주)&안주, 이탈리아인 파스타 특강, 여름김치 담그기, 따끈한 겨울요리 특강, 손님초대 요리특강, 건강밥상 채식음식특강
의복 제조 및 수선 관련	가족수제가방제작반, 홈패션, 실용의상, 쉼트소품, 쉽게 배우는 재봉틀 기초, 의류패턴 및 제작, 수제가죽카드지갑만들기

구분	과정명
기타	스피치 트레이닝, 한글서예, 한문서예(사군자), 전통민화, 한지공예, 전통공예·고가구·표구, 부동산 공·경매, 깔끔 수납 전문가, 우리아이 개성 있는 독서 포트폴리오 만들기, 추석맞이 천연비누 선물세트 만들기
북부여성발전센터	
컴퓨터·스마트폰 활용 관련	컴퓨터 기본 다지기, 귀에 쪽쪽 파워포인트기초, 알차게 배우는 엑셀2007, HTML과 인터넷활용, 생각보다 쉬운 포토샵
어학 관련	생생 생활영어, 생생 Listening, 생생 Speaking
카페, 제과·제빵 및 떡제조 관련	스위트디저트베이킹, 카페샌드위치&사이드메뉴, 오가닉베이킹, 브런치베이킹, 라떼아트, 커피빛는바리스타, 명품선물떡, 웰빙떡한과
요리 관련	홈메이드 샌드위치, 보약이 되는 건강밥상과 사찰음식, 폼나는 손님초대요리, 가정식 브런치요리와 영양간식, 구수한 시골밥상차리기, 세계테마요리(이태리편), 퓨전한정식, 푹푹푹푹간편요리, 버섯·뿌리채소로 만드는 반찬과 주말요리, 제철식품으로 만드는 별식요리, 별미밥과 보글보글 찌개전골, 실속매일반찬, 외식보다 맛있는 분식요리, 직장인을 위한 토요 스피드쿠킹, 엄마표 간식 만들기
의복 제조 및 수선 관련	한뎀한뎀 수제퀼트, 배지숙의류제작기초, 손뜨개DIY, 이란옥의류제작기초, 변완숙의류수선&리폼, 장경순의 홈패션
기타	fun fun 포토앨범, 한문서예, 데생, POP예쁜글씨, 누구나 쉽게 하는 헤어컷, 서울여성역사기행
중부여성발전센터	
컴퓨터·스마트폰 활용 관련	처음 만나는 컴퓨터(PC 기초), 기초 탄탄 OA 입문반(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기초), 새벽 컴퓨터 교실(동영상과 SNS 활용), 푹푹 튀는 홍보를 위한 포토샵 & 일러스트(실무활용과정), 스마트시대의 모바일 웹 만들기
어학 관련	기초 튼튼 영어회화, 말문 트는 영어회화 (중급), 영어회화 초급, 영어회화 왕초보, 중국어초급, 일본어초급, 일본어왕초보, 일본어중급, 이끼이끼 원어민 회화 중급
카페, 제과·제빵 및 떡제조 관련	쉽고 재미있는 카페 디저트, 스토리가 있는 세계의 빵 과자 만들기
요리 관련	눈과 입으로 즐기는 샌드위치 & 파스타
의복 제조 및 수선 관련	홈패션을 통한 기초 탈출, 홈패션 (초/중급)
기타	내 소중한 피부를 위한 천연화장품과 비누, 쉽게 배우는 셀프 헤어스타일링 & 가족머리, 이미지채색화(민화), 표구공예, 전통매듭과 칠보공예, 자개+옷칠공예, 전통채색화, SNPE 바른 체형 교정 운동, 행복한 임신부 요가, 직장인 임신부 요가, 성공을 부르는 리더십 & 스피치 (기초), 리더를 위한 파워스피치
동부여성발전센터	
스포츠·레크리에이션 관련	수영,
기타	한글교실, 실버컴퓨터
카페, 제과·제빵 및 떡제조 관련	카페 베이커리, 디저트플래너

구분	과정명
요리 관련	밥, 국, 찌개(생활요리), 한방약선요리, 쉽게 만드는 반찬
의복 제조 및 수선 관련	패션 패턴(옷본) 및 의류 제작, 의류 제작 (초급, 중급), 홈패션, 아동복 제작, 반려동물 의류제작
기타 및 교육 강사직	컴퓨터 기초과정, 문화해설사 및 체험학습 강사, 초등수학지도사, 특기적성 도탈공예지도사

동부여성발전센터의 프로그램은 홈페이지(<http://dongbu.seoulwomen.or.kr>)를 참조해 2014년 하반기 현황이 제시되었으며 다른 센터 프로그램은 기존 연구결과(나영선 외, 2013)를 인용하였다.

<표 II-13>은 10개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사회문화 교육 과정명을 제시한 것이다³⁶⁾.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사회문화 프로그램 역시 대부분 컴퓨터 관련 교육, 어학 관련 교육, 카페 메뉴나 제과·제빵 및 떡 제조 관련 교육, 요리 관련 교육, 의복 제조 및 수선 관련 교육 등으로 구분된다는 점은 여성발전센터와 크게 다르지 않다. 운영 프로그램의 차이는 여성발전센터 혹은 여성인력개발센터 등의 기관 유형에서 비롯되기보다는 개별 센터에 따라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며, 그 차가 그리 큰 것은 아니다.

【 표 II-14 】 여성인력개발센터 사회문화 교육 과정

구분	과정명
강북여성인력개발센터	
컴퓨터·스마트폰 활용 관련	스마트폰100%활용하기, 포토샵활용 사진찍기와 꾸미기
어학 관련	Start초급영어, Talk Talk 중급영어, 외국인영어회화, 일본어왕초보
요리 관련	상큼샐러드&샌드위치
지도사 양성 관련	북아트지도사
기타	경매입찰 및 자산관리실무, 정리와 수납의 달인, 네일아트 단기특강, 압화 생활소품만들기
노원여성인력개발센터	
컴퓨터·스마트폰 활용 관련	컴퓨터기초, 문서실무사, ITQ엑셀, ITQ한글, 컴퓨터활용능력2급, ITQ파워포인트
어학 관련	영어문법과 라이팅(초급/중급)

36) 17개 여성인력개발센터 중에서 강서, 관악, 구로, 동대문, 서대문, 서초, 송파, 장애(강남), 종로 등 9개 센터의 경우는 “2012년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실적 보고” 자료에 개설 과목명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8개 센터 중에서 동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와 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는 2013년 8월 초 ‘기관 운영 개요’ 조사를 통하여 사회문화 교육 개설 과정명이 파악되었다. 이에 총 10개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사회문화 교육 과정명을 제시하였다.

구분	과정명
카페, 제과·제빵 및 떡제조 관련	떡케이크 만들기, 커피교육, 커피특강
요리 관련	샌드위치&샐러드
의복 제조 및 수선 관련	양재의류수선
지도사 양성 관련	방과후지도사
기타	POP전문가반, POP심화, 캘리그래피
동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	
컴퓨터·스마트폰 활용 관련	컴퓨터기초와 인터넷활용, 한글문서작성&자격증, 쉽게 배우는 엑셀& 파워포인트, 쉽고 빠르게 배우는 파워포인트 2007, 포토샵 쉽게 배우기, 포토샵&일러스트 배우기, 돈버는 블로그·카페만들기
요리 관련	한식조리사실기특강, 샌드위치전문반
기타	POP에쁜글씨창업, 보이스&스피치스킬, 웃음치료사
동작여성인력개발센터	
컴퓨터·스마트폰 활용 관련	컴맹탈출
카페, 제과·제빵 및 떡제조 관련	행복한 떡 만들기
요리 관련	상심봄나물장아찌&밀반찬, 영양만점 엄마손 간식, 3종 샐러드소스 만들기, 홈메이드 샌드위치, 금요파스타&샐러드, 연말연시 손님초대요리
의복 제조 및 수선 관련	나만의 티셔츠 만들기
지도사 양성 관련	초등수학(저학년·고학년), 중등1수학지도사, 중등2수학지도사, NIE지도사(기초), 한자지도사
기타	종이공예, 생활원에
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	
컴퓨터·스마트폰 활용 관련	초보블로거, 중급블로거, 블로그와 소셜미디어, 감각적인 실무디자인 제작하기-포토샵
요리 관련	사찰음식만들기, 유럽스타일브런치만들기, 건강까지챙기는멋스러운약선 요리만들기, 호텔식중국요리, 낭만의이탈리아요리, 새해건강전통주빚기
기타	천연비누&화장품만들기, 축복언어
성동여성인력개발센터	
컴퓨터·스마트폰 활용 관련	프레지(PREZI)
카페, 제과·제빵 및 떡제조 관련	홈베이킹클래스, 홈카페-바리스타 기초, 홈카페-홈로스팅과 핸드드립
요리 관련	추석 명절 음식 만들기, 입맛 도는 밀반찬 만들기, 김장김치 만들기, 손님 초대 음식 만들기
기타	스토리텔링 프리젠테이션, 셀프헤어스타일링&메이크업, 마음치유 타로카드
영등포여성인력개발센터	
컴퓨터·스마트폰 활용 관련	컴퓨터기초와 한글, 아직 늦지 않은 컴퓨터 시작하기, 컴퓨터 start, 프레지, 엑셀, 나만의 블로그 꾸미기

구분	과정명
어학 관련	영어회화(1단계, 2단계)
카페, 제과·제빵 및 떡제조 관련	웰빙떡 만들기, 커피바리스타 베이직, 행복한 노년-실버바리스타
요리 관련	샌드위치&샐러드
지도사 양성 관련	초등수학지도사, 언어사고력지도사, 유아그림책지도사, 어린이중국어지도사, 유아영어지도사, 한자지도사, 독서활동지도사, 역사논술지도사
기타	가족머리커트, 헤어계속반, 헤어연구반, 연필인물화, 예코가드닝(미니정원), 베란다텃밭, 건강과 환경을 지키는 생태미니텃밭교실, 예쁜글씨POP초·중·고급, 정리수납컨설팅트2급
노원여성인력개발센터	
컴퓨터·스마트폰 활용 관련	컴퓨터기초, 문서실무사, ITQ엑셀, ITQ한글, 컴퓨터활용능력2급, ITQ과워포인트
어학 관련	영어문법과 라이팅(초급/중급)
카페, 제과·제빵 및 떡제조 관련	떡케이크 만들기, 커피교육, 커피특강
요리 관련	샌드위치&샐러드
의복 제조 및 수선 관련	양재의류수선
지도사 양성 관련	방과후지도사
기타	POP전문가반, POP심화, 캘리그라피
동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	
컴퓨터·스마트폰 활용 관련	컴퓨터기초와 인터넷활용, 한글문서작성&자격증, 쉽게 배우는 엑셀&과워포인트, 쉽고 빠르게 배우는 과워포인트 2007, 포토샵 쉽게 배우기, 포토샵&일러스트 배우기, 돈버는 블로그·카페만들기
요리 관련	한식조리사실기특강, 샌드위치전문반
기타	POP예쁜글씨창업, 보이스&스피치스킬, 웃음치료사
동작여성인력개발센터	
컴퓨터·스마트폰 활용 관련	컴맹탈출
카페, 제과·제빵 및 떡제조 관련	행복한 떡 만들기
요리 관련	상심봄나물장아찌&밀반찬, 영양만점 엄마손 간식, 3종 샐러드소스 만들기, 홈메이드 샌드위치, 금요파스타&샐러드, 연말연시 손님초대요리
의복 제조 및 수선 관련	나만의 티셔츠 만들기
지도사 양성 관련	초등수학(저학년·고학년), 중등1수학지도사, 중등2수학지도사, NIE지도사(기초), 한자지도사
기타	종이공예, 생활원예
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	
컴퓨터·스마트폰 활용 관련	초보블로거, 중급블로거, 블로그와 소셜미디어, 감각적인 실무디자인 제작하기-포토샵

구분	과정명
요리 관련	사찰음식만들기, 유럽스타일브런치만들기, 건강까지챙기는멋스러운약선 요리만들기, 호텔식중국요리, 낭만의이탈리아요리, 새해건강전통주빚기
기타	천연비누&화장품만들기, 축복언어
성동여성인력개발센터	
컴퓨터·스마트폰 활용 관련	프레지(PREZI)
카페, 제과·제빵 및 떡제조 관련	홈베이킹클래스, 홈카페-바리스타 기초, 홈카페-홈로스팅과 핸드드립
요리 관련	추석 명절 음식 만들기, 입맛 도는 밑반찬 만들기, 김장김치 만들기, 손님 초대 음식 만들기
기타	스토리텔링 프리젠테이션, 셀프헤어스타일링&메이크업, 마음치유 타로카드
영등포여성인력개발센터	
컴퓨터·스마트폰 활용 관련	컴퓨터기초와 한글, 아직 늦지 않은 컴퓨터 시작하기, 컴퓨터 start, 프레지, 엑셀, 나만의 블로그 꾸미기
어학 관련	영어회화(1단계, 2단계)
카페, 제과·제빵 및 떡제조 관련	웰빙떡 만들기, 커피바리스타 베이직, 행복한 노년-실버바리스타
요리 관련	샌드위치&샐러드
지도사 양성 관련	초등수학지도사, 언어사고력지도사, 유아그림책지도사, 어린이중국어지도사, 유아영어지도사, 한자지도사, 독서활동지도사, 역사논술지도사
기타	가족머리커트, 헤어계속반, 헤어연구반, 연필인물화, 에코가드닝(미니정원), 베란다텃밭, 건강과 환경을 지키는 생태미니텃밭교실, 예쁜글씨POP초·중·고급, 정리수납컨설팅트2급
용산여성인력개발센터	
컴퓨터·스마트폰 활용 관련	용산愛마실가자(용산구지역프로블로거양성), SNS 블로그마케팅, SNS로 만드는 행복한 세상(SNS기초)
카페, 제과·제빵 및 떡제조 관련	즐거움 한잔의 커피
요리 관련	손쉽게 만드는 호텔샐러드와 드레싱, 안동찜닭+오이소박이, 여름철 입맛 돋우는 장아찌와 면요리, 박정자의 밑반찬 만들어가기, 박정자의 건강밥상 요리
의복 제조 및 수선 관련	퀵트쿠션만들기
지도사 양성 관련	우주항공과학지도사2급, 자기주도학습코치
기타	초보투자자실전경매따라잡기, 수납컨설팅트2급, 손쉽게 배우는 선물포장법, 손글씨디자인캘리그래피, 사진강좌심화반, 절세전략 및 초보투자자재테크, 100세시대여성의삶을디자인하다(생애주기설계, 경제교육)
은평여성인력개발센터	
카페, 제과·제빵 및 떡제조 관련	커피바리스타2급자격증

구분	과정명
의복 제조 및 수선 관련	의류제작 및 수선
지도사 양성 관련	초등수학지도사
기타	네일아트2급자격증, 피부미용자격증, 가정(수납)관리사
중랑여성인력개발센터	
컴퓨터·스마트폰 활용 관련	캠맷탈출(기초편), 캠맷탈출(동영상UCC제작), 캠맷탈출(인터넷활용편), 블로그와 SNS로 세상과 소통하기, 스마트폰 알고 쓰자, 트위터와 블로그 쉽게 배우기, 포토샵을 활용한 사진편집
어학 관련	다문화한국어교실
카페, 제과·제빵 및 떡제조 관련	쉽게 만드는 홈베이킹, 홈베이커리, 휘리릭~뚝뚝 홈베이킹
요리 관련	엄마랑 아이랑 오감발달 아동요리, 이태리 파스타와 샐러드
의복 제조 및 수선 관련	베이비드레스제작과정, 홈패션 옷만들기
기타	나도 수납의 여왕, 손글씨POP(초급), 자녀행복진로설계, 천연비누화장품(초급)

출처 : 나영선 외(2013)

서울시에 위치하고 있는 여성발전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그 목적이 여성의 취·창업지원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생활 문화 전반을 아우르는 프로그램들 또한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이러한 프로그램의 진행이 지역민의 수요에 기반하고 있다면 무조건 해당 강좌의 개설 자체에 문제를 제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선행연구에서도 지적되었듯 이러한 생활문화 프로그램의 과도한 개설이 자칫 해당 기관의 정체성의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더욱이 대다수 프로그램이 기존 성역할을 고착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큰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생활 문화 분야라고 해도 인력개발 기관의 프로그램으로서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취업이나 창업 연계를 고려하고, 프로그램의 다각화를 통해 여성의 활동 분야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3) 가족지원기관

현재 서울시에는 25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23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5개소의 한부모가족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이중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가족 전반을 그 참

여자로 상정하고 있다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결혼이주자, 혼인귀화자 등과 그 가족, 한부모가족지원센터는 한부모 가족을 중심으로 각각의 특성에 따른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가족상담 등 가족에 특화된 공통사업의 현황은 다음 목록과 같다.

【표 II-15】 2014년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공통사업

구분	시군구 센터 공통사업	설명
가족 돌봄 나눔 * 3가지 사업 중 2가지 선택	모두가족 봉사단	• 기존의 가족봉사단의 활동 내용을 ‘돌봄’을 주제로 전환하여 운영
	모두가족 품앗이	• 전업주부와 맞벌이 주부가 함께 운영하는 품앗이, 남성이 참여하는 품앗이 등 다양한 그룹 운영
	아버지-자녀가 함께하는 토요 프로그램	• 토요일 2시간, 연간 24시간 이상
가족교육	생애주기별 (조)부모교육	• 예비/신혼기 부부,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 포함한 생애주기별 (조)부모교육
	남성대상 교육	• 아버지교육, 찾아가는 아버지 교육, 남성대상 자기 돌봄 교육 등 • 연간 20시간 이상
가족상담	가족(집단)상담	• 생애주기에 따라 발생하는 가족내 다양한 갈등과 문제의 해결을 위한 상담사업 •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개별적 접근과 가족구성원이 함께 참여하는 가족단위의 통합적 접근을 포함 • 가족단위의 면접 상담 유도 • 연간 상담 실적이 100명 이하인 센터는 가족집단 상담을 연간 2건 이상 반드시 포함
가족문화	가족사랑의 날	• 월1회, 수요일, 연간 20시간 이상 (※ 참가자 상황 등 고려 요일변경 가능)
다양한 가족 통합서비스	다양한 가족사업	•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등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자녀 양육지원, 관계향상교육, 놀토프로그램 등의 서비스실시 • 2인 이상 가족 대상, 10시간 이상 프로그램 실시
지역사회 연계	지역사회 협의체 참여, 협약 및 연계사업	• 지역사회 협의체, 유관 기관 네트워크 활용 및 참여 • 유관기관 사업 협약 5건 이상

*출처 : 2014년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안내(여성가족부, 2014)

가족돌봄, 가족교육, 상담, 문화, 다양한 가족 통합서비스, 지역사회 연계라고 하는 공통 사업이라고 해도 센터별로 구체적인 프로그램에는 차이가 있다. 특히 가족

교육과 관련된 일부 센터의 프로그램은 일반적인 교양 문화 프로그램과 큰 차별성을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는 아래 표와 같다.

【 표 II-16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개별 프로그램 사례

구분	사업명	내용
가족교육	***스쿨(정규) 60세 이상	한국무용, 건강요가, 포크댄스, 차밍댄스, 노래교실, 댄스스포츠
	***스쿨(동아리)	영어회화(생활기초영어회화, 역할극, 다과모임) 합창(가곡, 동요, 건전가요, 자원봉사 공연활동) 컴퓨터(포토샵 기초, 이메일, 한글, 스위시, 정보검색 등)
	** 아카데미	아동: 미술나라, 종이접기, 칼라믹스, 피아노, 리틀발레리나 외 성인 : 영어, 일본어, 오카리나, 피아노, 도예 외
	중년기 교육 (딸과 자매같은 동안 엄마 되기)	문제성 피부미용 색소 침착 및 노화피부관리 피부타입진단 및 실습
가족돌봄	모두가족 품앗이	중국어회화학습 및 미술활동
	에코토아교실	재활용품이용한 장난감 만들기
가족친화문화	행복한**마을만들기	요가 및 스트레칭, 텃밭가꾸기

자료 :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 지역 센터 프로그램 현황 재구성

위 표와 같은 사업의 경우 프로그램 이름만으로는 일반적인 문화센터 프로그램과 큰 차이가 없는 사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 가족문화 관련 프로그램 또한 대다수 연극 영화 등 공연 관람이나 가족이 참여하는 요리교실에 한정된 단조로운 구성을 보이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프로그램은 결혼이민자·혼인귀화자와 그 가족이라고 하는 특화된 참여자들이 주가 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대다수 프로그램은 언어 교육 및 가족 상담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특히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합이 논의되는 시점임을 감안할 때 장기적으로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프로그램에 통합되어 갈 것이 예상되기도 한다.

【 표 II-17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사업

<p>○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프로그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사업 : 한국어교육, 다문화 가족통합교육, 취업연계 지원, 개인가족 상담 등 ● 방문교육 :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 서비스 ● 언어발달 교실 :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 ● 언어영재 교실 :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결혼이민자 주요 출신국 언어 수업 ● 통번역 서비스 : 결혼이민자의 가족사회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 지원 <p>※ 세부적인 프로그램은 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p> <p>○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자치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하여 회원 가입한 후 이용할 수 있음 ● 회원가입 시에는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며, 주민등록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증 등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함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월요일~금요일, 09:00~18:00 운영

*출처 : 강희영, 2013b

4) 폭력피해여성 지원기관

폭력피해여성 지원시설의 경우 피해자의 치유와 가해자 교정 관련 사업이 주가 되는 특성으로 인해 지역사회의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물론 일부 시설의 경우 예방 사업을 통해 지역과의 만남을 시도하고 있지만 모든 시설의 일반적인 경향이라고 보기에 한계가 있다. 또한 가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보호와 치유가 주 목적인 폭력피해여성 생활시설 등의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지역맞춤형이라기 보다는 폭력피해여성에 대한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지역과 만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폭력피해여성 지원 관련 시설 프로그램은 상담소 등 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예방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다음은 서울시 소재 가정폭력 상담소의 예방 관련 프로그램 운영 현황이다.

【 표 II-18 】 가정폭력 예방 관련 상담소 특화 프로그램 현황

프로그램명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폭력관련 토론회 ■ 가정폭력 없는 시범학교 운영 ■ 가정폭력 예방 외부 강의 ■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 ■ 교육 캠페인 	<p>아동 지역주민</p>

프로그램명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는 내가 보호한다 ■ 성인지적 폭력예방교육 매뉴얼 개발 및 전국 교육 ■ 우리 동네는 내가 지킨다 ■ 자존감 향상 집단 상담 ■ 지역 마을 축제 안에서 가정폭력 예방 캠페인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폭력 상담원 교육 ■ 가정폭력 예방 및 대처법 ■ 가족관계 증진 상담 ■ 예방교육 지침서 개발 및 교육 ■ 찾아가는 폭력 예방 ■ 학교, 직장 방문 폭력 예방교육 	지역주민 초·중·고등학교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길거리 캠페인 ■ 폭력예방관련 교재 개발 	부부 지역주민

출처 : 강희영, 2013a

이상과 같은 특징을 볼 때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프로그램 중 특히 가정폭력 상담소 프로그램은 일정 부분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프로그램과 중복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성폭력 관련 상담소의 프로그램 또한 지역주민들과 밀착하여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은 예방 프로그램에 한정되어 있는 특징이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상담소 프로그램들의 상당수가 피해자의 치유와 가해자 교정에 보다 주된 목적을 두고 있고, 특히 신분 노출을 꺼려하는 폭력 피해여성의 특성은 이들이 기존 취·창업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장애 요인이 될 뿐 아니라(정재훈, 2013) 거주지 가까운 곳의 상담소보다는 거주지로부터 떨어진 곳에 위치한 상담소를 이용한다고 하는 피해자의 이용특성에서 비롯된 한계와 연결된다.

【 표 II-19 】 성폭력 예방 관련 상담소 프로그램 현황

프로그램명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전한 졸업식 문화특강(성폭력 및 학교폭력 예방교육) ▪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 폭력추방 캠페인 및 폭력예방 캠페인 ▪ 행복한 마을 만들기 토론회 ▪ 상담원 교육 ▪ 예방교육 지침서 개발 및 교육 ▪ 소모임 활동 	<p>아동 지역주민 초중고등학교학생</p>

자료 : 2013 서울시여성가족정책실 내부자료

이처럼 폭력피해여성 지원시설은 폭력 예방과 관련한 교육, 캠페인 이외에 지역과 밀착한 사업을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예방 프로그램조차도 일부 상담소를 제외하고는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에서 일상적으로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을 누가 진행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여성가족부나 서울시의 운영비 지원 시설이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다 광범위하게 지역과 만나는 예방 프로그램은 기존의 상담소와는 다른 형태의 단체나 기관에서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더불어 대부분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예산이 지원되는 프로그램이 피해자의 치유나 가해자 교정 사업에 치우쳐 있으며, 특히 피해자가 신분 노출을 꺼린다는 점을 존중한다면 상담소 시설을 이용한 지역민 프로그램의 진행은 여러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각 폭력피해여성 지원기관의 지역민 프로그램의 경우, 진행 공간의 제공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5. 요약 및 시사점

서울시는 인구 1000만 이상의 거대도시로 전반적으로 여성 인구의 비율이 높다. 서남권과 동북권에 각각 전체 인구의 30%이상이 거주하고 있으며, 다양한 여성가족의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 두 권역은 모두 2030 서울 도시계획에서 문화시설의 불모지로 정의된 바 있다. 그러나 여성가족시설을 놓고 볼 때 전반적으로 서남권과

동북권이 특히 열악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서남권의 경우 특히 다른 지역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은 서울시 차원의 여성가족 복합시설인 여성플라자가 설치되어 있어 다른 권역에 비해 오히려 상황이 양호하다는 평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오히려 이러한 측면이 서남권을 하나의 사례지역으로 볼 당위성을 부여한다.

서울시의 권역별 특성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경제와 관련된 클러스터화 부분을 논여겨 본다면 서울시의 서남권이 여성가족시설의 집적을 통한 클러스터화를 통해 여성주의 문화 경관의 가능성을 모색할 수도 있다. 동북권역 또한 기존의 복합시설인 여성플라자와의 접근성이 서울의 어느 권역보다도 열악하다는 면에서 이용 가능한 공간이 생긴다면 새로운 복합시설의 우선 설치 지역으로 선정할 수 있을 것이다. 도심권, 서북권, 동남권에 비해 거주 인구 수가 많다는 점 또한 해당 지역에서 여성가족시설이 다양한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시설로 거듭 날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을 고려하는 데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여성관련 시설의 배치 현황 중 개방적 프로그램을 통해 일반의 접근이 용이한 여성회관, 센터 등은 서남권이 양천, 구로, 관악 4개구에, 동북권은 강북, 노원, 중랑, 성동, 광진 5개구에 설치되어 있지 않다. 서북권의 은평, 마포, 동남권의 강남, 강동구도 구 단위 여성 센터 등이 없는 자치구이다.

여성발전센터, 인력개발기관은 비교적 다수의 구에 설치되어 있으나 중구, 강동, 도봉, 성북구 4개구에는 해당 시설이 없다. 물론 도봉구의 경우 한 여성단체에서 위탁운영 중인 여성 센터에서 일부 여성인력개발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어 내용적으로는 해당 기관이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 이는 중구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중구여성플라자를 통해 인력개발기관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특정 상황에 처한 여성을 이용자로 설정하고 있는 여성복지시설의 경우 거주지 중심으로 이용하지 않는 특성을 보이고 있으므로 자치구별 배치가 현황 파악의 핵심이 아니라는 점은 선행연구를 통해서도 지적되고 있다. 물론 폭력피해여성 등의 지원기관이 예방중심의 지역 사업을 중심으로 운영된다고 할 때에는 다른 접근이 가능하겠으나, 현재 보호시설은 물론 대다수의 상담소가 예방 사업보다는 피해자 지원에 주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범주에서 논의를 심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즉 여성가족시설의 블록구축이라는 틀을 내용적 연계, 공간의 공유, 새로운

복합시설 설치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용자의 신분 노출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여성복지시설이 여성가족시설 블록화 논의와 함께 하기는 어렵다.

상위법에 근거해 설치된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서초구 제외) 등의 가족지원시설이나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대부분의 자치구에 1개소 이상 설치되어 있다. 또한 청소년시설이 1 자치구 1 수련원, 4 문화의집이라는 큰 틀에서의 시설 설립 원칙(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내부자료, 2014)을 가지고 있다. 이에 반해 여성가족 시설의 개소 수나 배치 등은 큰 틀에서의 원칙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아, 여성가족 정책 차원에서 정책 실현의 장으로서 시설 설립 및 배치의 원칙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설치되어 운영 중인, 자치구의 여성센터나 여성인력개발 기관의 프로그램은 지역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프로그램의 운영, 기관의 특성과 무관한 취미 활동 지원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점은 가족지원시설 프로그램에서도 일부 나타나는 현상이다.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개별 센터의 프로그램은 여성센터나 여성인력개발기관의 생활문화 프로그램과의 연장선상에서 파악된다.

폭력피해여성 지원기관으로서 상담소 등의 프로그램은 대다수 피해자 치유와 가해자 교정에 초점을 두고 있어 지역 주민 대상의 예방 프로그램 운영에서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 또한 파악되었다.

이 연구의 목적이 지역의 요구에 충실한 여성가족시설의 배치(안)을 마련해 보고자 한다는 점을 상기할 때 현재 각 여성가족시설이 지역별로 안배되어 있다거나 지역 특성에 맞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지역의 요구를 충실히 반영한 서울시의 여성가족이 함께 하는 공간이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현재 시설 수가 부족한 지역, 그리고 지역민이 원하는 여성가족시설의 내용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여성가족시설 범주 안에서 시행할 수 없었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기존의 시설이 중앙정부 정책과의 연장선상에서 지역의 특성이 간과된 채 운영되어 왔다면 서울시 여성가족 정책의 관점에서 요구되는 시설은 그와는 다를 수 있다는 면에서 새로운 시설에 대한 구상이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내용적인 면에서는 서울시의 여성고용률이 지속적으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기존 여성인력개발기관과는 차별화되는 일자리 관련 프로그램과

함께 각 권역별 다양한 가족의 모습을 고려한 프로그램이 서울시 차원에서 구상되고 시행될 시점임을 간과할 수 없다. 취미 관련 프로그램이 각 기관마다 개설되어 있지만 여성이 수강자의 위치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서는 여성의 자율적 취미 활동이 창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계하는 공간, 취미가 일어 될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들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III

여성·가족시설의 변화 가능성

1. 여성·가족시설의 개념 및 역할 재정립
2. 관련 기관과의 연계 사례
3. 여성·가족의 다양성을 고려한 시설 사례
4. 요약 및 시사점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III

여성·가족시설의 변화 가능성

이 장에서는 여성가족 인구가 다양화되고 시민 수요 또한 다변화됨에 따라 서울시 차원에서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의 여성, 가족의 요구에 응답할 가능성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지역 여성과 가족의 거점, 다양한 여성과 가족 가치의 실현의 장이자 지역 주민 소통의 장”으로서 여성가족 공간은 여성과 가족만을 위한 곳이 아닌 여성 가족을 중심으로 지역 차원에서 공공의 가치가 실현될 가능성을 탐색하는 장소이다. 따라서 복합용도 공간의 커뮤니티 활성화와 관련 깊은 요소인 접근성, 개방성, 교류성, 연계성, 위계성(이슬기, 2008)을 통해 지역사회 공동체의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점이 간과될 수 없다.

이에 관련기관과 여성가족시설의 복합화 사례를 검토하고, 신규 시설 설치에 참고가 될 만한 해외사례를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여성가족시설이 관련기관과 복합화 될 때 고려할 점과 기존 시설과는 다른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새로운 여성가족시설의 가능성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1. 여성·가족시설의 개념 및 역할 재정립

“여성발전기본법”³⁷⁾ 제3조 3항에 따르면 “여성 관련 시설이란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37) 「여성발전기본법 전부 개정 법률안(여성가족위원회 대안, 2014.4.28.)」이 2014년 5월 2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여성발전기본법」은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되어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 블로그 : <http://blog.daum.net/moge-family/7519>)

그리고 제22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연령 등에 따른 여성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소득 모자 가족, 미혼모, 장애인 여성, 가출 여성,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한다. 이어 동법 제33조 여성관련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해서는 여성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 여성을 교육하기 위한 시설,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건강가정기본법³⁸⁾, 다문화가족지원법 등에서도 관련 시설의 설치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건강가정기본법 상의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제외한 시설들은 대부분 그 이용층에 분명한 제한을 두고 있으며, 법적으로 그 이용 가능자가 정의되지 않은 건강가정지원센터라 할지라도 다른 기관들과의 시너지 효과가 두드러지지는 않았다. 현실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통합 논의가 있는 만큼 가족 관련 이슈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보다 통합적인 기능을 기대할 수는 있을 것이다. 문제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같은 기존 시설이 지역사회에 개방성을 갖고 서울시 차원의 정책 실행 장으로서 기능하는 데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결국 서울시에 소재하는 대부분의 여성가족시설이 주제별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되어 온 배경에는 이처럼 시설 탄생의 법적 근거가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여성관련시설이라는 광범위한 정의를 내린 여성발전기본법 상의 남녀평등의 촉진이라는 가치가 실현되는 공간을 찾아보기란 쉽지 않다. 여성시설은 취·창업, 자기계발 등 취미활동 교육 프로그램, 가족지원 프로그램이라는 범주의 프로그램이 각 시설별로 파편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참여와 평등의 가치를 살려내는 여성가족시설에 대한 정의는 서울시 ‘성평등조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조례는 제28조를 통해 성평등 관련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시장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철폐, 여성의 권익 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38)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15] [[시행일 2012.3.16]]

이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별도의 조례로서 서울특별시 여성관련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그러나 여성플라자, 여성능력개발원, 여성발전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에 한정되어 있어 다양한 여성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시설을 모두 포괄하지 못하고 있으며, 여성인력양성과 직업능력개발에 한정된 분야의 시설만이 한정적으로 정의되어 있을 뿐이다.

서울시는 2011년 민선 5.5기 이래 ‘여성의 삶을 바꾸는 서울’을 모토로 여성이 주체가 되어 일자리 및 고용환경, 건강, 안전, 주거 등 삶을 바꾸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실질적 성평등을 실현할 것을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6개 분야에 제시된 10대 핵심 분야는 다음과 같다.

【표 III-1】 여성의 삶을 바꾸는 서울 6개 분야 10대 핵심 분야

6개 분야	10대 핵심 분야
실질적 성 평등의 실현	성평등 추진 시스템 구축 및 강화 도시공간 및 시설에 성평등 관점 도입
여성의 일하는 환경개선 및 일자리 확대	일하는 여성 근로 환경 개선 좋은 여성일자리 지원
여성의 평생 건강 돌보기	생애주기별 여성 건강 관리
여성폭력 제로(Zero)	여성이 안전한 환경 조성
출산부터 육아까지 물심양면 지원	일가족 양립 환경 조성 보육의 공공성 확보
더불어 함께 살기	장애 여성 및 결혼이주여성 등 지원 싱글여성지원

출처 : 서울시 홈페이지(<http://woman.seoul.go.kr/archives/5790>)

이에 기존의 한정적 범주의 여성가족시설과는 달리 서울시 차원의 여성가족 정책을 실행하고, 다양한 여성가족 간의 이해를 높이는 동시에 지역공동체 의식을 고양시킬 수 있는 공간으로서 여성가족시설의 새로운 ‘상’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즉 참여와 평등의 정책이 서울시 차원에서 실행되는 곳으로 여성가족 공간이 마련될 때 지역의 요구에 보다 다가갈 여지가 생긴다.

따라서 여성가족 복합 공간이라는 공적 공간에 사적 개인들이 모여 ‘공공’을 형성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시설의 조합이나 공간 공유를 넘어서는 기획이 요구된다. 여성과 가족을 주제로 지역의 문화를 활성화시키고 참여자의 원활한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피상적으로 함께 사용하는 곳이 아닌 그 안에서 공유의식을 가진 그룹이 형성되고, 이용자 간 커뮤니티가 만들어져 친밀한 교류의 장소로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 모두에게 관련되고, 이익이 될 것을 목표로 공간을 만들고, 공간에서 발생하는 행위를 누리고, 형성되는 관계를 지속시키는 곳으로 여성가족복합공간의 역할과 기능을 부여하는 것은 정책적 차원에서 여성 가족의 가치를 공유하는 시민의 수준에서 함께 논의해 갈 주제인 것이다.

2. 관련기관과의 연계 사례

보다 접근성이 높은 공간을 통해 더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된다면 주민들의 만족도는 높아지겠지만 현실적으로 주민이 원하는 서비스가 모두 같은 수준에서 제공될 수는 없다. 특히 공간을 필요로 하는 서비스의 경우 부지에서 건축 등 기본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요건이 갖추어지기란 쉽지 않다. 때문에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복지시설이나 문화 등의 분야에서 관련 서비스 기관을 통한 복합화 논의가 지속되어 온 것이다.

1) 거점 성격의 시설 복합화 : 복사골 문화센터와 금산 다락원³⁹⁾

복사골문화센터는 부천시민들에게 다양한 공연예술문화, 여성문화, 청소년문화, 어린이문화가 상생하는 복합 문화 공간을 제공하여 문화 간 시너지 효과를 통해 시민들이 문화 소비자로 그치지 않고 문화 생산자로서 부천 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토록 하기 위하여 「복사골여성·청소년문화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1998년 12월 28일 기존의 시민종합사회복지관 자리에 건립되었다. 지하2층, 지상6층의 건물로 체육시설 공간, 어린이공간, 청소년 공간, 부천6대 문화사업 공간, 도서관,

39) 복사골 문화센터에 대해서는 부천문화재단 홈페이지(www.bcf.or.kr)를 참조하였고, 금산다락원의 사례는 금산다락원 홈페이지(<http://www.daragwon.net/>)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여성공간, 숙박시설공간으로 분류된다. 이는 기존의 공간들의 비효율성을 보완하기 위해 2006년~2007년까지 공간을 재구성한 결과로 현재 층별로 특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여성공간은 센터의 5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천시 여성회관,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강의실, 세미나실로 구성되어 있다. 복사골문화센터는 사목국과 위탁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성 공간은 모두 위탁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법 및 조례에 의해 설립되어 운영 중인 여성회관,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단순히 같은 공간에 위치한다는 이유로 유기적 연계라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다. 또한 부천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전체 공간 복사골문화센터가 여성공간과의 유기성을 갖는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한편 농촌 지역에 위치한 금산다락원은 연령상으로 노인부터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분야별로는 문화예술인, 체육인, 여성, 농업인, 장애인 등을 두루 아우르는 곳으로 금산의 문화복지건강센터를 표방하고 있다. 이곳은 사람들이 함께 즐거움을 만들고 즐거움을 나누며 이를 전파하는 곳이며 다양한 풍류도 함께 하는 공간으로 “락(樂)”은 “문화를 주제로 하는 금산다락원”을 표현하고 있으며 많은 즐거움·기쁨 그리고 풍류가 함께 하는 동산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문예회관, 도서관, 스포츠센터, 청산회관, 문화원, 건강의집, 관리동(만남의집), 청소년의집, 장애인의집, 노인의집, 여성의집, 농민의집 등이 한 단지 내에 위치하는 시설이다.

이 중 여성의집은 놀이방, 생활교육실, 식품가공실, 취미교실로 이루어져 있다. 놀이방은 강좌 참여자의 자녀를 위해 개방되는 시설로 전문 놀이교사가 배치되어 있다. 생활교육실은 대규모 강의가 가능한 넓은 공간으로 교육강좌는 물론 공예 강좌도 가능한 것으로 소개되고 있다. 외국인 여성을 위한 한국 문화 강좌, 비즈공예, 칼라믹스, 피크말리온 수학놀이, 꾸러기 미술놀이, 독서 글쓰기 지도사 등의 강좌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식품 가공실은 제과 제빵 교실 및 천연비누 교실이 진행되는 공간으로 소개되고 있다. 취미교실은 직접 만들어 활용할 수 있는 소규모 공예 강의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홈패션 강의, 손뜨개 등의 강좌가 진행되고 있다.

실제 여성의 집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은 홈패션, 소가구 만들기, POP 자격증반, 인물캐리커처반 등 여성교육 프로그램을 표방하는 내용과, 성인장애인 제과/제빵 교실, 초등생 미술교실 및 한자 자격 교실, 유아수학·미술 교실 및 악기·놀이 교실 등이 진행되고 있다.

2) 소규모 지역단위 시설 복합화 : 영등포구와 동대문구

영등포구는 2012년 9월 여성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여성복지센터’를 지하 1, 지상3층 규모(연면적 1498㎡)의 청소년 문화의 집 1층 일부를 리모델링해 188㎡ 규모로 조성하였다. 구청장 공약 사업이 실현된 경우로 여성복지센터라고 하나 여성들의 능력을 개발하고 경제 자립을 돕는다는 취지의 취업지원 프로그램도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2014년 8월 중 진행된 프로그램은 손뜨개, 네일아트 자격증반, 생활미술 자격증반, 비누·화장품 만들기, 기초일본어회화, 생활민화, 꽃꽂이반, 도시농업과 힐링가든, 웃음치료강사양성과정으로 복지센터라는 이름이 무색하리만치 일반적인 생활문화, 취미 프로그램과 다를 바가 없다.⁴⁰⁾

동대문구의 제2여성복지관은 구민회관과 여성 관련 시설이 복합화된 경우이다. 구민회관 3, 4층을 여성복지관 프로그램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여성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조례 제531호)에 근거해 여성들의 건전한 여가생활과 취업 또는 창업에 대한 기혼여성의 막연한 기대를 구체화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수강생들에게 자신감 및 성취감을 부여할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기술과목과 교양과목으로 나뉜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나, 실제 취업 현황이나 수료생의 취업 연계를 위한 활동을 홈페이지 상으로는 확인할 수 없다. 조리사 자격증반, 제과제빵, 일본어회화, 손뜨개, 데생 및 연필인물화, 홈패션, 한지공예 등의 프로그램이 강좌로 제공되고 있다.

거점단위 복합시설 혹은 지역 단위 커뮤니티 공간에 여성 관련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 여성가족시설이 아닌 기관에서 지역 단위의 여성·가족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점이 특별히 여성가족시설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과의 차별성이 보이

40)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frances252&logNo=220089686255>

지는 않는다. 운영 프로그램의 예에서 볼 때 인력개발기관의 생활문화 프로그램이나 여성회관의 프로그램과 같은 종류의 프로그램과 유사하다.

3. 여성가족의 다양성을 고려한 시설 사례⁴¹⁾

여성가족 인구가 다양화되고 시민 수요 또한 다변화됨에 따라 기존의 여성가족 시설들과는 다른 역할을 하는 시설이 어떻게 가능해질 것인지를 문제는 국외사례를 검토해봄으로써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즉 기존 서울시에 배치된 여성가족시설들과 차별화되는 내용으로 어떠한 시설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왔으나, 구체적으로 서울시에서 실행된 적이 없는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2030 서울 플랜의 이슈별 전략 적용 방안으로 권역별로 적용된 고령인구의 사회 참여 기회확대, 자발적 공동체 기반 마련, 문화적 약자의 권리보장 및 예방적 건강이라는 전략에 비추어 논의될 해외 사례는 향후 세워질 여성가족시설의 규모에 따라서 일부 공간 배치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1) 돌봄과 교육 : 독일의 마더센터

마더 센터는 독일에서 1980년 처음 시작되었다. 풀뿌리 여성 운동의 결과물로 가족부에서 3개 모델을 지원하고 사례가 확산되어 유럽, 아프리카, 북미를 포함하여 700여개의 마더센터가 있다.

다양한 계층과 인종의 여성들이 만나고, 일상생활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힘을 합치고 지역사회 서비스를 만들고, 가족, 이웃, 커뮤니티 관계를 재건하는데 초점을 두어 세대간, 이주민과 국적이탈자, 서로 다른 인종을 가진 가족들 간에 서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식의 일반적인 사회 서비스와 달리 누구에게나 있을 한 가지 장점을 마더센터에서 실현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기여한다

41) 마더센터에 대한 정리는 Mother Centers International Network에서 나온 자료 등을 토대로 작성한 한국여성단체연합(2007)의 유럽지역 '돌봄과 교육공동체' 탐방 보고서를 참고로 작성하였고, 이하 해외 사례는 각 기관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였다. 기관별 홈페이지는 참고문헌에 제시하였음을 밝힌다.

는 ‘자기 주도(self-managed)’의 가치에 기반하고 있다. 핵심은 매일 센터에 들러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활동은 어떤 식으로든 보상이 주어진다. 지역사회 내에서 자조 공간을 통해 ①저소득가구 돕기, 일상 지원 ②쇼핑, 이발, 점심식사, 장난감 도서관, 재봉교실, 수선 서비스 ③ 언어교습, 컴퓨터, 직업훈련과 같은 노동시장 재진입을 위한 훈련제공 ④통합적 보건서비스가 이루어지는 데 이러한 공간에 대한 비용은 당초 연방정부의 자금을 동원했고, 일이 진행되는 동안 지역사회, 지자체 등에서 지원을 받았다.

구체적인 사례를 1986년에 창립된 독일 슈트트가르트(Stuttgart) 센터를 통해 보면 센터의 주요 시설로는 부모어린이센터, 영유아보육, 아동긴급보호소, 재활용가게, 카페, 식당, 작은 도서관, 스포츠실, 댄스실, 공작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남녀 약 80명이 일을 하는 부모 어린이센터, 영유아보육 외에도 파트타임 일자리가 25개 정도이고, 커피숍, 식당, 부업, 청소, 아이돌 돌보기, 학생돌보기, 재활용가게, 공작실 등이 있다. 무보수로 일하는 사람도 있고 20시간 일하면서 보수를 받는 사람도 있다.

정해진 일자리는 얼마 되지 않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일을 하고 그에 대해서도 보수를 지급한다. 보수는 수당으로 지급하기도 하고, 음식을 무료로 주거나 아이를 공짜로 봐주거나 다른 교육을 받게 해 주는 등의 방식을 취하기도 한다. 같이 일하는 사람 모두에게는 결정권이 주어지며, 분야별 팀이 있어 각 팀이 간섭받지 않고 알아서 정하고 일을 해나간다. 연 1회 모여서 예산을 세우고, 모금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운영 팀이 주 1회 회의를 한다.

새로운 형태의 주민서비스와 지역사회 내 돌봄에 대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냈다는 점이 마더센터의 성과로 꼽히는데 특히 양질의 보육서비스, 노인 돌봄 서비스 등 훈련, 재고용 프로그램으로 새로운 사업 창출과 수익 창출기회를 만들어 내면서 사회복지, 사회서비스 분야에 획기적 전환을 가져왔다. 지역주민들이 전문 프로그램의 고객에서 기획과 의사결정의 참여자로 임파워먼트 되었다. 일상생활의 경험이 전문성으로 인식되고 가치 있는 일로 인식되는 동시에 여성들은 배움의 중요성에 대해 자각하고 이런 경험을 통해 스스로의 기술과 자원을 축적하였고, 또한 잠재되었던 리더십을 개발하고 있다. 풀뿌리 여성들이 정치참여를 하도록 하고, 지역사회

여성들이 그들을 지지, 지원하는 시스템을 유지하도록 만들어서 지방정부의 여성참여를 성공적으로 해오고 있다.

공교육이 실패하고, 이웃공동체가 안전하지 않고, 이주민들이 환영받지 못하고 그 사회에 통합되지 못할 때 해결책을 찾기 위해 지역사회를 움직인 것이 바로 이들 여성들이었다. 지역사회의 여성들은 우리 환경이 어떠해야 하는지, 사용자들의 욕구가 무엇인지를 알아내고 가족·아동친화적 사회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육아 이슈, 지역사회 관심 사안들을 국가적 캠페인과 정책으로 연결하여 강령들을 만들어냈다. 아동과 노인 돌봄 서비스를 진정한 이웃관계와 네트워크의 맥락 속에 놓기 때문이다. 위기가정을 위해 지역사회망을 만들어서 그들의 사회적배제와 소외를 줄이고 있다. 스스로 식당에 갈 돈이 없거나 문화를 누릴 수 없는 가족들은 마더센터 내의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패배감, 부끄러움, 위축감 등과 같은 부정적 감정들은 센터의 분위기 속에서 중화된다. 마더센터는 우정과 실질적 지원 문화를 갖고 있고, 자신감을 찾도록 도와준다.

마더센터 모델의 확산을 이끈 주된 전략으로는 문화적 차이에 상관없는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여 풀뿌리 지역주민과 정부, 전문가들의 강력한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스토리텔링 형식의 자료와 정보를 만들고 배포하는 한편 면대면 교환 프로그램, 서로에게 배우는 행사(peer learning event), 지역·국가 간 네트워킹을 꼽을 수 있다. 지역사회와 지방 정부의 여성리더를 만들어 여성을 세력화 하고, 여성의 참여를 확대했다. 젠더, 가족 이슈에 대한 운동을 펼쳐, 국회와 도시계획에 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2) 여성과 아동, 환경의 만남 : 일본 크레용 하우스

서구사회를 취재하던 설립자 오치아이는 어머니 세대가 다니던 서점을 아이 세대에까지 이용하고 있는 현실을 목격하고 단지 책을 사고 파는 공간이 아닌 세대를 넘나들며 문화가 전수되는 공간으로서 크레용 하우스를 기획하였다.

1976년 설립 당시까지 일본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어린이용 책 전문점으로서 인지도를 쌓는 데 어려움을 겪었는데, 같은 어려움은 그 후 여성용 책 전문점, 유기농

야채 가게를 시작했을 때에도 이어진다. 이는 신개념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다면 언제 어디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다.

크레용 하우스는 가능한 한 보기 쉽게 책을 진열하고, 다양한 종류를 갖추어두고, 책을 보기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책을 고르는 일을 도와주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전문적인 용어를 동원한 책에 대한 설명이나 베스트셀러를 소개하는 것을 지양하고, 크레용 하우스를 방문하는 이들이 자신의 감수성과 논리에 기반해 자신만의 책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주력하고 있다.

신간이 나오면 직원들이 모여 회의를 하고 한권 한 권 생각해 가며 고르는 형식을 취하는데, 신간뿐 아니라 2-50년 전에 출간된 책으로 현재 입수하기 어려운 책이라고 할지라도 가능하면 갖추어 두려고 노력하고 있다. 책을 선별하는 두 가지 기준은 폭력적이거나 차별을 조장하는 책은 진열될 수 없다는 점이다. 식품, 도서 등을 취급하고 있는 상품은 모두 어디에서 누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 수 있는 제품으로 일단 사들인 제품에 대해서는 절대로 생산자에게 반품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어린이 책·장남감 전문점 운영, 유기농 여성용품·레스토랑·채소가게 운영 및 온라인 매장 운영, 정기도서클럽 운영, 체험행사 및 도서관련 전시회 개최, 친환경 식자재와 생활용품을 테마로 여성과 어린이의 관점에서 문화와 생활을 바라보는 공간으로 정의할 수 있다. 어린이의 관점, 여성의 관점, 자연주의 관점으로 문화를 재창조한다.

판매 공간 곳곳에 원전에 반대하고, 환경 문제를 생각하는 행사 등의 홍보물을 전시함으로써 판매를 통한 수익 창출 공간 이상의 기능을 추구하고 있다. 사업은 어린이·여성용 도서 판매, 장남감·유기농 채소 판매와 유기농 레스토랑, 통신판매업, 편집, 출판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3) 고령여성의 커뮤니티 공간 : 영국 나나 카페

민간시설인 영국의 나나카페는 사회적으로 고립된 고령의 여성들이 마을 커뮤니티 안에서, 사회 안에서 삶의 주체성과 관계성을 회복할 수 있는 삶과 일의 터전 마련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대표인 케이티 해리스 (Katie Harris)가 2012년 11월 런던 동부의 클랩튼 지역에서, 고령의 지역 여성들이 직접 음식을 만들어 제공하고, 손수 클래스를 열어 지역 주민과 만남으로서 지역 커뮤니티의 중요한 주체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찾다가 3개월 동안의 팝업 카페를 운영하게 되었다. 이후 이 카페의 성공에 힘입어 본격적으로 ‘나나 카페’를 열게 되는데, 여기서 ‘나나’는 55세 이상의 고령 여성을 의미한다.

카페 공간과 옥상 정원으로 구성된 카페건물은 20년이 넘게 사용하지 않고 버려진 공공 화장실 건물이었다고 한다.

주요사업은 카페 운영, 정기 이벤트 기획 및 진행이 주를 이루는데, 마을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카페에서 일하는 이들은 55세 이상의 지역 여성으로 이들이 직접 만든 간단한 식사와 음료를 판매한다.

지역 주민들, 어린 아이들과 함께 여는 식재료 워크숍 (Kid Food Factory), 지역 주민들과 함께 여는 수공예 클래스(Craft Club), 어린이는 물론 모든 주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여는 댄스 파티 (NaNa Disco), 드로잉 클래스와 같은 일반적인 프로그램 외에 헤니크의 영웅(Hackney Hero)이라는 기획이 특별히 눈에 띈다. 이는 지역 주민들이 함께 지역 커뮤니티의 알려지지 않은 영웅들을 뽑고, 여기 뽑힌 영웅들에게 나나 카페에서 일종의 커뮤니티 축하 파티를 무료로 열어주어 지역민의 공동 활동의 장이 마련된다는 면에서 참고할 만하다.

대표인 케이티 해리스는 친할머니와의 기억을 통해 고령의 여성들이 갖고 있는 역량을 발휘하지 못한 채 점점 고립되어 가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꼈고 동시에 지역 사회가 이들을 여전히 필요로 하고 있음을 확인하면서 카페라는 형태로 이들이 만나는 지점을 만들어내고자 했다. 이를 통해 고령 여성들이 사회적 고립에서 벗어나 사회의 건강한 주체로 인정받고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음은 물론, 세대 간의 단절과 고립을 넘어 함께 사는 마을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고령화에는 늘 경제적 빈곤과 사회적 고립이 포함되는데, 이 카페의 경우 이 둘 중에서도 사회적 고립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카페에서 일하는 나나들은 사실 상근이라기보다는 일주일에 한 번 돌아가면서 카페에 와서 이 카페의 상근 셰프와 함께 일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그에 따른 경제적 소득이 분명히 있으나 그 액수가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카페를 소개하는 대부분의 자료, 그리고 대표의 발언에서도 고령 여성의 경제적 빈곤보다는 사회적 고립 문제를 강조하고 있다. 실제 서울시의 경우도 특히 고령 1인가구 여성의 경우 집거의 문제가 경제적 문제 이상으로 심각하다는 점은 선행 연구(문은영 외, 2013)를 통해서도 논의된 바 있다.

카페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온 가족이 다 참여할 수 있고, 고립되어 있던 고령 여성들이 마을의 어린 아이들과 직접 만나 소통하고 교류하는 것을 중심으로 여러 세대가 함께 지역 사회에 관심을 갖게 만드는 프로그램들이 많다.

4) 상상과 창작의 여성 공간 : 미국 Mothership Hacker Moms

아이를 가진 여성을 위한 해커 스페이스이자 DIY(Do It Yourself) 메이커 스페이스로 민간의 시설이다. 2012년 다양한 직업을 가진 엄마들이 만나 기존의 그룹과는 다른, 아이뿐 아니라 엄마도 온전한 주체로 행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로 하면서 문을 열었다.

모든 젠더의 엄마들(mothers of every gender)이 창작 욕구를 바탕으로 다양한 DIY 창작과 디자인, 해커 문화와 메이커 문화, 기업가 정신을 접하고 배우며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성인은 물론 어린이들이 자연스럽게 과학 기술, 공학, 수학(STEM :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rt and Math) 분야를 접하고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의 장 마련하였다.

1,000평방 미터의 공간을 사용하며, DIY 창작에 필요한 다양한 도구, 장비들을 갖추고 있다. 회원제로 운영되며, DIY 창작에 필요한 모든 종류의 도구와 장비를 공유한다.

교육 프로그램은 성인 대상의 프로그램과 어린이 대상의 프로그램으로 나뉘어 진

행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성인 대상 : 회원들이 직접 기획, 진행하는 워크숍과 전문가 초청 워크숍 진행. IT 기술 관련 다양한 워크숍들은 물론 그림, 책 만들기, 유리용기 제작, 홀라후프 제작, 아기 로션 만들기, 놀이터 기구 세트 제작,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Adobe illustrator) 워크숍, 엄마를 위한 성(Sex for Moms) 워크숍, 홈스쿨 워크숍, 울리지 않고 아이 잠재우기(Drama-Free Sleep Solution) 워크숍, 패밀리 워크숍, 아이들을 위한 아웃도어 놀이 만들기 워크숍, 소셜 미디어 워크숍 등 회원들이 원하는 거의 모든 만들기 작업을 지원하는 워크숍들을 기획, 진행

② 어린이 대상 (Hacker Sprouts Kids) : 성인 회원의 아이들 중 생후 6개월부터 5세까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rt and math)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진행

평일에는 회원의 아이들에게 제공되지만, 주말에는 회원은 물론 일반 시민들에게도 개방하며, 7세 이상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STEM 분야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 진행하고 있는 다른 해커 스페이스 (Ace Monster Toys)와 협력 관계를 맺고 이곳을 통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고 있다.

글쓰기 모임, 비평 모임 등 다양한 소모임들이 활동 중이며, 새로운 사업과 커리어를 시작하고자 하는 엄마들을 지원하는 비즈니스 인큐베이팅, 자원활동과 인턴십 제도를 운영하고, 기부 및 후원 사업을 진행 중이다. 전문 베이비시터가 상주하는 보육 공간을 운영함으로써 여성 참여의 장애 요소를 최소화하는 장치를 갖추고 있다. DIY에 관심 있는 성인, 어린이 등 누구나 참여 할 수 있으며, 아기와 어린이, 모든 젠더의 엄마들(mothers of every gender), 아빠들, 엄마가 아닌 사람들에게도 열려있는 누구에게나 평등한 공간이다.

전통적으로 남성이 주도하는 IT, 기술 분야에 여성, 엄마, 어린이, 가족이라는 정체성을 결합한 미국 최초의 사례이다.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rt and math) 분야의 어린이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는데, STEM은 여성과는 어울리지 않는 분야라는 인식 때문에 어린 여아들이 노출될 기회가 적은 분야라는 특성이 있다. 어린이 대상 STEM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성별에 상관없이 어려서부터 이 분야를 접하고 흥미를 키우면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조건을 만들

고 있다.

MHM은 아이를 가진 여성에게 아이와 함께 해야 하기 때문에 찾아오는 고립과 분절된 존재로서의 고통이 존재함을 이야기한다. 아이 엄마로서만이 아니라 한 개인으로서 둘 사이의 균형을 잡을 수 있을 때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고민 속에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형태로 해커 스페이스를 받아들였다. 자유와 개방, 공존과 협력, 기술과 DIY 창작을 중심으로 하는 해커 스페이스메이커 스페이스에 여성으로서의 정체성, 엄마라는 위치, 아이/가족과 함께 하는 삶을 녹여내고자 하였다. 이 사례 이후 본격적으로 여성주의에 뿌리를 둔 해커메이커 스페이스들도 문을 열었다.

DIY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MHM에서 동료들 찾아 커뮤니티를 이룬 여성들이 새로운 커리어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일종의 비즈니스 인큐베이팅을 시도하고 있다.

4. 요약 및 시사점

이 장에서는 앞선 서울시 여성가족 인구 분석과 기존 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한 검토에 이어 현재의 여성가족시설이 어떠한 근거에 의해 설치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더불어 양성평등기본법(이전 여성발전기본법)을 근거로 설치된 여성인력개발센터나, 건강가정기본법을 근거로 한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해 설치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은 중앙정부의 정책 전달체계로 기능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한계를 갖고 있으며, 각 전달체계의 프로그램이 지역에 따른 특색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서울시 차원의 지역 특색을 반영한 여성가족시설 설치 등을 통한 블록구축의 가능성을 엿보기 위해 서울시 ‘성평등조례’를 검토하고, 서울시 차원의 ‘여성관련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의한 여성가족시설이 지극히 한정된 분야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서울시의 여성가족정책이 보다 지역에 다가가 실행되기 위해서는 ‘여성의 삶을 바꾸는 서울’, ‘차별 없이 더불어 사는 사람 중심 도시’라는 모토를 실현하기 위한 여성가족 공간이 필요하고 그 시작으로 권역별 거점 기관의 설치

가 필요하다는 점은 기존 시설의 한계와 서울시를 구성하는 여성 가족 인구의 특성을 통해서도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공간의 부족이라는 한계가 있는 만큼 현재 관련 시설들과 유기적으로 결합할 방안이 신규 공간 설립에 우선할 수밖에 없다. 기존 관련 기관에 여성가족시설이 복합적으로 설치된 지역의 사례를 살펴 본 결과 해당 공간 전체를 관통하는 프로그램 실행자가 없는 현 시점에서 시설의 복합화는 단지 백화점식으로 관련시설이 나열에 불과하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다.

결국 복지 문화 인프라의 부족을 여성가족 공간의 마련을 통해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성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기획이 요구된다. 이에 여성가족의 변화 양상을, 앞서 경험한 다른 나라의 사례 중에서도 특히 고령자 지원 공간, 여성의 창작 욕구를 진작시키는 공간, 지역여성 커뮤니티 지원공간과 친환경과 돌봄을 주제로 한 공간 사례를 검토하였다. 이는 2030 서울 플랜의 이슈별 전략을 지역의 인구 특성에 맞게 적용한 결과를 반영한 주제들이다. 돌봄과 교육이 지역의 이슈로 사회화되기 위해서는 자발적인 커뮤니티가 활동할 수 있는 거점 기관이 필요하고, 그 사례로서 이용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독일의 마더센터가 참고가 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또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환경과 아동의 문제를 문화공간으로 해석한 일본의 크레용 하우스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는 현재 서울시에 확산되고 있는 협동조합 등과 결합될 때 새로운 지역 문화를 만들어 내는 공간으로 자리매김 될 여지가 있다.

한편, 영국의 나나카페는 고령자 복지가 단순히 고령자를 돌보는 체계에서 벗어나야함을 시사하고 있다. 즉 그 경험과 에너지가 지역 사회에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고령자의 지역사회 참여를 위한 거점 기관과 여성 중심의 고령자 지원 프로그램이 보다 정교하게 구상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기존 여성 관련 기관의 생활 문화 프로그램이 여성의 성역할을 고착화시킬 우려가 있었던 반면 마더십해커맘스(MHM: Mothership Hacker Moms)의 사례는 여성의 활동이 보다 다변화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향후 참고가 될 수 있다. 여성의 영역을 남성이 주도하는 아이티(IT), 기술 분야로까지 확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성가족 공간의 프로그램이 어떻게 여성의 가능성을 다르게 상상할 수 있을지를 확인시켜주는 사례이다.

IV

여성·가족시설 블록 구축을 위한 시민 요구 분석

1. 여성·가족시설에 대한 시민 수요 : 설문분석
2. 지역맞춤형 여성·가족시설을 위한 FGI 분석
3. 요약 및 시사점

IV 여성가족시설 블록 구축을 위한 시민 요구 분석

서울시민 전반에 대한 여성가족시설의 수요 조사는 기존 설문조사에 기반하여 서울시 전체와 권역별 수요를 성별에 따라 파악하였다. 설문은 이 연구를 위하여 새롭게 기획되지는 않았으며, 2013년 성 평등 여건 변화와 도시 공간환경에 대한 시민 설문조사 결과 중 일부를 인용하였다.⁴²⁾

이와 함께 여성가족시설에 대한 지역민의 요구와 여성가족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역 여성 활동가와 관련분야 전문가에 대한 FGI를 실시하였다. 일반시민의 요구가 여성 가족과 관련된 전반적인 시설에 대한 요구를 보여주고 있다면, 지역 활동가 여성과 관련 전문가 FGI에서는 지역에서의 여성들의 활동과 여성가족시설의 역할, 기존의 관련 시설 프로그램과 차별화되는 여성가족시설의 프로그램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1. 여성가족 시설에 대한 시민 수요 : 설문분석

여성 가족 관련 시설에 대해 서울시민들의 수요는 20세 이상 서울시민 400명에 대해 구조화된 설문을 이용한 온라인 조사결과를 분석하였다. 표본은 조사기관의 온라인패널 중 무작위로 표집되었다. 조사의 전반적인 내용은 생활에서의 이동, 지역편의시설, 생활시설 및 주거환경 만족도, 생활안전, 일·생활 조화, 서울시 도시생활, 도시기본계획 관련 이슈, 여성과 남성의 관계 등 8가지 주제로 구성되었다. 응답

42)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안) 성 분석(손문금, 2013) 연구의 일환으로 실시되었으며 (주)나이스알앤씨가 2013년 7월 30일-8월6일의 8일 간 수행하였다.

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 IV-1】 응답자 특성

구분		사례수(명)	비율(%)
전체		400	100.0
성별	남자	(150)	37.5
	여자	(250)	62.5
연령별	20대	(85)	21.3
	30대	(79)	19.8
	40대	(85)	21.3
	50대	(75)	18.8
	60대	(76)	19.0

이 연구에서 주로 분석하는 필요시설에 대한 질문은 조사 시 다음과 같은 구조로 질문되었다. 조사에서는 필요시설에 대한 질문에 앞서 외출 및 출퇴근, 등하교 시 지난 일주일 간 한 번 이상 들른 시설로 보육시설, 자녀 학교·학원, 음식점, 세탁소, 쇼핑관련시설, 돌봄시설, 의료시설, 자기계발 및 취업, 체육시설, 도서관, 취미활동 시설, 공원·놀이터, 문화시설 등의 예를 제시하였다. 이어지는 질문으로 주거 지역에 필요한 시설 및 공간에 대한 예시로 다음의 항목이 제시되었다.

【표 IV-2】 지역 내 필요시설에 대한 예시

- ① 보육시설 (어린이집 등)
- ② 의료시설 (보건소, 병의원 등)
- ③ 치안시설 (파출소 등)
- ④ 자녀관련교육시설(학교, 학원 등)
- ⑤ 자기 계발 및 취미를 위한 시설 (평생교육기관, 학원, 문화센터 등)
- ⑥ 도서관 시설
- ⑦ 취업지원시설 (취업지원센터, 직업훈련기관 등)
- ⑧ 문화예술시설 (극장, 공연장, 전시관 등)
- ⑨ 노인복지시설 (복지관, 경로당 등)
- ⑩ 쇼핑시설 (슈퍼, 재래시장, 마트 등)
- ⑪ 공원 및 놀이터 등 녹지공간
- ⑫ 주민 소통을 위한 공간(주민 사랑방, 쉼터 등 공공 교류 장소)
- ⑬ 건강증진을 위한 공간 (체육관, 운동시설, 운동장 등)
- ⑭ 기타(구체적으로 _____)

전체 서울시민의 필요시설에 대한 수요와 권역별 수요를 성별로 살펴봄으로써 여성가족시설의 배치 계획에 우선 고려되어야 할 부분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자 한다.

1) 서울시민의 전반적인 수요

앞서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설문과정에서 여성·가족이 필요로 하는 시설에 대한 유형이 제시되었음은 이미 밝힌 바 있다. 다음은 예시된 필요시설에 대한 400명 서울시민의 응답을 성별 그리고 성과 연령을 교차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 표 IV-3 ▮ 서울시민 성별*연령별 지역에 최우선 필요 시설/공간(1순위 상위 5개)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의료시설 (보건소, 병의 원 등)	자기계발 취미시설 (평생교육기관, 학원, 문화)	치안시설 (파출소 등)	쇼핑시설 (슈퍼, 재래시장, 마트 등)	공원 및 놀이터 등 녹지공간	
전체	(400)	16.3	13.0	12.5	11.8	9.0	
성별	남자	(150)	18.0	9.3	9.3	9.3	
	여자	(250)	15.2	15.2	14.4	13.2	8.8
성별* 연령별	남자 20대	(34)	17.6	2.9	14.7	14.7	8.8
	여자 20대	(51)	5.9	11.8	29.4	15.7	7.8
	남자 30대	(25)	16.0	0.0	4.0	12.0	4.0
	여자 30대	(54)	11.1	14.8	9.3	14.8	13.0
	남자 40대	(34)	23.5	2.9	14.7	5.9	11.8
	여자 40대	(51)	25.5	13.7	5.9	13.7	5.9
	남자 50대	(29)	13.8	34.5	6.9	10.3	3.4
	여자 50대	(46)	17.4	15.2	13.0	13.0	6.5
남자 60대	(28)	17.9	7.1	3.6	3.6	17.9	
여자 60대	(48)	16.7	20.8	14.6	8.3	10.4	

전체적으로 의료시설에 대한 수요가 1순위로 나타난 가운데 남성은 의료시설에 대한 수요를 1순위로 꼽은 반면 여성은 의료시설과 자기계발 및 취미를 위한 시설에 대한 수요가 공동 1순위로 꼽고 있다. 성별*연령별 분석에서는 남성의 경우 5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의료시설에 대한 수요가 1순위로 꼽히지만, 여성의 경우는 연령별로 1순위 수요가 다름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20대 여성은 치안 시설에



대한 수요가 높아 안전에 대한 요구가 가장 큰 집단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30대 여성은 자기계발, 취미 시설과 쇼핑시설에 대한 수요가 두드러진다. 4-50대 여성에 이르러 의료시설에 대한 수요가 크게 나타나지만, 오히려 60대 여성은 자기계발 및 취미 시설에 대한 수요가 커, 전 연령대에 걸쳐 여성은 자기계발 및 취미시설에 대한 수요가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전 연령대에 걸쳐 남성의 경우 전반적으로 의료시설에 대한 수요가 크다면 여성은 자기계발 및 취미시설에 대한 수요가 1순위로 나타났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어 필요시설에 대한 수요 2순위에 대한 조사 결과를 성별과 성·연령 교차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 표 IV-4 ■ 성별*연령별 주거지역에 최우선 필요 시설/공간(2순위 상위 5개)

(단위: 명, %)

구분		사례수(명)	쇼핑시설	건강증진을 위한 공간	공원 및 놀이터 등 녹지공간	의료시설	자기 계발 및 취미 시설
전체		(400)	16.0	14.3	11.5	11.0	11.0
성별	남자	(150)	16.7	18.0	13.3	7.3	8.0
	여자	(250)	15.6	12.0	10.4	13.2	12.8
성별* 연령별	남자 20대	(34)	17.6	23.5	17.6	0.0	0.0
	여자 20대	(51)	17.6	11.8	13.7	17.6	15.7
	남자 30대	(25)	20.0	20.0	4.0	4.0	8.0
	여자 30대	(54)	20.4	13.0	13.0	9.3	5.6
	남자 40대	(34)	11.8	11.8	8.8	14.7	8.8
	여자 40대	(51)	13.7	3.9	15.7	13.7	11.8
	남자 50대	(29)	13.8	10.3	17.2	10.3	10.3
	여자 50대	(46)	10.9	15.2	4.3	6.5	21.7
	남자 60대	(28)	21.4	25.0	17.9	7.1	14.3
	여자 60대	(48)	14.6	16.7	4.2	18.8	10.4

2순위 필요시설의 경우 남성은 건강증진을 위한 공간에 대한 수요가 높고, 여성은 쇼핑시설에 대한 수요가 높아 성별에 따른 수요 차를 보이고 있으나, 30대 남성의 경우는 쇼핑시설에 대한 요구가 다른 연령대 남성에 비해 높게 나타나 남성들 사이에서도 연령대에 따른 수요의 차가 드러나고 있다. 1순위 필요시설에 대한 수요에 비해 2순위 수요에 대해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보다는 연령대에 의한 차이가 보다 두드러진다. 즉 2-30대에서 남녀 모두 쇼핑시설에 대한 수요가 크다면 4-50대에서는 녹지 공간에 대한 수요가 60대에는 다시 건강증진을 위한 공간이나 의료 시설 등 건강 관련 시설에 대한 수요가 높다. 특징적인 부분은 자기개발 및 취미시설에 대한 수요가 남성의 경우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올라가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여성은 연령대의 변화에 따라 일관되게 수요가 높아지거나 떨어지는 시설이 없다는 점이다.

2) 권역별 여성·가족시설에 대한 시민 수요

전체 여성·가족시설 배치계획은 결국 권역별 시설의 현황과 더불어 실질적인 시민들의 수요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인 시민들의 요구가 정책과 합치를 이루기 어려운 면 또한 존재한다. 이러한 점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여성·가족시설이 지역맞춤형으로 정착하기 위한 관건이다. 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시설이 서울시 여성·가족 정책으로 실현될 방안이 함께 모색되지 않는다면 결국 정책이 시민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며, 주민의 요구를 정책화의 필터 없이 수용할 때 시장과의 충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서울시민의 전체적인 수요를 권역별로 5개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 수요에 대해 분석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V-5 | 성별지역에 우선 필요 시설 및 공간 1순위(도심권)

(단위: %)

구분	보육 시설	의료 시설	치안 시설	자기개발 취미시설	도서관 시설	쇼핑시설	공원 놀이터 등 녹지공간	합계
전체	18.8	12.5	6.3	12.5	12.5	18.8	18.8	100
성별	남	33.3	.0	.0	33.3	33.3	.0	100
	여	15.4	15.4	7.7	15.4	7.7	23.1	100

1인당 공원 면적은 종로구가 자치구 중 최대이고, 중구와 용산구의 공원 면적도 서울 평균 수준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설문 결과 이러한 물리적 조건이 시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특징은 특히 여성들에게서 두드러진다. 여성주민의 요구는 공원 및 놀이터 등 녹지 공간으로 드러나, 수치로서의 공원 면적이 서울시의 실질적인 공원 문제인 생활 공원부족의 문제를 반영할 수 없다는 점을 방증하고 있다.

도심권의 녹지 공간은 한편으로 남산과 궁궐 위주의 녹지로 도심권을 생활지역으로 하는 주민들이 일상의 녹지공간으로 접근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특징 또한 간과할 수 없다.

【표 IV-6】 성별 지역에 우선 필요 시설 및 공간 1순위(서복권)

(단위: %)

구분	보육 시설	의료시설	치안 시설	자녀관 련교육 시설	자기 계발 취미 시설	도서관 시설	취업지 원시설	문화예 술시설	쇼핑시 설	공원 놀이터 등 녹지 공간	건강증 진공간	합계
전체	3.7	22.2	14.8	3.7	18.5	5.6	5.6	3.7	11.1	3.7	7.4	100
성 별	남	.0	35.7	7.1	14.3	14.3	.0	.0	14.3	.0	.0	100
	여	5.0	17.5	17.5	.0	20.0	2.5	7.5	5.0	10.0	10.0	100

앞선 자치구별 여성·가족 인구 특성 분석에서 서복권은 여성인구가 많고 장애여성, 한부모 가족 등의 비율이 두드러지는 특성을 보였다. 특히 서대문구의 여성 여가활동 참여율이 낮은 특성을 보였는데, 자기계발 및 취미를 위한 시설에 대한 여성들의 요구가 높다. 남성의 수요가 가장 높게 나타난 의료시설에 대한 여성의 수요 또한 높아 병원이나 보건소 외의 시설에서 예방적 접근을 통한 건강 프로그램의 가능성 여부를 고려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표 IV-7 | 성별 지역에 우선 필요 시설 및 공간 1순위(서남권)

(단위: %)

구분	보육 시설	의료 시설	치안 시설	자녀 관련 교육 시설	자기 계발 취미 시설	도서관 시설	취업 지원 시설	문화 예술 시설	쇼핑 시설	공원 놀이 등 녹지 공간	주민 통간	건강 증진 공간	기타	합계	
전체	10.9	14.0	17.1	1.6	10.9	8.5	2.3	8.5	10.1	5.4	1.6	8.5	.8	100	
성별	남	14.0	14.0	15.8	.0	5.3	8.8	3.5	10.5	12.3	3.5	1.8	10.5	.0	100
	여	8.3	13.9	18.1	2.8	15.3	8.3	1.4	6.9	8.3	6.9	1.4	6.9	1.4	100

서남권은 동북권과 더불어 문화시설의 불모지인 동시에 인구 밀도가 높고, 외국계 주민 인구 규모가 크고,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거주하는 특성을 보인다. 1인당 공원 면적이 서울 최소인 영등포구와 강서, 양천 모두 평균 이하임에도 녹지 공간 보다는 치안시설, 자기계발 및 취미를 위한 시설에 대한 요구가 크다. 최근 서남권의 범죄 발생에 대한 분석에서 서남권과 동북권은 각종 범죄로부터 취약한 지역으로 파악되고 있다는 점(이혜민·김경민, 2013)에서 실제 주민들의 요구가 현실을 반영한 구체적인 생활 현안이라는 점이 드러나고 있다.

표 IV-8 | 성별 지역에 우선 필요 시설 및 공간 1순위(동북권)

(단위: %)

구분	보육 시설	의료 시설	치안 시설	자녀 관련 교육 시설	자기 계발 취미 시설	도서관 시설	취업 지원 시설	문화 예술 시설	노인 시설	쇼핑 시설	공원 놀이 등 녹지 공간	주민 통간	건강 증진 공간	합계	
전체	5.1	19.7	8.5	4.3	12.0	5.1	4.3	7.7	0.9	15.4	11.1	2.6	3.4	100	
성별	남	10.3	23.1	7.7	.0	15.4	2.6	5.1	7.7	.0	2.6	15.4	5.1	5.1	100
	여	2.6	17.9	9.0	6.4	10.3	6.4	3.8	7.7	1.3	21.8	9.0	1.3	2.6	100

동북권의 시민들은 전반적으로 의료시설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난다. 성별에 따라 남성은 1순위 필요공간을 의료시설을 꼽은 한편 여성은 쇼핑 시설을 1순위 필요시설로 들고 있다. 동북권은 서남권과 함께 문화시설 기반이 약한 권역이나 쇼핑시설, 의료 시설에 대한 욕구가 크다는 점에서 정책적 개입에서 다양한 모색이 필요하다.

【표 IV-9】 성별 지역에 우선 필요 시설 및 공간 1순위(동남권)

(단위: %)

구분	보육 시설	의료 시설	치안 시설	자녀 관련 교육 시설	자기계발 취미 시설	도서관 시설	취미 시설	문화 예술 시설	쇼핑 시설	공원 놀이 등 녹지 공간	주민 통 공간	건강 증진 공간	합계	
전체	8.3	11.9	10.7	3.6	14.3	7.1	4.8	8.3	8.3	13.1	1.2	8.3	100	
성별	남	10.8	13.5	2.7	2.7	8.1	8.1	2.7	10.8	8.1	16.2	2.7	13.5	100
	여	6.4	10.6	17.0	4.3	19.1	6.4	6.4	8.5	10.6	.0	4.3	100	

서초, 강남, 송파, 강동을 포괄하는 동남권은 여성인구의 비율이 높고, 여성가구 주 인구도 높은 특성을 보인 동시에 다른 권역에 비해 여성의 지역 환경 만족도가 높은 지역이다. 지역민들의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수요는 자기계발, 취미활동 공간으로 나타나 기존의 관련 시설에서 이미 진행 중인 프로그램들이 포괄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어디인지를 찾아야 하는 과제를 제시한다.

기존의 여성가족시설은 여성인력개발기관, 폭력피해여성 지원시설, 일부 가족지원시설이 주를 이루고 있어 지역별로 다른 특성을 지닌 서울시의 다양한 여성 가족의 요구를 담아내는 데에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점이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드러나고 있다. 시민들의 수요가 큰 시설인 쇼핑 시설은 기존 공공시설에서 그 요구에 부응한 서비스나 프로그램 제공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생산, 재생산과 소비에 대한 새로운 의미가 어떻게 신규 여성가족시설을 통해 구현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할 지점이다.

2. 지역맞춤형 여성가족시설을 위한 FGI 분석

설문조사에서는 필요시설에 대한 수요에서 정책적으로 개입되기 어려운 시설에 대한 요구를 드러내기도 하였다. 실제 지역주민들이 여성가족 정책에 대한 이해와 이에 기반한 수요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생활의 편의에 중점을 둔 수요를 정책적으로 반영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이 연구는 여성가족시설이 지역에 밀착하여 지역의 요구를 충실히 담아내야 한다는 점을 처음부터 염두에 두었다. 따라서 특정 지역에 들어서는 여성가족시설이 어떻게 지역과 만나는 동시에 권역을 포괄하는 거점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을지에 대해 지역활동가 및 관련 분야 전문가에 대한 FGI를 실시하였다.

연구에서 중점을 두고 분석한 지역은 서울시 서남권과 동북권역이다. 서남권과 동북권역은 2030 도시 계획에서 서울시에서 대표적으로 문화 인프라가 약한 곳으로 분류된 지역이다. 서남권은 현재 동작구에 서울시 차원에서 관할하는 여성플라자와 영등포구에 여성NGO들의 미래센터 등이 위치하고 있어 서울의 5대 권역 중 여성 관련 인프라가 비교적 강하다. 이를 고려해 서남권에서는 여성주의 문화 경관 조성의 가능성을 시험해 보고자 한다. 동북권의 경우는 문화 인프라가 약한 동시에 성동, 광진, 중랑구를 중심으로 사회복지 시설이 가장 적게 분포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 전반적으로 약한 인프라를 여성가족시설의 설치를 통해 극복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역의 여성활동가들과 분야별 전문가에 대한 FGI를 실시하였다. FGI는 총 5그룹에 대해 9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 표 IV-10 】 지역맞춤형 여성가족시설 블록 구축 관련 면접 조사 개요

구분	참여인원 및 구성	일시
서남권 지역 활동가	7인(여)	2014.09월
지역 맞춤형 시설 운영 경험자	3인(여)	2014.09월
부문별 활동가	4인(여3, 남1)	2014.09월, 10월
동북권 지역 활동가	3인(여), 4인(여)	2014.10월, 2014.11월
주제 분야 전문가	3인(여), 1인(남)	2014.11월

지역 활동가에 대한 FGI는 지역 현장 활동가들이 체감하고 있는 필요 시설이 무엇인지, 지역 친화적인 여성가족시설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의 장으로 마련하였다. 부문별 활동가와 주제별 전문가 조사를 통해 여성가족시설에서 구현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구하였다. 특

히 문화, 예술이 여성·가족을 포괄하는 주제로 만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에 중점을 두었다. 여성주의 문화이론가와 문화운동가뿐 아니라 일반적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실행자가 조사에 참여자로 선정되었다.

■ 표 IV-11 ■ 면접 조사 참여자 특성

구분	활동영역	성별	활동범위	비고
사례1	청소년 운동	여	서남권	마을 단위 지역 운동
사례2	마을학교	여	서남권	마을공동체 활동가
사례3	육아 협동조합	여	서남권	마을공동체활동가
사례4	교육 공동체	여	서남권	마을공동체 활동가
사례5	장애아 교육 운동	여	서남권	마을공동체 활동가
사례6	교육, 육아 운동	여	서남권	전통놀이 중심 교육운동
사례7	마을도서관	여	서남권	마을 단위 지역 활동가
사례8	지역여성운동	여	서울시	도서관 운동
사례9	지역여성운동	여	서울시	도서관 운동
사례10	지역여성운동	여	서울시	안전한 지역만들기 운동
사례11	여성, 돌봄 분야	여	동북권	지역연대 활동가
사례12	여성, 돌봄 분야	여	동북권	지역연대 활동가
사례13	사회적 협동조합	여	동북권	돌봄 관련 지역 공동체 운동
사례14	청소년사업	여	동북권	마을공동체 운동
사례15	사회적경제	여	동북권	마을공동체 운동
사례16	마을지원센터	여	동북권	마을공동체 운동
사례17	여성운동	여	서울시	지역여성운동, 환경운동
사례18	문화예술 프로그램 실행자	여	서북권, 서남권	공동창작공간, 문화예술 세미나 운영
사례19	문화예술 프로그램 실행자	남	서북권, 서남권	공동창작공간, 문화예술 세미나 운영
사례20	문화예술 프로그램 실행자	남	서북권	마을극장, 마을공동체
사례21	문화예술 프로그램 실행자	남	지역불문	소그룹 문화학교
사례22	문화예술 프로그램 실행자	여	서울 전역	문화운동 단체 활동
사례23	문화예술 프로그램 실행자	여	동북권	찾아가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진행
사례24	문화예술 프로그램 실행자	여	동북권	도서관 운동 및 청소년 프로그램
사례25	문화예술 전문가	여	지역불문	이론가, 여성주의 예술 프로그램 강사
사례26	문화예술 전문가	여	지역불문	이론가, 여성주의 문화 운동

1) 지역과 함께 하는 여성·가족시설

연구에서 지역맞춤형 여성가족 지원이라는 목적이 개입된 이유는 그동안의 지원 정책이 지역의 수요에 따라 실행되지 못하였다는 현실에 대한 성찰이 깔려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 지역의 수요와 함께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차원의 활동을 지속해 온 여성 활동가들로 부터 의견을 수렴하였다.

여성 활동가들을 주로 지원하고 그 활동가들을 위한 공간, 그 활동가들이 활동을 잘할 수 있게 하는 공간도 거기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역에서 활동 네트워크 만들고 있는데 목표가 올해 연말까지 그걸 만들어보는 건데 그런 네트워크가 잘 만들어지면 그 네트워크 센터 같은 곳도 있어야 하고, 그 센터뿐만이 아니고 그 부족한 공간들도 있어야 하고 필요한데, 예전에는 공간이 있으면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어서 생각을 해보다가 장기적으로는 마더센터를 목표에 두고 여성 활동가들의 역량을 집중해보면 어떨까 하는 얘기를 했어요. 새로 시설이 생긴다면 한 부분은 지역에 있는 여성 활동가들을 위한 마더센터와 같은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사례 4, 서남권 마을공동체)

앞서 다양한 여성가족의 요구를 반영한 새로운 여성가족시설의 사례로 독일의 마더 센터 모델은 이미 소개된 바 있다. 이제까지 여성가족시설이 지역민을 단순히 제공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공간을 대여하는 이용자로 한정했다면, 공간의 일부를 지역민의 자발적인 활동 공간으로 개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분명 지금까지 여성가족시설에서 시도된 바가 없는 기능인만큼 운영주체와 멤버십 구성 계획을 구체화 해 공유 공간이 ‘공유지의 비극’으로 가지 않을 방안 마련이라는 과제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여성 활동가들이 활동을 할 때 아이들도 데려와야 하고,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도 있어야 하니까 그게 뭐든 한 센터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 여기 와서 우리 애 맡겨놓고, 아니면 공동 육아 방은 따로 있으니까 그쪽에서 공동육아하고 우리는 활동하고 여기가 활동의 중심지가 되기도 하고, 그 안에서 노인의 역할도 주고, 여성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그 센터 안에서. (사례 2, 서남권 마을공동체)

여성들의 활동에서 고려될 점으로 돌봄 문제를 지역 차원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이다. 새로운 여성가족시설이 지역 여성들의 활동을 진작시키는 공간으로 작동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간대별로 이용자들의 상황에 따른 편의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즉 아이를 가진 여성이 이용할 경우를 대비한 시간제 보육시설,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위한 공간 등이 고려될 때 지역민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공간으로서의 의미가 살아날 수 있다.

우리 광진구에서는 여성주의 교육이 거의 없었어요.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민단체라던가 구에서도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여성주의 관점을 해주면서 시설도 조금 더 정리해서 가면 좋지 않을까, 듣기로 동작 쪽도 원래는 별로 다르지 않았는데 플라자에서 NGO 입주시키고 하면서 나아졌다고. (사례 11, 동북권 지역연대)

이미 유사한 경험을 한 지역이 있다는 것은 새로운 시도에 나서는 이들에게 경험을 통한 가능성을 제시한다. 때문에 현재 여성단체의 활동이 두드러지지 않는 광진구의 활동가들은 여성플라자를 통해 여성 엔지오(NGO)활동의 기반이 마련된 동작구의 사례에 주목하는 것이다.

지역의 기존 시설 등에서 진행할 수 없었던 여성주의 프로그램이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될 필요성도 강조된다. 여성가족시설이기 때문에 가능한 여성들이 공간에 대한 주권(sovareignty), 즉 공간을 자유롭고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물론이고 공간의 생산을 위한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또한 보유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한편으로, 젠더평등의 관점에서 공간주권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해 나가는 것이다(안숙영, 2012). 더불어 지역의 역사성과 환경적 특성을 최대한 고려함으로써 지역의 일부가 되는 지역성을 살리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원선영 외, 2008).

(1) 지역사회 돌봄 기능 강화 : 동북권

서울의 동북권 지역이 사회복지 기반 시설이 약하다는 점은 이미 권역별 인구 특성에서도 제기된 바이다. 이러한 점은 특히 지역 단위 활동에 참여 중인 여성들이 체감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광진 같은 경우가 워낙 지역적으로 빈부 격차가 심해요. 딱 나뉘었는데, 현재는 네트워크를 어떻게든 활성화해서 연계해서 도움을 주려고 하고는 있지만 아직은 그다지 네트워크화 하고 있어서 갈 길이 너무 멀고, 일을 이룰테면 씬터도 없고 청소년 씬터, 다른 지역에서는 중랑에서도 운영되고 있는 10대를 위한 씬터도 광진에는 현재 없어요. (사례 14, 동북권 지역공동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특정 NGO 소속이나 사회복지사들의 역량을 넘어서는 요구가 있을 때 그 연결 고리를 개인의 인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특히 공간을 필요로 하는 서비스는 공간이 없을 때 실현될 수 없다는 문제까지 불거진다.

션터 뿐 아니라 돌봄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도 그들 공간, 육아를 마치면서 육아를 시작하면서 갈등하고 있는 여성분들이 여성 상담을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곳도 없어요. 그런 분들은 사회로 나오고 싶은데 일정하게 집안에서 가사노동에 시달리다 보면 그거에 대한 인큐베이팅을 해줄 상담이나 소모임을 이끌어줄 분들을 만날 기회가 없다보니까 그런 곳을 활동이 활성화 되어 있는 곳을 찾아가기도 어려우니까 스스로 꾸러나가야 되는 어려움이 있죠. (사례13, 동북권 지역공동체)

동북권 특히 광진 지역에 폭력 피해 여성에 대한 지원기관이 부족하다는 점은 지역 활동가들이 계속 지적하고 있는 점이다. 더불어 육아 문제에 직면한 여성들을 위한 지원과 육아를 마친 여성들의 사회활동 복귀를 위한 단계별 프로그램의 구조화도 제안되고 있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내가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일자리 얘기를 하세요. 그렇게 되면 어머님들 연세가 40대 초반에서 50대 초반까지 연세인데, 그 연령대의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할 수 있는 일자리에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 아이들이 어릴 때는 대부분 주부로 일을 했어도 가내 수공업이라던지 파트타임으로 나가서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정기적인 일자리를 원해서 일자리를 요구하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아는 인맥을 동원해서 일자리를 제가 아는 선에서 그분들이 가장 좀 편안하고 아이들을 돌보면서 할 수 있는 일을 주선하게 돼요. (사례 12, 동북권 지역연대)

취창업 교육을 하고 일자리를 연계하기 위한 기관이 지역 내에 있다고 해도 육아 등을 이유로 일반적인 서비스 이용이 제한적일 때 이러한 욕구를 정책적으로 어떻게 수용할지의 문제가 발생한다. 권역 여성들의 경제 활동, 임파워먼트가 동시에 이루어지려면 경제 활동을 위한 역량 강화와 일자리를 연결해주는 허브 기능이 여성가족시설의 주요한 부분으로 포함될 것도 고려해 볼 문제이다.

아이들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학습권을 찾아봐요. 이 재단 저 재단 연결을 해주면 다행스럽게 되면 고마워하면 그게 기한이 되면 또 연락이 오고, 마감이 되면 1년 단위로 받으니까 정기적으로 누가 운영해주는 게 아니니까, 또 연락이 오면 또 알아보는 겁니다. 이런데 뭐 없나 보면 이렇게 해서 안 되면 저렇게 해보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어쨌든 그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찾을 수 없으니까 자기가 알음알음 오는 것이고, 법률적인 문제들도 많이 발생해요. (사례 11, 동북권 지역연대)

지역사회의 거점 기관으로서 여성가족시설의 성격이나 역할은 지역 특성에 따라 다르게 규정될 수 있다. FGI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 동부권역 특히 광진구를 중심으로 한 지역의 특성은 돌봄, 복지 연계 체계가 개인 사회복지사나 활동가들의 역량에 과도하게 부과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는 광진구 자체에 사회복지 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역 특성 과도 맞물려 있다. 동북권역의 새로운 여성가족시설은 지역사회의 돌봄, 복지에 대해 어떤 응답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과제를 제시받고 있다.

(2) 지역 문화의 거점 기관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공간은 그 안에 어떤 프로그램으로 구성될 것인지와 무관하게 자율적인 커뮤니티 공간에 대한 수요가 크다. 즉 기존 서울시의 마을공동체사업 등과 맞물려 지역 단위 소모임이 장려되고 있는 현실에서 그 구성원들이 모임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다.

한국의 도시가 안고 있는 기본적인 약점은 공동체 지원공간의 부족으로 기존의 공동체 지원시설의 복합적인 활용과 새로운 시설의 활용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과제(김수미 외, 2013)라는 점은 이미 지적되어온 문제이기도 하다

지역에서는 아주 소규모로 꾸물꾸물 움직이고 계시는 문화 커뮤니티나 여성으로 이루어진 문화모임이나 하물며 예비부모들이나 베이비부머 세대들과의 만남을 저희가 추진해 보려고 기획을 했는데 공간이 안 나와요. 요즘에서는 제가 살고 있는 동 주민 센터에 많이 협조를 받고는 있는데 그러기 전까지는 공간 하나 잡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사례21, 소그룹 문화학교)

특히 문화 활동과 관련해 요구되는 시설은 음악활동과 관련한 시설에 대한 요구가 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음악활동의 특성상 방음이 되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면에서 소규모 동아리나 주민 모임에서 장소를 마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음악 콘서트라고 해서 대단히 시설을 잘 갖춰놓고 하는 콘서트도 좋겠으나 저녁에 아이스크림 하나 물고 슬리퍼 신고 나와 피자마 입고 나와도 공연을 가깝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영화나 애니메이션도 그렇게 볼 수 있는 공간들이 동네에 있다면 어떨까라는 호기심이 있어요. (사례 20, 서북권, 문화예술프로그램 실행자)

도시에서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서 다양한 문화를 향유할 기회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공간 확보를 위해서는 거점 단위 시설 내에도 지역민을 고려한 소규모 문화공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청소년 밴드 동아리를 만들고 싶어 하는데 선생님과 아이들도 있고, 악기도 기증해준다는데 연습실이 없어요. 요즘은 민원이 조금만 시끄러워도 난리가 나니까, 예전 같으면 한강에 가서라도 하겠는데 그러면 난리나죠. 112신고 들어가니까 경찰차 오고, 그런 공간이 필요해요. 정말 덩그러니 그 공간만 하지 마시고 그에 따른 모임을 할 수 있는, 모임도 좀 하고 회의도 좀 하고, 작전들도 세우고 이럴 수 있는 게 있고 거기에 맞는 인큐베이팅을 해줄 수 있는 분이 계신다면 할 수 있는 게 훨씬 많을 거라는 얘기죠. (사례 2, 서남권, 마을학교 관계자)

청소년들은 특히 밴드를 많이 하는데, 밴드공연은 제일 인기가 많아요. 그리고 거울달린 방. 춤추는 애들 엄청 많거든요. 댄스 동아리를 위해서는 거울이 달린 방이 필수죠. (사례1, 서남권 청소년 관련 지역 운동)

수동적인 감상자가 아닌 스스로 몸을 움직여 표현하고 활동하는 문화 활동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규모와 시설설비의 문제가 함께 고려되어야 함이 제안되고 있다. 복

합시설로서 전문 예술인의 공연을 염두에 둔 공간과 더불어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 예술 활동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걸 하나의 공간으로 해 놓지 말고, 분리했다, 통합했다 이런 구조로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좋아요. 소수가 쓰기에는 아깝고 요즘에는 풀딩으로 해서 그런 걸 많이 쓰던데. (사례 5, 서남권 마을공동체)

동시에 그룹별 활동이 그룹의 규모와 활동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 공간 활용의 유동성이 고려된 설계가 요구된다. 즉 대규모 그룹이 사용할 때와 소규모 그룹이 사용할 때를 동시에 생각한다면 분리와 통합이 원활한 구조를 통해 공간 활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3)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준비과정

시설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부터 지역민들에게 꾸준히 알리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점도 중요하다. 시설을 알리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운영주체가 어떤 ‘무엇’이 생긴다고 알리는 동시에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 지역민의 수요 파악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지역에 실사를 먼저 시작했어요. 그냥 사무실 알아보고 이런 것은 굉장히 늦게 진행을 한 것이고, 다시 한번 골목골목 다니면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 지역에서 주민들이 실제 이런 욕구들이 있는지 꼭 다 조사를 하고 그러고 나서 사무실 준비, 공간 준비하는 건 별도로 가고, 여기서 뭔가 주민들을 실제 만날 수 있는 매개를 만드는 게 중요하겠 다 해서 작년에 서울 여성문화축제를 매년 하는데 그걸 여기 대림동에 있는 ○○공원에 서 처음 했어요. (사례 8, 도서관 운동)

새로운 시설이 생길 때 시설의 기획 단계에서 지역민에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알릴 것인가의 문제는 시설이 생긴 이후 이용 활성화와도 연결된다. 어떤 시설이 생길 것인지를 지역민에게 알리고, 지역민 스스로 해당 시설에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파악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자원봉사자를 모집을 해서 저희 회원들이 매일 한 20명, 30명 2주 정도를 매일 거리를 나갔어요. 그래서 여기 대림 1, 2, 3동에 있는 전체 상가를 다 방문했죠. 길에 다니는 아기엄마나 이런 분들 다 만났어요. 주민들에게 요청한 건 천원 이상의 후원금을 내거나 책을 기증하거나 재능기부를 약속하면 준비위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주 동안 612명을 받았어요. 그 612명 중에는 한 달에 5천원 이상 CMS 내시는 분들도 포함해서, 한 500여분 정도가 준비위원을 해주신 것이고, 나머지 130명 정도가 CMS 회원가입을 해주셔서 정말 길에서 만난 분이 도서관 아직 실체도 없는데 회원가입을 해주셨어요. 그분들을 다 초청하고 해서 책 축제를 10월에 진행 한 거죠. 행사 구성 자체도 다 구에 있는 단체로 구성해서 공연을 짜서 앞으로 우리가 도서관에서 앞으로 활동을 하게 되면 영등포에 있는 단체들이 와서 공연도 하고 서로 이런 연계도 되는 거다 이런 내용들 말씀드리고. (사례 8, 도서관 운동)

직접 주민들을 만나는 홍보 활동을 통해 시설이 생기기 전부터 지역사회에 알리고,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 만한 금액을 산정해 회비를 받음으로써 이용자들로 하여금 소속감을 부여하는 효과를 거두어 왔다. 회비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 운영주체의 경제 문제 해결이 아닌 이용자의 정체성 부여에 목표를 두었다는 점에서 지역민과 함께 하는 공간 기획으로서의 의미가 살아나고 있다.

주민들만 만난 게 아니라 구 전체에 있는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유관기관들 평생교육원이라든지 영등포 평생교육원, 어린이책 시민연대, 어린이도서관연구회 이런 각종 유관단체들 마을 공동체 단체들을 다 만났어요. 이런 것이 필요하고 앞으로 우리가 여기를 시작으로 해서 지역 활동을 한다고 알리기도 하고 협조도 구하고, 어린이도서관연구회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후원해주시고 CMS 회원가입도 해주시고 프로그램도 연계해주시고 그때 만들어진 걸로. (사례 9, 도서관 운동)

지역사회에서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 관계를 도모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의 접촉도 중요하다는 점이 드러나 있다. 단순히 서류를 통해 알리는 소극성을 벗어나 직접 방문하는 방식을 택해 관련 기관들을 연계하고 함께 일을 만들어갈 방안들을 모색했다.

그렇게 준비를 해서 개관할 때도 개관식 자체를 마을잔치로 준비했어요. 일부러 동짓날로 잡았죠 개관식을. 연말에 여는데 일부러 마을잔치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일부러 세시 절기 얘기도 되고 도서관이 생기면서 이런 것도 챙겨주네 이런 게 되면 좋을 것

같이 팔죽이랑 새알심 만들어서 하는 행사로 준비해서 그날 100여명 가까운 동네 주민이 오셔서 같이 새알심 만들고 팔죽 나누고 이런 행사로 개관식을 한 거죠. (사례 9, 도서관 운동)

개관식 또한 지역 축제로 기획되었다. 단순히 지역에 도서관 하나가 생기는 차원을 넘어 누구나가 올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준비 단계 단계마다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지금 250명 정도 주민회원이 있고, 주민들이 낸 돈으로 실제 이 공간이 운영되고 있어요. 그렇게 운영을 하면서 정기적으로 상가건물, 이왕이면 상가에서 우리가 행사할 때마다 포스터를 자기 가게 앞에 붙여주면 좋겠다 그러면 동네 전체가 어떤 거점 공간을 중심으로 마을공동체가 형성이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돼서 좀 굵직한 행사 있을 때마다 현수막은 기본인데 상가마다 포스터 붙여달라는 요청을 드리고 있어요. (사례 8, 도서관 운동)

결국 꼼꼼한 기획과 철저한 준비는 해당 기관이 지역과 함께 살아 숨 쉬는 공간으로 역할하는 데 가장 큰 기여를 하였다. 여성단체가 운영 중인 도서관에 주민 회원이 일정 규모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주민들의 일상의 공간에 파고들고 있다. 거점형 여성가족시설이라고 해도 특정 자치구의 특정 동에 위치하고 있는 여성가족시설이 어떻게 지역민의 관심을 받을 수 있을지는 극히 일부라고 해도 그 안에 지역민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공간이 기획되고 그것이 끊임없이 주민들에게 알려질 때 가능해질 것이다.

2) 세대를 아우르는 프로그램 기획

여성과 가족을 키워드로 하는 공간이 특정인들만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니다. 특별히 여성·가족이라는 중심어가 있다는 것은 기존 공간 계획에서 ‘공적 공간의 남성화’로 인해, 여성은 도시공간의 사용권, 도시공간의 생산을 결정하는 의사결정권의 측면에서도 공간에 대한 권리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조영미, 2009)는 문제의식이 보다 크게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여성정책을 꼭 여성들만이 모여서 여성들만의 커뮤니티 공간에서 확장해서 일가족양립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젊은 부부나 가족이 할 수 있는, 요즘은 젊은 30-40대 초반 부부들은 일가족양립을 위한 요리 프로그램들이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세팅이나 아하 성문화센터 같이 청소년이나 성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곳들이 동북권에 많이 없어요. 상담시설보다는 성문화센터같이 다양한 세대계층들을 위한 성평등 교육이나 운영주체가 모집을 해서 좀 특화된 여성 관련된 콘텐츠를 갖는 게 들어가고 나머지는 주민들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게 하고. (사례 16, 동북권 마을공동체)

여성정책, 가족정책 실현의 장으로서 공간은 지역민 모두에게 개방됨으로써 공간을 통한 성주류화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은 지역 여성 활동가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드러나고 있다.

저희도 지역에서 활동하다 보면 장 담그기, 김치 담그기 하고 싶은데 소위 유명하신 셰프들은 만나기도 힘들고, 학원이 아니라 소규모로 진짜 자기를 돌보는 요리는 배울 수가 없어요 요즘은,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하고 그런 것들 연계를 한다던가, 어머님들이 스스로 많이 생각을 하세요, 해보면 좋겠다고 얘기하고, 요즘은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게 어른들 만나서 어른들 인생 스토리를 들으면서 그걸 책으로 만든다든가 같이 이런 것들을 휴먼라이브러리에서 청소년들이 기획하고 있고요. (사례 6, 서남권 교육운동)

경험이 전수되어 그것이 삶으로 이어지는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제안이다. 이제 음식을 만든다는 것이 여성이 담당해 온 가사노동이라는 범주를 넘어 자기돌봄 능력으로 재인식되는 과정을 만들 때라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전통적인 노동에 대해 다른 방식의 해석과 의미부여가 되고 있다. 한편 고령자의 경험이 기술적으로 전수될 뿐 아니라 삶의 이야기 또한 전수될 수 있고, 이것이 고령자들에게는 하나의 자서전 쓰기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프로그램을 해 그러면 애들이 한 시간에서 한 시간, 한 시간 반 가 있어, 그동안 엄마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엄마들이 멀뚱히 서서 이거(수다) 하지 마시고 이 시간에 이걸 할 수 있다 그러면 절반 정도는 들으실 거예요. 사실 이것(수다)도 생활의 활력소고 정신건강에 이로우니까요. 그걸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할 때 매칭을 해서 예컨대 아이가 이걸 들을 때 엄마가 이걸 들으면 할인을 해드립니다, 아니

면 아이가 아이 성장에 어린이 인권 이런 수업을 할 때는 그 수업과 연동해서 엄마들이 교육관에 대한 이런 걸 연동해서 그게 끝났을 때 합쳐서 아이들과 엄마들이 서로, 엄마가 있는데서 애들이 말을 잘 못하면 녹화를 해서 애들이 이런 얘길 하더라 아이들한테는 엄마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걸 보여주는 것도 필요해요. (사례 22, 문화운동 단체)

단순히 자녀와 부모가 함께 하는 프로그램만이 가족이 함께 한다는 의미를 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생각할 수 있다. 동시간대에 이용하지만 다른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자녀 연령대의 프로그램 진행시간에 부모를 위한 프로그램을 고려해 보자는 제안이다. 이를 통해 ‘엄마’가 아이를 데려다 주고, 기다렸다 데려오는 역할을 넘어 무언가를 배우고 추구하는 개인이라는 새로운 인식이 만들어지는 계기로 작용할 수도 있다.

2030세대야말로 자기 개성이 굉장히 뚜렷하고 내가 좋아하는 거면 가지만 좋아하지 않는 거면 관심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큰 규모의 그룹이 아니라 하더라도 10명 미만의 조그만 사람들이 모이더라도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해서 사람들이 올 수 있는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가는 게 좋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시간을 내서 가기가 쉽지 않을 거고 미리 만났던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니까 그게 너무 중요할 거예요. (사례 25, 문화예술 전문가)

개성이 강하고, 취업 등의 스트레스가 많은 2030세대를 특화한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연령이 모든 특성을 담을 수 없다면 특화된 프로그램을 통해 소수이지만 관심을 가진 그룹이 지속적으로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3) 지역 내 다른 기관과의 유기적 구조화

새로운 시설이 지역 안에서 그 의미를 확실히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존 다른 시설과의 관계도 중요하다. 다른 기관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이 중복해서 진행된다면 새로운 시설의 의미가 퇴색할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새로운 시설을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약간 현장으로 지식과 현장이라고 한다면 여기 여성플라자가 지식인들이 그런 것이라면 저쪽에는 현장으로서 사람들이 아이들, 여성, 할머니 등 가족이라면 현장으로서 역할을 해주었으면 해요. (사례 4, 서남권, 마을공동체)

서남권의 경우 다른 권역과 달리 이미 서울여성플라자가 위치하고 있고, 새롭게 들어설 여성가족 복합시설이 여성플라자와 연결되는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두 공간이 어떤 차별성을 가질 것인지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즉 여성플라자를 현재 사무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여성가족재단을 중심으로 한 축이 여성가족 관련 지식 생산의 기능을 한다는 측면을 고려해 새로운 시설은 시민 활동성이 강조되는 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다.

광진구로 보면, 여성발전센터가 지난주에 오픈했어요. 운영주체에 대해서 기대가 좀 있어요. 그래서 같은 구 안에 두 개의 여성시설이 어떻게 서로 이것이 서로 경쟁 공간으로서 경쟁하지 않고 인근 구에서, 이를테면 동부여성발전센터가 자치구에서 역할을 한다면 새로 생길 공간은 인근 구나 동북권을 아우르는 여성센터가 될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상호 역할이나 프로그램을 운영주체에 대해서 광진구가 굉장히 밀접하게 협력과 연계를 해줘야지 지역에서 사랑받으면서 그 공간이 자리 잡겠다면 지역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할 거예요. (사례 17, 지역여성운동)

동북권의 경우 광진구의 동부지법 이전부지의 활용을 염두에 둘 수 있다. 여성능력개발원이 동부여성발전센터로 기능 전환되면서 광진구 내에서 보다 지역 친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주민의 기대 또한 있다. 관련된 여러 기관이 하나의 자치구에 위치할 때 거점 기능과 역내 기능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점에서 동북권의 새로운 여성가족시설이 어떤 성격의 거점 기관으로 같지에 대한 답은 같은 지역 안에 있는 관련 기관 간의 역할 분담과 시너지 효과를 통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광진구에는 직장맘지원센터가 위치해 있는가 하면 동부여성발전센터 또한 자리하고 있어, 서울시 차원의 일하는 여성과 가족을 위한 거점기관의 조성도 생각할 수 있다.

여성재단에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플랫폼도 나누고, 여성 프로그램은 관련된 게 제가 생각하기에 지역은 취약해요 전문가 그룹도 그렇고, 여성프로그램은 어떻게

함부로 띄울 수도 없는 부분이고, 더군다나 엄마들 대상은 예비엄마들이나 임신부들, 경력단절 여성이나 한부모 가정이나 다문화는 조심스러워요. 전문가분들도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는 거라. 저희는 그런 플랫폼도 필요해요. (사례 15, 동북권, 마을공동체)

공간이 생긴다고 해도 결국 그 공간이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내용이 채워져야 하고, 그 내용을 어떻게 누가 만들어낼 것인가의 문제도 중요하다. 공간을 만든다는 것은 그 안에 어떠한 가치를 담을 것인지를 문제와도 연결된다. 따라서 향후 서울시 차원에서 만들어질 여성가족시설의 내용을 만들고 확산하는 역할 분담에 대한 기획 또한 필요하다. 현재 서울시 여성가족 정책 연구의 기능을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이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장에서는 여성가족재단의 역할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

단순히 오시는 분들만 오게 하기 보다는 지역에서 거점공간이 되어서 안전마을을 만들거나 이런 고민을 한다면 관련 기관들과의 관계가 중요하죠. 협약을 하고 방문 프로그램을 진행해주고 소정의 비용을 내면 해주는 식으로 간다면 거점과 지역이 만난다는 의미가 더 살아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례 10, 지역여성운동)

공간 안으로 찾아오는 시민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거점으로 포괄되는 지역으로 어떻게 찾아갈 것인지를 문제까지 고려하는 프로그램의 기획이 필요하다. 지역과 유기적으로 연계된다는 의미는 지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프로그램이 운영뿐 아니라 소단위 지역이나 그룹에 대한 지원에서도 찾을 수 있다.

4) 교육과 경제활동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공간

복합시설로서의 방향성으로 제시되고 있는 바는 시설 안에서 벌어지는 활동이 개별적인 프로그램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그것이 치유 목적의 프로그램이든 교육이든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그 안에서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때 복합시설로서의 의미가 살아날 수 있다.

30-40대는 사실 경제적 욕구가 커서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경력을 메꿀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 또 하나는 말씀하신대로 거기

에서 조금 더 취미로 시작한 것들이 경제적 수익 모델을 만들기 위한 컨설팅의 과정을, 전문 컨설팅이 필요하지 않나,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이 많이 만들어지는데 거의 망한다고 들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전문적으로 컨설팅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장래적으로 질이 떨어지면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기술력을 계속 담보해나가는 그런 컨설팅과 지속적 지원이 필요하다 싶어요. (사례 15, 동북권, 마을공동체)

경제적 욕구가 큰 이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교육하는 프로그램들은 기존의 인력개발 관련 기관에서도 해 오던 일이다. 새로운 여성가족시설은 단순히 취창업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만으로 운영된다면 기존의 발전센터, 인력개발기관의 프로그램과 차별성을 갖기가 어려운 구조이다. 이에 컨설팅과 지속적 지원을 어떻게 담보해 낼 것인가를 새로운 시설이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 전문화되게끔 3개월 취미과정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전문 강사과정으로 확장시켜서 하면 좋겠어요. 매번 취미거리로만 배우고말고, 그게 평생학습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되는 구조예요, 지금은. (사례 16, 동북권, 마을공동체)

기존의 여성회관, 센터 프로그램이나 인력개발기관 프로그램을 반드시 배제할 필요는 없다. 다만 단기 과정으로 취미 수준에서 그치던 데에서 나아가 보다 전문적인 심화과정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유사한 프로그램이라면 보다 심화된 과정으로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줄 때 새로운 의미가 부여될 수 있고, ‘취미가 일’이 되고 ‘일이 즐거움’을 만들어 내는 사례 제시가 이루어 질 수 있다.

지역 활동이나 여성 활동이 어떤 모든 활동을 기획하고 디자인하는데 도움을 주는데 아이디어뱅크도 있으면 좋죠. 다 만들어진 것을 보고 배울 수도 있지만 필요한 것에 대해서 아이디어뱅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집단들도 들어가고, 직접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그래서 우리가 가서 배울 수도 있고, 기획도 할 수 있고, 창작 공간, 배움터도 있어야 될 것이고, 거기서 나온 성과물들을 판매하고 전시하고 자랑할 수 있고 사람을 끌어 모을 수 있는 장터도 있어야 될 것이고. (사례 11, 동북권 지역연대)

여성가족시설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을 통해 신생 풀뿌리 조직들이 활동에서 겪는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다면 공간을 통한 젠더 거버넌스의 실행을 기대할 수 있

다. 또한 기획, 창작, 교육, 판매나 전시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간을 통해 정책이 보다 시민들에게 현장성 있게 다가갈 수 있다.

그 안에 공동육아든 청소년 쉼터든 아니면 여성노인들이 솜씨를 발휘할 수 있고 쓸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곳이 있어야 할 것이고, 놀이터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장 광장을 포함한 공간도 있어야 될 것이고, 전체 공간을 아우르는 방송국도 있었으면 좋겠고, 두타에 가면 방송국도 있지 않나. 재잘재잘하면서 돌아가는 게 있지 않나 그것 자체가 하나의 공동체가 되고, 커뮤니티가 되고, 소식도 전할 수 있고 하는 잘 만들어지면 작은 우주가 만들어질 수 있겠다 그런 신나는 모델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 (사례 21, 문화예술 프로그램 실행자)

시설 자체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기능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지향하는 가치를 실행할 수 있다면 서울시가 추구하는 바를 보다 명료하게 제시할 수 있다. 이제까지 정책 전달체계가 단순히 시민을 정책 대상화하였다면 새로운 여성가족시설에서 시민은 스스로 가치를 만들어 나누는 정책의 주체적 참여자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 여성들이 기대하는 바는 크다.

여성시설이라고 들었을 때 예를 들어 부모들이 참여할 수 있는 소규모 커뮤니티 모임도 가능하고 지역기반 여성 풀뿌리 NGO들이 입주해도 좋고 문화예술 관련된 여성들이나 청년들의 공간이나 작업장도 있을 수도 있겠고 생협이 다시 생협 운동을 할 수도 있고 사회적 경제 조직이 들어와도 좋을 것 같아요. (사례 15, 동북권 마을공동체)

여성가족이라고 하는 주제가 시민 일부가 아닌 시민 누구나를 지향하는 개념으로 자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가족은 기존의 부부중심, 혈연 중심의 가족을 벗어나 보다 다양한 관계와 공동체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여성가족 공간을 통해 기능할 것이다. 정책이 단순히 발표되고 일부 시민만이 참여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점은 그 실행의 장을 통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5) 프로그램에 대한 제언

이제까지의 논의가 새로운 여성가족시설이 지향해야 하는 가치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그 가치가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구현될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물론 가치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일부 프로그램에 대한 제안 또한 읽을 수 있었다.

세대를 아우르고 지역의 다양한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사회적 경제의 실현 공간, 교육창작판매와 상담 등 프로그램에 대한 제안은 앞서서도 일부 언급되었다. 여기에서는 앞서 이야기된 사안을 보다 구체화한 FGI 내용을 통해 지역 여성활동가 및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새로운 여성가족시설의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자 한다.

(1) 건강, 치유 관련 프로그램

건강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질병에 대한 치료의 개념이 떠오르기 마련이다. 그러나 새로운 여성가족시설을 통해 구현되는 건강은 단순히 병·의원 등을 이용하는 환자로서의 건강에 대한 접근에 머물지 않는다. 보다 적극적으로는 공동체를 통해 예방적 접근을 할 수도 있고, 이를 통해 환자로서 대상화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의 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거기를 만약 의료생협으로 한다면 공동체의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나름대로 의미도 있고 시설에서는 보장된 임대도 있고 관철을 것 같아요. 물론 그 시설 자체가 이 지역주민을 위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공공기관에 병원이 들어가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의료생협 같은 것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 (사례 1, 서남권 지역운동)

의료 생협 등이 함께 할 수 있다면 그와 더불어 다른 곳에서는 시행할 수 없었던 다른 방식의 보육 서비스도 고려될 수 있다. 즉 아이의 보호자가 직장 생활로 인해 휴가가 제한적일 때 입원은 하지 않아도 되나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런 경우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로 ‘아픈 아이를 돌보는 보육시설’이 새로운 시설로서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제안이다.

일시 의료보육서비스에 대한 욕구도 큰 것으로 나타나는데,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 아픈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기관/서비스가 절실해요. 저희는 직장을 다니는 직장맘으로서 아이들이 급하게 질병에 걸리거나 아프거나 보육시설 제도가 미비하긴 하나 기본 보육시설 제도가 있다고 했을 때 여기에서도 감당이 되지 않는 아이들도 있는데, 전염성 질병에 걸리거나 갑자기 아파서 직장에 있는 엄마한테 전화해서 찾아가라던가, 여러 가지 비일비재한 일들이 개인의 문제로 돌아가고 있고, 직장을 다니는 여성의 개인적인 상담, 고충으로 되어 있는 병아보육 관련한 사업 하나, 아픈 아이들 협동조합 하나, (사례 3, 서남권 육아협동조합)

질병의 치료만이 아니다. 이미 다양한 공적 기관에서 상담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지만, 일부 상담에 대해 거부감을 가진 이들이 있다면 새로운 여성가족 복합시설이 지향하는 상담의 재의미화 작업도 필요하다.

아직도 상담센터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거부감이 있죠. 상담? 왜 상담을 받는 거야? 상담이라는 그 뉘앙스가 덜 들어가게 편안하게 갈 수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동네에서 상담을 받는다는 것은 힘들어할 수 있는 부분인데 필요한 공간이긴 한데 의식이 바뀌어야 해요. 상담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상담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받는 것이라는. (사례 16, 동북권 마을공동체)

건강과 치유를 목적으로 한 프로그램에서 고려할 점은 치유 자체로 끝나지 않고, 예방적 프로그램과 연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상담이 언어적 상담에서 미술, 춤 등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으로 연계되고, 그것이 다시 창작 활동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어떻게 작동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운영주체가 풀 과제이다.

(2) 유기농, 친환경

친환경, 유기농이라는 주제는 프로그램보다는 입주 편의 시설을 통해 구현될 가능성이 보다 크다. 일본의 크레용 하우스식 공간 구성이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지역 여성들의 수요는 최소한 그곳에 가면 여성들에게 필요한 개념 있는 제품을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면 한다는 것이다.

여성백화점에서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여성 용품들, 면생리대 같은 경우 여기저기 아무 데서나 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전시도 안 해놓고요. 여성백화점의 개념으로 하면 그런 것을 전시를 하고 구입할 수 있고, 홍보도 되고, 교육도 되죠. 일반생리대 썩는데 500년이다, 후세를 위해서 이걸 써라 등 그런 것을 넣으면 어떨까? (사례 17, 지역여성운동)

단순히 생리대를 예로 들었을 뿐 관련된 제품에 대한 아이디어가 축적된다면 실제 여성들의 수요가 높은 쇼핑시설로서 여성주의 백화점을 상상해 볼 수도 있다. 친환경의 개념이 제품으로 팔리고, 그 안에서 다시 교육이 일어날 수 있는 구조를 같이 원하고 있다. 교육은 또한 여성들의 직접적인 창작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것이 일부 여성에게는 일자리로 제공될 여지도 발생시킨다.

요새는 유기농, 친환경 급식도 학교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엄마들이 먹을거리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해요. 유기농 매장이 저쪽 동네에는 북적북적해요. 여기 광진구가 딱 이원화 돼 있어서 어떤 사람은 돈 없어 못 먹고, 그 매장은 매출이 전국 1위래요. 줄을 서서 계산을 하죠. 물건이 오전에 안가면 다 떨어져서 채소는 살 수가 없을 정도예요. 지역단위 유기농 매장 옆에 먹거리를, 유기농 매장에서 나오는 걸로 음식점을 해놓으면 엄마들이 식사도 하고 장도 봐가고 아이들대로 만나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사례 15, 동북권, 마을공동체)

반드시 해당 매장을 여성들이 운영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기존의 여성운동과 함께 해온 그룹이 함께 참여한다면 오히려 여성과 가족을 주제로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하는 통합의 장으로서 의미 부여도 될 것이다. 더불어 기존의 가사노동의 연장선상에서 음식 만들기가 아닌 자기돌봄의 의미도 강화될 수 있다.

남자들 중에서도 1인 자기생활 자기가 책임지는 남자들이 많으니까 혼자서도, 지금 개인주의가 자기 개인성을 보존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혼자서 살고 있으면서 그 사람들이 거역할 수 없는 게 요리죠. 그 요리라고 하는 거가 해결이 안 되면 저거 하는데 그런데 그 요리를 하기 위해서는 먹거리를 하고 있는 커뮤니티가 자기가 연결되고 있다고 하는 게 사람을 무지하게 안전하게 하고 행복하게 해주죠. 일상적인 반찬 만들기를 하거나 이런 걸 하는 게 중요할 거예요. (사례 16, 동북권 마을공동체)

실제 자기 돌봄이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도 남성들의 참여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일상적인 음식 만들기 등에 취약한 젊은 세대에게 윗세대가 자신의 일상의 경험을 전수한다는 의미에서는 세대 공감 프로그램으로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다.

(3) 문화, 예술

문화 예술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중요한 점은 전문가를 위한 프로그램인가 아마추어를 위한 프로그램인가의 문제이다. 전문가와 비전문가가 함께 한다고 해서 반드시 비전문가는 교육생으로 전문가는 강사로 존재한다면 이는 기존의 문화센터 프로그램과의 차별성을 기할 수 없다.

여성작가들의 미술을 가지고 그걸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냥 정보중심으로 그림을 보는데 이건 이런 뜻이래, 그게 아니라 자기 삶하고 연결돼서 접촉되는 것들을 어떻게 그림 보기를 통해서 찾아내게 하고 그래서 그걸 구술할 수도 있고, 일방적으로 보고 감상하는 방식이 아니라 굉장히 인터랙티브한 수업을 해요. 그렇게 미술 안에서도 여성 미술을 보면서 여성들의 경험이나 아픔, 승리, 돌파, 도전 이런 것들에 관련된 얘기들을 사람들이랑 하는 것이 굉장히 재미있어요. 그런 미술 작품을 가지고 하는 수업을 한다던가. (사례 18, 문화예술 프로그램 실행자)

전문가가 진행하는 감상 위주의 강좌라고 해도 그 안에서 여성의 삶과 연계되는 진행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를 통해 전문가와 비전문가가 단순히 강사와 수강자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임파워링 될 수 있는 여지들이 발견될 수 있었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다.

저는 일상들을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 먹거리를 계속 살려내면서 자기를 찾아내면서 우리가 먹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그러는 게 우리의 삶일 텐데 그럴 때 우리가 이런 먹거리들을 어디다가 담아서, 왜냐면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자기를 좀 모시고 일상에서 이런 것들을 다 마치 의례처럼 정성스럽고 아름답게 그렇다고 뭐 많을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하고 웃도 어디 가서 내 몸을 웃에다 껴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좋아하는 소재와 컬러와 이런 것을 가지고 내 옷을 만들면서 그럴 때 그런 과정 안에서 자기에 대한 판단들이 달라지고 뭔가가 다른 차원으로 트랜스 될 수 있는 그런 작업, 몸 작업이 되어야 해요. (사례 25, 문화예술 전문가)

예술이 추상에서 머무는 것이 아닌 스스로의 삶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인식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단순히 전시되기 위한 물품을 만드는 것이 아닌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내가 쓸 나의 예술품을 만드는 과정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여성들이 삶에 보다 긍정적 의미부여를 하게 된다면 일상의 예술 활동을 통해 여성이 임파워링 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일반적인 실기수업하고는 조금 개념이 달라요. 옷을 어떻게 잘 입나 이런 수업하고는 다른 거죠. 정말 자기를 세운다는 데 의미를 두는데, 그걸 어떻게 이름 지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인문학적일수도 있고 영성적일수도 있고. 그러면서도 놀이, 결국엔 놀이를 회복하는 건데, 집단에 기쁨과 나눔 이런 것들, 여성공동체의 회복 이런 것도 염두에 두고 있어요. 서로 지지해주지 않으면 그 안에서 다시 서로 경쟁관계가 되고, 예쁘네, 잘 만들었네 이런 식이 되면 안 되죠. 그건 유도하는 사람의 태도가 중요해요. 이를테면 가칭 창조성놀이학교. (사례 25, 문화예술 전문가)

옷을 만든다는 것을 전문적인 디자이너의 작업이 아닌 여성들이 내 몸에 맞는 옷을 만드는 작업으로 본다면 여성이 자신에게 맞는 세상을 창조한다는 의미가 부여될 수 있다. 특정 재능을 가진 이들이 예술가가 아니라 여성 스스로 만든 창조물에 대해 의미부여를 하는 방식의 예술 프로그램이 시도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고 있다.

이를테면 재봉반, 그림 그리기반 그런 건 차고 넘쳤어요. 지금. 근데 왜 그 느낌이 아닌가 그런 고민은 계속 있어요. 정말 여자들이 자기 삶의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회복하고 임파워링을 받으면서 자기 창조성과 연결될 수 있고, 또 거꾸로 창조성을 찾아가는 과정이 자기를 발견하는 과정이고 그렇게 해서 자유를 찾아나가고 그런 두 가지 방향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걸 어떻게 같이 끌어내면서 같이 공유하고 나눌 수 있나 이런 게 사실은 처음이자 끝이죠. (사례 26, 문화예술 전문가)

앞서 일반적인 여성센터 등의 프로그램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도 그림 그리기, 수예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확인되었다. 문제는 그런 활동이 기능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면서 여성의 자기 긍정성에 도움을 주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유사한 활동이라고 해도 의미부여가 달라질 때 그 효과가 달리 나타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장으로서 여성가족 공간이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는 것이다

창작 워크샵이 있고, 공연이 있고, 전시가 있고, 작가님들 모시고 하는 강독회가 있을 수 있죠. 작가님들 직접 모시는 작가와의 만남이 있고, 시 워크샵도 아예 커리큘럼 자체도 나의 얘기로 시를 쓰는 것,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왔다가 시 한편 써가는 것, 리폼클럽도 수선이 아니고 진짜 자기 것을 가지고 와서 콘텐츠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고, 유화 워크샵도 내 방에 내 그림, 내 방에 거는 그림은 내가 그린다는 기조로 가는데 중요하죠. 자작곡 워크샵도 자기 얘기를 기반으로 곡을 만든다든지, 공연은 흥대를 중심으로 활동을 하는 다양한 뮤지션들과 같이 하고 있어요. 전시 같은 경우는 수익성을 바라고 하는 건 전혀 아니고 거의 공간 지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사례 19, 문화 예술 프로그램 실행)

문화, 예술 분야에서 중요한 것은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프로그램이 진행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는 다양한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통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예술을 먼 곳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일상과 연결시키는 작업으로 구체화할 것 또한 제시되고 있다. 시나 그림을 전문가만이 창작할 수 있는 영역으로 볼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일상이 반영된 창작물, 작자 스스로 삶의 공간을 꾸밀 수 있는 일상의 소품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해 간다면 시민 누구나가 예술가로서의 가능성을 실험할 수 있을 것이다.

녹음실이 있으면 성우과정도 좀 저렴하게 프로그램을 하고 거기서 나오신 엄마들은 한 분당 한 권씩의 책은 꼭 낭독하실 수 있게 해서, 파일 자체를 판 수익금을 녹음하신 엄마들에게 1/n하시든, 싱글 맘들이나 미혼모시설이나 이런데 기부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지역 어르신들이 소리로 만드는 유언장이나 자서전 이런 방식도 가능할 거고요. (사례 20, 서북권 마을극장)

공간의 구성에 전문적인 녹음실이 구비된다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보다 다양해질 수 있다. 공간 전체를 아우르는 방송국에 대한 제안이 있었던 만큼 방송국 설비가 도입된다면 전혀 불가능한 사안도 아니다.

분명히 도서관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도서관이 아니고 굉장히 독특한 형태의 도서관을 실험해보는 공간이 되면 좋지 않을까? 그냥 도서관 말고 그건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독특한 도서관을 만들어야 될 지는, 굉장히 별나게 이상한 도서관을 실험해볼 수도 있겠다, 무언가 공간을 독특하고 재밌고 실험적인 공간, 상상력을

많이 발휘할 수 있는, 하다가 안 되서 1년 만에 접더라도 실험이 가능한 공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사례 23, 동북권 문화예술 프로그램 실행)

다양한 형태의 작은 도서관이 지역에서 시험 중에 있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거점 시설에 설치되는 도서관은 작은 도서관들과 어떻게 연계될 것인지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 즉 작은 도서관에서 이미 하고 있는 기능이 아닌 다른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작은 도서관들의 도서를 서로 순환시킬 수 있는 구조를 만들거나 각 도서관이 기획전을 할 수 있도록 관련된 도서를 기관 단위로 대출하는 구조 등을 만드는 거점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이 분명해져야 한다.

6) 운영과 관련된 사항

여성가족시설이 지역민의 요구에 충실히 응답하면서 가는 것에는 단순히 안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의 문제만은 아니다.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다양한 생활패턴이 운영에 고려될 때 살아 숨 쉬는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공공기관의 문제는 6시에 문을 닫는다는 거죠. 저는 일이 6시에 끝나는데, 그래서 저는 운영주체가 공무원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요. 공무원은 무슨 죄인가 자기 근무시간 끝났으면 가야지. 공무원은 순환근무를 하니까 그렇게 전문적이지 않아요. 일자리가 없어서 일 못하는 사람들이 도처에 널렸는데 굳이 일자리가 있는 사람한테 시간외 수당까지 주면서 그런 일을 시키냐, 오히려 석박사 이런 과정 밟는 분들이 7-8시쯤이 더 좋지 않나? 선생님 한분 계시고 그런 분들이 도와주고 이런 구성이 되면 어쩌면 연구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원생들이, 그러면 선생님들이 책임지고 책임 교수님들 계시거나 아니면 의사 선생님도 계시거나 이러면 저는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아요. (사례5, 서남권 마을공동체)

기존의 공공기관 서비스가 지역의 모든 구성원들을 고려할 수 없었던 데에는 제한적인 이용시간도 한 몫을 하고 있었다. 시설이나 프로그램 운영자들의 복리를 생각한다면 특정인의 근무 시간을 연장하면서 다양한 층의 이용을 활성화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용 대상층의 시간 활용과 전문가의 여건을 고려하는 인력 운영의 유연성이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각자 어떤 단체나 이런 곳에서 자기네가 할 수 있는 교육문화 프로그램이나 자기네가 만들어서 팔 수 있는, 아니면 기획해서 팔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템을 가진 조그만 방들이 짝 늘어서 있는 거죠, 씬지길처럼. 그게 하나의 마켓이 돼서 배우는 마켓도 되고 거기서 만들어지는 디자인 잘 된 물건들을 사는 마켓도 되고, 아니면 가지고 와서 파는 마켓도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소통을 하는 것을 마켓이라고 하는 형태의 마켓도 생각해보면 어떨까? 그러면 분명히 사람들은 많이 이용하고, 뭔가 내가 하고 싶은 데 사실은 공간 제약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임대료가 비싸고, 그런 작은 공간을 벌집처럼 많이 만들 수 있다면 그리고 지속적으로 1-2년 확보할 수 있다면 그런 마켓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례 7, 서남권 마을활동가)

대규모 시설의 입주나 임대를 지양하고, 작은 규모의 다양한 집단들이 모여서 다양성을 제시하는 공간으로 가능성을 모색해 보자는 의견이다. 마켓의 개념이 사고 파는 장소라기 보다는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는 소통의 장소를 의미하고 있다.

커뮤니티 중심의 활동을 하고 싶다면 취미활동이나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정도의 활동을 하는데, 사람들이 현대사회에서 고독하니까 전부 다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커뮤니티를 하는 분들이 있어서 약간의 교육은 필수적이지 않나 그래서 선 교육을 해서 모집된 경우가 있고, 거꾸로 모집된 분들을 사후에 교육을 해서 한 방향을 보게 하고, 이게 굉장한 가능성을 보여 줄 수 있을 거예요. (사례 11, 동북권 지역연대)

교육을 위해 사람들이 모일 수도 있지만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공간을 통해 다른 활동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생각한다는 점에서 개별 프로그램이나 특정 목적의 이용자가 전체 공간을 관통하는 이용자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다. 단순한 건물이 아닌 가치를 지향하는 공간으로서 가치에 동의하는 이들이 자발적인 커뮤니티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구조가 되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이들이 부담 없이 찾아올 수 있어야 한다.

또 하나는 그런 소모임을 하는 분들이 하다보니까 동아리든 일로 연결될 수 있는 학습이든 재료 같은 것을 넣어둘 공간이 필요해요. 수납공간, 소모임과 수납을 같이 할 수 있는 공간 총체적으로 말하면 코워킹 공간으로 함께 쓸 수 있는, 전용공간이 아니고 오픈스페이스로 하되 거기에 일정 부분 코워킹 공간을 비용을 아주 저렴하게 여성에 한해서 쓸 수 있게 한다던가. (사례 15, 동북권 마을공동체)

한정된 규모의 집이 더 이상 개인의 작업실이 되지 못하는 서울의 일반적 현실을 고려할 때 보다 많은 사람들이 개인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작업 공간도 호응을 얻을 수 있다. 개인 용품을 보관할 장소가 마련된다면 시간대별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공동의 작업실이자 개인의 공간으로 그 활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직업교육과 연결될 수 있는 시설, 예를 들어 카페면 카페를 여성만 하는 게 아니라 오전 시간은 실버카페 어르신들이 운영하고, 오후에는 여성들이 저녁 시간에는 청년들이, 거기에는 지역사회 마을공동체나 사회적 경제 영역에 있는 수공예나 물품들을 위탁 판매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공간,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어요.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이 되기 전까지는 그런 것을 하려면 사업자등록을 내고 판매를 할 수 없는데 공동판매 공간을 놓고 위탁판매를 같이 해서 할 수 있게 그런 방법들. (사례 16, 동북권 마을공동체)

편의시설의 운영 방식 또한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에 우선권을 주는 동시에 시간대별 운영 주체가 다양화될 수 있는 여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시간대 별 운영주체가 다양해진다면 다양한 그룹이 자신들의 역량을 강화해 사회적으로 확장해 갈 여지는 그만큼 많아질 것이다. 하나의 매장을 시간대를 달리해 여러 운영 주체가 관리하자면 물론 전체 공간을 관장하는 측에서는 관리의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기존의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의 알음알음이 아니라 이 공간으로 들어갈 주체들을 광범위하게 모집하고 들어갈 주체들이 이 안에서 서로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생산된 프로그램은 좋기도 하고 지속력 있게 가는 것 같아요. 실제로는 방과 후 학교라든가 보육에 관련된 단체나 커뮤니티들이 어디를 가서 뭘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공간이 없으니까 서대문만 해도, 또 하나는 주변에 대학도 있는데 이 친구들이 졸업하면서 지역에서 어떻게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들을 환원하고 싶은데 약기를 다루는 친구들이 지역에 남으면 그 약기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런 게 없어서 다른 곳으로 다 가는 거예요. (사례 16, 동북권 마을공동체)

공간의 내용을 좀 더 풍성하게 구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어떤 실행 그룹이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공유 공간은 단지 함께 사용한다는 공용

(common use)이나, 소유(ownership)의 차원을 넘어서 친밀의 공간, 그리고 몸과 마음의 치유 곧 힐링(healing)의 공간으로서의 가능성을 타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손은하, 2012).

건강가정지원센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있고 서대문에 평생학습관도 있고 다양하게 있긴 한데 법인이에요. 법인이라는 공간 자체는 사유화가 된지 오래됐죠. 우리가 왜 이 공간을 열어야 되는지에 대한 필요성이 없는 것이고 공감대도 없는 거고. 그러면 이 공간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려고 해도 위탁주체가 주민체계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위탁은 그렇게 주더라도 필수조건은 지역에 이 공간에 관련된 운영위원회 몇 명 이상 구성한다 이렇게 해서 내부에 회의구조나 결정구조들을 열어줘야 될 필요성을 부여해야 해요. 그래야 그곳이 지역에서 이용하는 공간이 되는 거지 지역 사람들을 단순히 사업 대상으로만 보는 지금 방식은 아니죠. (사례 20, 서북권 마을 극장)

기존의 여성 가족 관련 시설들이 지역과 유기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는 문제는 새로운 시설의 운영위원회 구성을 통해 극복될 수 있다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공간이 지역에 들어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민들이 수동적으로 이용하는 것만이 아닌 적극적으로 공간 운영에 지역민이 참여할 때 그 개방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3. 요약 및 시사점

공간은 그 자체로 다양한 특성이 발현될 수 있지만, 가치를 부여한 공유 공간으로서 여성가족을 주제로 한 공간이 가치 지향적 특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공간 운영과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이 들어가야 한다. 물론 기획이 시작되는 단계에서 여성, 가족을 중심으로 공간을 이용할 사람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어야 한다는 점이 간과될 수는 없다. 설문조사와 FGI는 이처럼 여성가족시설에 대한 시민으로부터의 수요와 요구 분석이라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설문조사 결과 서울시민의 전반적인 필요시설 수요가 의료 시설이라는 점은 서울시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과 염려를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질병관리 차원에서

접근하는 한편으로는 이 연구에서 바라보는 복합공간을 통한 건강 공동체 활성화 차원에서도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사례권역으로 삼고 있는 서남권의 1순위 필요시설인 치안시설과 동북권의 의료, 쇼핑 시설에 대해서도 경찰력이나, 전문보건인력, 기존의 시장의 기능과는 다른 방식의 접근을 고려하는 장도 결국 공격 서비스 공간을 통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FGI는 이 연구에서 사례권역으로 선정한 서울시 서남권과 동북권을 중심으로 활동 중인 지역 활동가를 중심으로 여성가족 복합 공간의 방향, 가치와 구체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 청취에 주안을 두고 진행하였다. 그 결과 서남권과 동북권의 지역 특색을 고려한 여성가족복합시설의 지향점은 다음과 같이 도출되었다.

첫째, 지역 활동가들이 자유롭게 만나서 네트워킹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이는 서남권과 동북권 활동가 모두에게서 나온 의견이며, 그 구체적인 형식으로는 독일의 마더센터의 예가 바람직한 안으로 언급되었다.

둘째, 거점 시설이기는 하나, 건물이 실질적으로 위치한 지역민을 위한 공간으로 지역문화예술 활동을 진작시킬 수 있는 동아리활동 공간이 제안되었다. 특히 소규모 그룹이 장소를 마련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방음공간과 무용 등 몸을 움직이는 활동이 가능한 거울 등이 달린 마루공간이 필요하다.

셋째, 특히 동북권에서는 지역 돌봄, 복지 허브가 필요하다. 개별 활동가들의 역량에 기대 활동이 아닌 지역 내 복지 서비스 체계를 연계하는 망이 필요하고, 그 거점 장소로서 여성가족복합시설의 역할이 제안되었다.

넷째, 세대를 아우르는 프로그램 기획이 필요하다. 청소년 세대를 위한 성문화센터, 일가족 양립 프로그램, 고령 세대가 젊은 세대에게 전하는 자기돌봄을 위한 요리교실 등이 제안되었다. 또한 자녀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 뿐 아니라 자녀와 같은 시간에 각각의 프로그램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구성도 제안되었다.

다섯째, 지역내 다른 기관과의 유기적 구조화가 필요하다. 서남권의 경우 여성플라자와의 관계, 동북권은 동부여성발전센터, 직장맘지원센터 등과의 관계를 고려한 역할 분담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운영 프로그램의 콘텐츠 개발과 관련하여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역할 강화도 제안되었다. 거점 기관의 역할로서 지역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한 지역-거점 연계의 블록화 방안도 제시되었다.

여섯째, 현재의 개별 여성 가족 관련 시설에서 파편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의 방식을 벗어나 치유, 교육, 창작에서 일로 이어지는 프로그램 운영의 선순환 방식이 제안되었다. 치유 목적의 상담을 받았던 이들이 공간 안에서 벌어지는 다른 프로그램으로 연계되어 교육을 받고, 창작활동이나 직업적 전망을 가질 수 있는 구조로 공간이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곱째,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안되었다. 의료 생협 등이 결합한 건강과 치유 프로그램, 유기농 친환경을 테마로 한 여성주의 백화점, 여성들의 치유와 창작을 주제로 한 문화 예술 프로그램, 지역 사회 작은 도서관을 지원하는 움직이는 도서관 등이 대표적이다.

마지막으로는 운영과 관련된 제반 사안들이 제시되었다. 직장인의 퇴근 후 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인력 운영의 유연성, 대규모 시설의 입주보다는 소규모 집단의 입주를 통한 다양성 공간으로의 모델 제시, 코워킹 공간 구성, 시간대별 다양한 운영주체가 운영하는 편의시설을 통한 사회적 기업의 역량강화 기회제공, 지역민의 공간운영위원회 참여 등이 제안되었다.

여성가족복합시설이 실체를 가진 공간으로 설립될 때, 그 안에서 다양한 활동을 실행할 수 있는 영역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 간과될 수 없다.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의 부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논의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다. 이 연구가 서남권과 동북권역을 염두에 두고 진행된 이유는 바로 해당 지역에 그 가능성을 지닌 곳이 있기 때문이다. 거점시설로서의 여성가족복합공간의 입지조건에서 접근성 또한 무시할 수 없다. 물론 물리적 거리에 의한 접근이 사회적 거리를 앞서는 것은 아니지만,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점은 많은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다. 특히, 생활공간과 인접한 곳에 위치한 장소는 공유 공간으로 활용되기에 좋은 조건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 서남권의 대방동과 동북권의 광진구는 인접 지역에서 접근이 용이한 지하철 역을 끼고 있다는 것이 큰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일정한 규모를 갖춘 접근이 용이한 공간이 어떠한 기능을 갖느냐의 문제는 바로 이용가능성이 있는 이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할 부분이다. 공간에서는 사람들과의 '교류의 기능'도 있고, '생산의 기능'이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지금까지의 방식과는 다른 소비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공간이다.

한편 현재 서울시 차원의 유일한 여성가족 복합공간인 서울여성플라자의 논의 과정에서 여성단체를 지원하고 길러내는 기능이 중심적이었다(김은실 외 2003)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목표했던 바가 그대로 갔는지의 여부를 논외로 한다면 해당 기능이 수행되었고, 현재 여성가족복합공간을 필요로 하는 지역에서는 그 기능이 의미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반성폭력, 호주제 폐지 등 여성 가족 의제가 채택되고, 정책적으로 실현되는 과정에서 여성단체들의 역할이 컸던 점을 상기한다면 서울시 여성가족 정책의 한 파트너로서 여성단체의 역할을 간과할 수 없다. 현장과 서울시의 중간 지점에서 여성가족정책 실행의 장으로서의 공간은 지역 젠더 거버넌스 실현을 위해 기능할 길을 트는 역할 또한 당면한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V

서울시 지역맞춤형 여성·가족시설 블록 구축(안)

1. 서울시 여성·가족시설 블록 구축의 방향
2. 기능적 연계를 통한 블록 구축
3. 여성·가족복합시설 설치를 통한 지역맞춤형 블록 구축
4. 복합공간의 주제별 프로그램
5. 기대 효과

V

서울시 지역맞춤형 여성가족시설 블록 구축(안)

1. 서울시 여성가족시설 블록 구축의 방향

지금까지 서울시의 각 자치구나 권역별로 설치되어 온 여성가족시설의 확장 과정은 서울시의 전반적인 여성가족 인구의 변화나 요구보다는 중앙정부의 여성가족 관련 법률의 제정과 궤를 함께 해 온 특징이 있다. 따라서 각 기관이 법·제도적 규정을 확장하여 지역 사회와 함께 하는 데에는 처음부터 한계가 있었고, 종사자들 스스로 그러한 시도를 하는 데 무리가 있어 왔다. 또한 서울시 정책으로서의 여성가족 정책의 가치를 실현하는 공간으로 기능할 여지도 적었다.

여성가족시설이 어떠한 가치관을 담은 시설로 기획되고 배치되어야 할 것인지의 문제는 그것이 하나의 건물이나 시설이 아닌 여성가족 정책의 전반적인 실행의 장이 되어야 한다는 당위성과 맞닿아 있다. 즉 여성가족시설이 기존의 각 기능별로 설치되던 데에서 나아가 여성과 가족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소통과 연계를 실현하는 공간으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서울시 민선 6기 정책은 ‘함께 서울’을 모토로 하고 있다. 이러한 기조는 결국 서울시민의 요구와 함께, 지역과 같이, 여성가족과 더불어 라는 아래로 부터의 요구에 충실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도 볼 수 있다. 이에 제한된 범주에서나마 기존의 시설들이 서울시민의 요구에 충실히 답하기 위해서 고유의 기능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방안이 나와야 할 것이다. 즉 시민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어디에서 받을 수 있는지, 이용가능한 시설이 어디에 있는지 기존 시설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구축될 때 이미 존재하고 있음에도 정보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불합리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으로 서울시만의 색깔을 가진 여성·가족 정책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그에 맞게 설계된 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 서울시의 여성·가족 정책이 실현되는 장으로서 여성가족복합시설은 여성과 가족이라는 주제가 공간을 통해 지역과 만난다는 점에서 공간을 통한 성주류화의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다.

2. 기능적 연계를 통한 블록 구축

생활수준 향상과 더불어 복지, 문화, 교육 등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참여와 요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러한 요구에 대한 대응책은 미미한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시설 간 다양한 유형의 복합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김수미 외, 2009)는 점에 대해서는 이 연구의 과정을 통해서도 이미 강조되었다. 이에 특정 목적에 따라 분산된 서비스를 집중 배치하여 부지확보 등 신규 시설 설치의 어려운 점을 해결할 수 있는 시설 간의 물리적 복합화와 더불어 시설 간 서비스 자체의 연계성 도모를 위해 기능적인 차원의 복합화가 현실적인 대안으로 모색될 수 있다.

1) 공간 공유를 통한 블록화의 한계와 개선 방안

앞서 영등포구와 동대문구의 사례를 통해 청소년 문화의 집, 구민회관이 여성가족시설과의 복합화를 이룬 사례를 살펴본 바 있다. 또한 부천의 복사골센터와 충남 금산의 다락원 사례를 통해 다양한 기능이 함께 모여 있는 공간의 사례를 통해 같은 공간에 모여 있다는 것 외에 특별히 시너지 효과가 발휘되고 있는 징후를 발견하기는 어려웠다. 복사골센터의 경우 여성 공간에 중앙정부의 전달체계가 입주해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시설 임대 이상의 기대 효과를 갖기 어렵다는 점이 드러나 있다.

청소년문화의 집에 여성시설이 들어설 수 있었던 배경에는 해당 자치구 단체장의 실현의지가 크게 작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다른 공간에 위치하고 있는 여성센터와 청소년문화의 집에 위치하고 있는 여성센터의 프로그램에는 차별성을 관찰할 수 없



다. 또한 여성센터가 위치했기 때문에 문화의집이 다른 문화의집과 다른 점도 없다. 이에 여러 기능이 혼재된 공간 나누기를 넘어 공간의 공유가 프로그램 차별화까지 이어지기 위한 방안이 요구된다.

특정 공간에 여성가족시설이 더해지는 형태로 시설 간 복합화가 이루어질 경우 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시설운영의 차원이 아닌 공간운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즉 입주해 있는 기관이나 단체, 진행되는 프로그램 강사에게 자율성을 부과하는 것과 별도로 각 프로그램이 연관성을 갖고 운영될 수 있도록 기관과 프로그램 전체를 관통하는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는 전체 공간 운영 주체가 각 프로그램 단위 혹은 입주 기관과 회의체 등을 통해 서로의 가치를 이해함으로써 특정 프로그램이나 기관에 참여하는 이들이 다른 프로그램으로 이어지고, 공간 내 다양한 기관의 교류 활성화가 일어나는 공유와 연계라는 공동체의 의미를 되살리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시설이 단지 건물이나 기관이 아닌 지역 공동체로서의 위치를 점할 수 있다.

2) 기관 간 네트워킹 강화를 통한 블록화의 가능성

지역 주민들의 가장 큰 바람은 현재 물리적 여건 상 특정 시설이 들어설 수 없다면 해당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어떻게 연계가 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에서 진행 중인 서울복지거버넌스 회의에서도 관련 기관 간의 네트워킹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된 바 있다.

한부모와 미혼모와 연결될 순 있지만 실제로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다. 사업을 하는 사람만이 아닌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뒤서 한부모와 미혼모, 장애인, 복지관과 만나면서 그런 것을 가져갈 수 있는 센터를 만들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그게 매뉴얼이 나와야하는데 서비스연계가 힘들어서 이야기가 나왔다. 직원들 자체가 그런 것을 찾기 힘들다. 지역에 퍼져있는 가족서비스를 제공하기도 바빠 네트워킹을 할 시간이 없다. 직원도 얼마 없고, 여가부에선 그런 사업이나 예산을 지원할 의지가 없다. (2014.05.19 서울복지거버넌스 가족분과위원회 중)

문제는 필요 인력을 쓰는 데 대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그리고 중

양정부와 연계된 사업의 경우, 예산을 누가 댈 것인가의 문제도 있다. 해결책 중의 한 가지로 제시된 것은 관련 종사자들에게 타 기관의 사업이나 서비스에 대한 매뉴얼을 작성하여 제공하는 방식이 제안되기도 하였으나, 결국 고유의 업무와 상충하게 될 때 매뉴얼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도 있다는 점이 현장의 문제 의식이다. 이 이야기가 가족분과위원회에서 나왔다고 해서 가족 분야의 기관들만이 겪고 있는 문제라고 볼 수는 없다. 유사한 문제는 다른 시설이나 기관에서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팀장을 달고 나니 겨우 눈을 돌리게 되었다. 직원이 그런 일을 들고 오면 어느 센터에 가면 누구 팀장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해결할 수 있다. 서울에 있는 시스템은 각자 분산되어 각자 사업만 열심히 할뿐이다. 그걸 정보를 네트워크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다. 센터역할을 할 수 있는 데가 없다. 다산콜센터처럼 120에 전화하면 기본적인걸 알려주고 연결해주고 상담을 거치고 나온 이야기를 해결해주면 된다. 인력을 총원해주면 매뉴얼은 필요하지 않다. 서울시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면 네트워크 담당자를 둘 수 있을 것이다. (2014.05.19 서울복지거버넌스 가족분과위원회 중)

결론은 필요한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정 지역 안에 해당 서비스를 표명하는 시설이 없을 때 주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받게 해주기 위해서는 그 정보를 알려 줄 네트워킹 실무자가 필요하다. 문제는 예산이다. 그러나 서비스를 원하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많은 경우가 아니라면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 제한된 범위에서 체감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실무자를 두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다.

3. 여성·가족복합시설 설치를 통한 지역맞춤형 블록 구축

기존의 시설 간의 복합화와 유기적 연계에 의한 블록구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제한적인 구조에서 지역민들의 요구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권역별 복합시설의 설치를 고려할 수 있다.

현재 여성가족시설들은 지역의 여성 가족 모두가 참여 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복

합기능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나 그 목적이 훌륭하다 할지라도 지역민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획일화된 시설이 만들어진다면 기존 시설과의 조화뿐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교류 역시 활발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여성가족 복합시설의 설치에서 고려해야 할 점은 지역의 특성과 지역민의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는 점과 함께 서울시가 지향하는 여성가족의 가치를 어떻게 담아낼지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1) 권역 특성에 따른 복합시설 설치의 우선 순위

권역별 여성가족 복합시설 설치의 로드맵을 그릴 때 고려할 점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여성가족시설이 들어설 지역의 문화, 커뮤니티 등을 위한 공간 인프라가 충분한가이다. 만일 여타의 인프라가 비교적 잘 갖추어진 지역이라면 다른 시설의 프로그램 안에 여성가족 정책이 지향하는 가치를 포함 시킬 여지도 있기 때문이다. 둘째, 이용가능 인구의 규모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만일 상주 인구 수가 적다면 지역맞춤형의 의미가 크게 살아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 연구의 사례 권역으로 우선시되었던 곳은 서울의 서남권과 동북권역이다. 두 지역은 모두 서울시 5대 권역 중 문화인프라가 가장 약한 권역으로 꼽히는 동시에 거주 인구수가 많다는 특징을 갖는다. 더욱이 서남권역은 대방동의 미군기지터라고 하는 구체적인 장소가 이미 결정되어 있으며, 동북권역 또한 광진구의 동부지법 이전 예정지에 관련 시설이 들어설 여지가 크다. 물론 권역을 아우르는 거점 시설이라고 해도 권역 내에서 보다 인프라가 약한 장소가 선정될 수 있다면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방향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거점시설로서의 위상을 생각할 때 권역 내 다른 곳에서의 접근 용이성 또한 무시할 수 없다.

결국 지역 내에서 소규모로 운영되는 프로그램과 거점 공간의 연계가 중요해지는 지점이다. 공간은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곳으로 기능하는 한편으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은 지역으로의 확산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고려되어야 할 권역은 서북권역이다. 동북권, 서남권에 이어 서북권이 언급되는 이유는 도심권에 비해 거주 인구수가 많은 한편으로 동남권에 비해 지역

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또한 서북권 3개구 중 서대문구를 제외하면 자치구 단위 여성센터나 회관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열악한 상황도 반영되었다.

2) 사례 권역의 여성·가족 복합시설의 지향점 : 서남권과 동북권

이 연구에서 새로운 여성가족시설의 설립을 염두에 둔 사례 지역은 서남권과 동북권이다. 두 권역이 사례 지역으로 선정된 데에는 여성과 가족을 주제로 지역의 부족한 문화 기반을 재구조화해 보고자 하는 의도가 깔려 있다. 또한 두 지역 모두 현재 구체적인 장소가 거론되고 있다는 면에서 보다 구체적인 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작용하였다.

동북권의 여성가족시설의 설치가 유력시되는 광진구의 경우 동북권에서도 지하철로 연결되는 접근성이 우수하다는 강점이 있다. 동시에 지역 자체의 사회복지 등의 인프라가 약하기 때문에 여성가족시설이 지역의 복지와 돌봄의 허브로 기능해야 한다는 당위성도 부여받고 있다. 현재 동북권 광진구에는 동부여성발전센터, 직장맘지원센터가 위치하고 있어 이들과의 유기적 관계 설정도 매우 중요하게 고려될 지점이다. 여성가족시설이 특정 가치구의 특정 동 단위에 위치한다고 해도 서울시 차원의 거점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간과할 수 없다. 명실상부한 서울시 차원의 동북권 여성가족시설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동부여성발전센터와 직장맘지원센터를 연계하는 ‘일과 여성’을 키워드로 한 축과 지역사회 돌봄과 복지의 허브로서의 기능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실제 권역 내 복지 연계 시스템이 미약한 현실에서 새로운 여성가족시설에 지역 복지 및 돌봄 체계의 네트워크 역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서남권과 동북권의 경우는 기존의 문화시설의 부족을 여성가족시설의 설치를 통해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의 문제가 우선 고려될 수 있다. 특히 서남권의 경우 기존의 서울여성플라자와 새로운 여성가족시설이 어떻게 연계되고, 서로 다른 정체성을 확보해 갈 것인지의 문제가 중요하다. 즉 현재의 여성플라자와 공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장소에 새로운 여성가족복합시설 설치가 예정됨에 따라 그에 따른 역할의

분담과 시너지 효과를 고려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FGI를 통해서 제시된 바는 기존 서울여성플라자의 운영주체인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가지고 있는 연구의 기능이 플라자를 통해 강화되고, 새로운 여성가족시설이 실행의 장으로서 기능할 것이 제안되었다.

또한 서남권의 경우는 인접한 영등포구에 위치한 여성 미래센터와의 유기적 관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서울시 차원의 여성가족 정책 연구의 장, 정책 실행의 장과 함께 여성 NGO들의 거점이라 할 수 있는 여성미래센터와의 유기적 연계는 산업 분야에서 주로 이야기되는 집적에 의한 효과를 여성가족 분야에서 구현하는 장으로서의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3) 운영의 방향 및 원칙

지역맞춤형 여성가족시설에서 중요하게 보아야 할 부분은 크게 ‘지역’과 ‘여성가족’이라는 두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드는 공간과 서울시가 지향하는 ‘여성·가족’의 가치를 실현하는 장으로 의미를 부여받고 있는 것이다.

지역민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과제로는 우선 지역민에게 개방적인 공간으로 태어나기 위해 지역의 주민이 운영위원회 등에 일정 비율 참여가 보장되어야 함이 앞선 FGI 결과에서 제안되었다. 공간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 구조에 지역민을 일정 비율 포함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거점 시설로서 해당 공간이 포괄하는 지역민이 의사결정에 참여함으로써 공간이 지역민에게 개방성을 갖는 데 보다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시설에 한 공간을 점유할 수밖에 없는 편의시설을 누가 운영할 것인가의 문제도 제기된다. 공공시설에 들어 올 수 있는 운영 주체의 선정과정에 대한 문제제기도 되었다. 예를 들어 음료를 파는 시설을 단순히 서류 요건을 충실히 갖추어 낼 수 있는 기업의 프랜차이즈 입점을 허용할 것인지 지역 내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 등에게 우선권을 줄 것인지를 문제가 있다. 지역민이 운영하는 공간이라면 그 이웃들의 이용이 보다 활성화될 것이라는 점을 기대할 수 있다. 한편으로 마을기업

이나 사회적 기업의 특성상 회계 처리 등의 업무에 기존의 기업들에 비해 취약하다는 면을 고려해 서울시 차원의 기능, 기술 지원이 필요하다.

어떻게 서울시가 지향하는 ‘여성가족’의 가치가 살아날 것인가의 문제는 구체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는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가치 지향적인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치유와 교육, 경제활동의 공간이 파편화되어 있다면 복합시설로서의 기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각각의 활동이 선형 구조를 이루며 순환하는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공간으로서의 통합적 구상과 함께 특정 프로그램의 이용자가 다른 프로그램의 이용으로 연결될 수 있는 프로그램 이용의 연계성과 공간 구조를 함께 고려해 가야 한다.

모든 프로그램을 운영주체가 실행할 수는 없다. 각 주제에 맞는 실행단위를 발굴해 프로그램 운영자로 선정함으로써 공유 공간으로서의 가치 또한 살아날 수 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운영주체가 직접 실행하는 프로그램이든 입주 단체에 의해 실행되는 프로그램이든 그것이 지향하는 가치에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마찬가지로 대관을 통한 일회성 행사라고 해도 전체 공간 운영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제안한다. 공간의 대관에 대해서도 기획이 들어감으로써 공간이 지향하는 가치가 전반적으로 살아나야 함을 제안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설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활동을 관통하는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의 역할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

4. 복합공간의 주제별 프로그램

신규 시설의 프로그램은 최대한 기존의 프로그램과의 중복을 피하면서 여성과 가족의 요구에 충실한 동시에 서울시가 지향하는 여성가족의 가치와도 부합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부여받고 있다.

1) 일자리 및 공유경제

이 연구는 여성가족시설의 공간적 블록 구축이 지역사회 여성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 여성가족시설이 지역에 기반한 실천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담보해낼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러한 맥락에

서 ‘일자리 및 공유경제’라는 주제는 기존의 시장경제 고용 중심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일자리 경로를 만들어냄으로써 여성과 지역이 함께 일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공간 구성에 주안점을 둔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여성가족시설이 단지 하나의 건물이나 시설이 아니라 여성가족정책의 실행의 장이 되어야 한다는 전체적인 방향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서울시 여성일자리 정책이 여성 사회적경제 활성화⁴³⁾를 주요 분야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도 공간 구성에 녹아들 필요가 있다. 이에 공간 가치를 “공동체를 위한 경제를 실험하고 실현하는 장”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이는 시장경쟁 하에서 살아남은 소수가 성과를 독식하는 ‘차가운 성장’이 아니라 자신 혹은 가족을 위한 활동이 결과적으로 공동체의 지속을 지향하고 공동체의 성장에 기여하는 것으로 의미화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가치 하에서 공간 운영 목표는 “새로운 일거리, 대안적 일자리 창출을 통한 여성·지역의 임파워먼트 및 공유경제 실현”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운영 방향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대안적 자립을 위한 거점’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 그간 우리 사회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촉진하기 위해 여러 법적·제도적 지원책을 도입해왔다. 고용상의 성차별을 금지하는 법 제정을 비롯하여 모성보호 정책, 직업능력 개발 지원, 보육시설 확대 등 직·간접적인 차원에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지원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은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어렵거나 노동시장을 이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의 여성들에게 그다지 효과적이지 못하며, 어떤 형태로든 일을 하고 있는 여성들을 포착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양극화나 고실업 등 우리 사회에서 심화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이 더 이상 시장경제 논리로 해결되기 어렵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이에 여성가족복합시설은 일거리/일자리의 새로운 경로 개척을 통해 대안적 자립을 위한 거점으로서 기능적 블록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43) 서울시가 2014년 3월 발표한 「2014 여성일자리 종합 추진계획」은 “마을을 살리고 서울을 살리는 ‘여성살림’ 일자리”라는 비전 하에 크게 네 가지 분야를 담고 있다. 첫째,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지원하기 위한 ‘경력살림’, 둘째, 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일자리살림’, 셋째, 협동조합 육성 및 생태계 조성 등을 지원하기 위한 ‘마을살림’, 넷째, 여성의 일하는 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일터살림’ 등이다. 또한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수행 중인 『서울시 여성일자리 종합계획 수립 연구』에서는 “여성의 평등하게 일할 권리 보장을 통한 경제력 강화”라는 비전 하에 ‘사회적 지지망을 통한 자립 강화’를 주요 영역의 하나로 설정하고 있다.

둘째, 여성가족복합시설이 새로운 일거리와 대안적 일자리 창출을 통해 여성과 지역의 임파워먼트 및 공유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지지망 형성을 위한 연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시장논리가 주도해온 성장 중심의 정책은 여성의 노동을 부차화·주변화하면서 도구적으로 여성을 인력개발의 대상으로 정박시켜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들은 개별화되고 파편화된 개인으로서 노동시장에 대응하도록 내던져져왔으며, 평등하게 일할 주체로서의 권리를 부여받기 어려웠다. 이러한 맥락을 고려할 때 여성가족복합시설은 다양한 계층과 세대, 그리고 성별을 아우르며 지역민의 연계를 엮어내고 지원할 수 있는 지역사회 지지망 형성의 장으로서 기능적 블록화를 도모해야 한다.

셋째, 여성가족복합시설은 ‘생산, 판매, 소비, 교육의 순환’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이들 각각이 파편화되어 이루어진다면 기존에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생산자, 판매자, 소비자, 교육자, 수강자 등의 분절적 역할 수행이 반복될 뿐이며, 이는 복합화의 의미를 퇴색시킬 우려가 크다. 생산, 판매, 소비, 교육 각각이 선형 구조를 이루며 순환하는 공간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성과 목표 설정이나 가시적인 평가 위주의 기존 틀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공간의 철학에 대한 이해와 공간을 통해 창출되는 가치의 공유가 체감되고 체화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능과 역할, 그리고 사람의 선순환을 고려한 블록화가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이 표현될 수 있다. ‘일자리 및 공유경제’ 주제 공간의 가치는 “공동체를 위한 경제를 실험하고 실현하는 장”이며, 운영 목표는 “새로운 일거리, 대안적 일자리 창출을 통한 여성·지역의 임파워먼트 및 공유경제 실현”이다. 운영 방향은 3C, 즉 ‘대안적 자립을 위한 거점(Convergence)’, ‘지역사회 지지망 형성을 위한 연계(Connection)’, ‘생산, 판매, 소비, 교육의 순환(Circulation)’ 등 세 가지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간 가치와 운영 목표를 실현하고 운영 방향을 추진하기 위한 운영 전략으로는 발굴하기(excavating), 배양하기(incubating), 소통하기(communicating), 유통하기(marketing), 혁신하기(innovating) 등 다섯 가지(5ting)를 설정하였다.

【표 V-1】 '일자리 및 공유경제' 주제 공간의 공간 가치, 운영 목표, 운영 방향, 운영 전략

공간 가치	공동체를 위한 경제를 실험하고 실현하는 장		
운영 목표	새로운 일거리, 대안적 일자리 창출을 통한 여성·지역의 임파워먼트 및 공유경제 실현		
운영 방향 (3C)	대안적 자립을 위한 거점 Convergence	지역사회 지지망 형성을 위한 연계 Connection	생산, 판매, 소비, 교육의 순환 Circulation
운영 전략 (5ting)	발굴하기 excavat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린 작업 공간: 협업 공간, 재능 나눔, 메이커 스페이스 (테스트베드(Test-Bed) 공간) · 재능맘 일터 구현 · 육아맘을 위한 교대형 근무 	
	배양하기 incubat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몸 살림 공방 · 예비 일 모임 지원: 공간, 사람, 경험 · 사회적경제 학교 운영: 가치 확산, 차세대 양성 	
	소통하기 communicat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칭)사회적경제지속가능협의체 구성, 운영 · 세대별 일 경험 존중 및 응원의 일상축제 · 여성인력개발기관과의 유기적 구조화 	
	유통하기 market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포형 창업실 운영 · 자체 제작 상품 연계 지원 : 온라인 장터(HER: Help Each other) 연계 · 비즈니스 인프라 확보 및 제공 · 여성일자리 관련 정보의 집적 및 유통 	
	혁신하기 innovat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젠더 관점의 퍼실리테이팅 역할 강화 · (가칭)무한상상릴레이토론: 답론 생산의 장 · 대안적 일자리 경로 공유를 위한 청소년 진로체험의 장 · 시범사업 실시를 통한 사례 구축 · 지역사회 혁신을 위한 여성가족정책 실행의 장 구현 	

(1) 발굴하기

운영 전략으로서 '발굴하기'는 혼자 작업하며 고립되기 쉬운 여성들이 협업을 시도하고 가능성을 실험하는 공간으로 운영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여성들이 하고 있는 다양한 일들을 가시화하고 여성들의 상황을 고려한 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여



성과 지역의 상생을 고려한 공간 운영의 필요성을 말한다. 즉 해당 주제 공간은 열린 가능성을 보장함으로써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그러한 가운데 새로운 일거리/일자리로의 연계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하여 운영된다.

운영 전략	주요 내용	주요 참여자
발굴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린 작업 공간: 협업 공간, 재능 나눔, 메이커 스페이스(테스트베드(Test-Bed)공간) · 재능맘 일터 구현 · 육아맘/육아대디를 위한 교대형 근무 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비/사무공간 필요 시민 · 만들기 공간/기술 필요 시민 · 자원봉사 확산 희망 시민 · 단시간 근무를 희망하는 돌봄자(carer)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열린 작업 공간 마련을 들 수 있다. 이는 협업 공간(coworking space),⁴⁴⁾ 재능 나눔 공간, 자립적 창조를 위한 작업 공간(maker space)⁴⁵⁾ 등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 협업 공간은 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공동 작업 공간이 필요한 여성들에게 탄력적으로 제공될 수 있어야 하며, 재능 나눔 공간은 생활에 필요한 기술/기능들을 여성들 간에 나누기 위한 물적 자원(Tool Library)과 워크

44) 관련 사례로는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내에 위치한 ‘꿈마루’를 들 수 있다. 꿈마루는 국내 최초 여성 특화 협업 공간으로 기존의 여성창업지원시설이 갖는 폐쇄적인 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고 여성창업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오픈존(40명 수용), 네트워킹존(라운지, 창업준비자 및 초기창업자 간 정보 교류 및 네트워킹 촉진), 미팅룸(3개), 사무지원공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꿈마루 입주 기업에게는 공간을 비롯하여 사업화 지원을 위한 컨설팅, 판로 및 홍보 지원 등이 제공된다. 또한 창업 후 사업 성장을 위해 별도 사무공간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신청자격이 부여된다. 자료: <http://www.womenpro.go.kr>. 외국사례로는 ‘In Good Company’(미국 뉴욕)를 들 수 있다. In Good Company는 여성기업가들 사이의 네트워크와 커뮤니티를 구축하기 위한 공간 거점 확보의 차원에서 만들어졌다. 이곳은 여성창업자들이 겪는 ‘고립’이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창업자들이 공통으로 겪는 문제라는 인식 하에, 단순히 물리적인 사무공간을 제공하는 차원을 넘어 학습과 교류, 결속을 촉진시키는 여성기업가들의 협업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코워킹 사무공간, 개인 사무공간, 회의실, 컨퍼런스룸, 휴식 공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료: <http://ingoodcompany.com>.

45) 작업 공간(maker space)으로는 서울시 용산구에 위치한 ‘릴리쿰’을 들 수 있다. 릴리쿰은 도구와 기술을 공유함으로써 고립되지 않는 인간, 능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인간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는 구체적인 현장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이를 통해 공동체와 사회 안에서 고립되지 않는 독립 제작 문화를 형성하고, ‘만들기’를 통해 새로운 대안 노동, 새로운 삶의 방식을 경험하면서 동시에 환경과 일상을 복원하는 실험이 시도될 수 있는 공간을 지향한다. 이곳은 흔히 떠올리는 목공이나 바느질, 수공예뿐 아니라 최신 3D 프린팅까지, 존재할 수 있는 모든 분야의 제작 활동을 시도해보는 공방이자 실험의 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여성들의 접근성이 낮은 전기나 전자 분야를 다루고 있다. 자료: <http://reliquum.co.kr>. 외국사례로는 대표적으로 앞서 III장에서 살펴본 ‘Mothership Hacker Moms’(미국 버클리)을 들 수 있다(<http://mothership.hackermoms.org>).



숍 등의 기회를 제공하는 공간, 즉 시민들 간의 교류와 교육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자립적 창조를 위한 작업 공간(maker space)은 재능 나눔 공간과 연동하여 기기나 공간의 부재로 시도하기 어려웠던 작업들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한다. 여기에서는 특히 여성들이 다른 곳에서 접하기 어려웠던 큰 규모의 목공이나 전기, 전자 등 이른바 비전형적인 일 경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한다. 예를 들어, 차량과 관련하여 여성들이 스스로 만지고 관리하고 수리하는 것 또한 실험적으로 운영해볼 수 있다. 여성운전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차량 점검을 여성 스스로 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점에서 이와 관련하여 새로운 도전과 실험의 장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⁴⁶⁾

또한 일자리 및 공유경제 공간은 재능맘 일터로서 구현될 필요가 있다. 이는 한편으로는 여성들이 자원봉사로 해왔던 일들을 가시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이 하는 일이 타고난,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이 손쉽게 하는 일이 아님을 부각하고자 하는 의미를 갖는다. 여성들이 자신이 가진 재능을 지역민들과 공유하는 과정에 그러한 재능을 가질 수 있었던 경험 또한 포함함으로써 결과물로서의 재능만이 아니라 그것을 배우고 익힌 과정의 노고와 그 소중함을 부각시킨다.

일자리 및 공유경제 공간은 육아맘/육아대디를 비롯하여 돌봄자(carer)를 위한 교대형 근무제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서도 유의미하게 자리매김될 필요가 있다. 여성에게 배타적으로 주어지는 단시간 일자리로서가 아니라 돌봄의 책임을 지고 있어 전일제 노동이 어려운 이들 간에 팀을 구성하여 교대형으로 일을 한다면, 일 경험도 지속하고 경제적 소득도 일부 창출하고 사회적 관계도 유지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46) 최근 차량 점검과 관련한 한 광고의 카피는 이에 대한 여성들의 불안감을 드러내준다. “차 잘 모른다고 여기저기 손대면 어찌지?”라는 여성모델의 멘트는 여성들이 직접 자동차를 운전하면서도 그 내부를 관리하는 데는 선뜻 나서기 어려워하는 것을 정확하게 짚어내어 많은 여성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다고 본다.

(2) 배양하기

운영 전략으로서 ‘배양하기’는 일 모임을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이들을 위한 공간으로서 운영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는 공동창업을 희망하는 여성들 간의 연계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간, 사회적경제 조직을 준비하면서 교육과 교류가 필요한 이들, 그리고 현재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활동하면서 어려움과 한계에 직면한 이들이 치유하고 역량 강화를 도모할 수 있는 공간 운영의 필요성을 말한다.

운영 전략	주요 내용	주요 참여자
배양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몸 살림 공방 · 예비 일 모임 지원: 공간, 사람, 경험 · 사회적경제 학교 운영: 가치 확산, 차세대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창업 희망 여성 · 사회적경제 진입 준비 여성 · 사회적경제조직 리더 · 학교 참여 희망 시민

주요 내용으로는 몸 살림 공방 운영을 들 수 있다. ‘몸 살림’은 기존에 여성들에게 익숙하고 여성들이 잘 한다고 말해져왔던 ‘손 살림’⁴⁷⁾보다 확장된 의미로서 평가 절하되어왔던 몸 노동의 가치를 회복하고 여성이 늘 일해 왔던 노동의 역사를 가시화하고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어나가는 능력의 총체성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하고자 한다. 즉 여성들의 타고난 꼼꼼함이나 섬세함으로 잘 할 수 있는 일의 의미를 넘어 노동의 의미를 회복하고 새로운 노동을 만들어나가는 확장된 의미를 담고자 한다.

47) 서울시 성동구에 위치한 ‘햇빛공방 생산자협동조합’은 민간 어린이도서관의 ‘책 읽는 엄마 책 읽는 아이’ 동아리 모임 중 하나로 출발해 공방 설립으로 변모한 경우이다. 아이 위주의 엄마 모임에서 탈피하여 ‘엄마로서의 삶’에 간혀 있는 여성이 창작의 주체이자 문화의 전파자로서 발돋움할 수 있는 새로운 발판을 마련하고자 설립되었다. 여기에서는 생산과 판매뿐 아니라 교육, 협력 사업, 창작 공간 제공, 사회 환원 활동 등 다양한 실천이 이루어진다. 자료: <http://blog.naver.com/hatbit5934>. 외국사례로는 일본의 ‘생활공방’(도쿄)과 미국의 ‘Hera Hub’(샌디에고 등)를 들 수 있다. 일본의 생활공방은 ‘보고 만져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체험형 프로그램을 통하여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모든 세대가 감탄과 감동, 그리고 발견을 할 수 있도록 창조적인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지구환경에 대한 배려를 비롯하여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남겨줄 것인지 생각하는 시각을 중요시한다. 자료: <http://www.setagaya-ldc.net>. 미국의 Hera Hub는 여성기업가의 성공을 가속화시키는 핵심 요소를 교류와 협력이라 보고, 여성기업가들이 고립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돕는 공간적 거점과 기반을 확보하고자 설립되었다. 이에 여성기업가들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가장 난관에 부딪치게 되는 분야의 전문가들과 상시적으로 허브 내에서 만나고 고민을 해결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중시한다. 현재 샌디에고를 비롯하여 네 곳에서 운영 중이다. 자료: <http://herahub.com>.



또한 예비 일 모임 지원을 통해 서울형 여성 사회적경제 조직으로의 성장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예비 일 모임은 활동기반으로서 ‘공간’, 발전지원으로서 ‘사람(멘토)’, 그리고 시범사업 연계를 통한 ‘경험’ 등을 필요로 한다. 이에 일자리 및 공유경제 공간은 이러한 예비 일 모임 지원을 적극적으로 일구어내는 것으로서 특화될 필요가 있다.

사회적경제의 가치 확산과 차세대 양성이 이루어지는 사회적경제 학교 운영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이는 여성과 남성, 전 계층을 포괄하는 인문학 학교를 비롯하여 사회적경제 조직의 여성 리더를 키워내기 위한 젠더 아카데미⁴⁸⁾, 창업준비학교⁴⁹⁾ 등 다양한 층위로 구성될 수 있다. 주요하게 살림, 생태, 재생, 협동, 평등, 민주, 공동체 등의 가치가 공유되고 확산되는 장으로서 운영될 필요가 있으며, 주제에 따라 기업가정신, 상품디자인, 유통과 마케팅, 여성주의 리더십 등이 탄력적으로 포함되는 것이 필요하다.

(3) 소통하기

운영 전략으로서 ‘소통하기’는 여성과 지역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하여 지역맞춤형 복합공간으로서의 의미를 부각하고 여성가족복합공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대 간 연계 및 지역 내 다른 기관과의 유기적 구조화가 이루어지는 공간 운영의 필요성을 의미한다.

48) 관련 사례로는 영국의 ‘Ogunte’(런던)를 들 수 있다. Ogunte에서는 여성 리더 양성 및 인큐베이팅을 위해 Make a Wave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참가자 맞춤형으로 진행되는 6개월 과정으로 비전 설계, 비즈니스 모델 개선, 자금과 자원 확보, 네트워킹 등을 주요 분야로 한다. 이 과정을 통해 사회적 문제 해결을 미션으로 하는 예비 여성 사회적기업가들과 활동가들 사이의 자연스러운 네트워크를 만들어내고, 이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멘토가 되어주기도 하면서 함께 성장해갈 수 있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중시한다. 특히 여성 활동가와 기업가들이 취약한 것으로 보이는 재정, 자금 확보 분야에 초점을 두고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엔젤 투자자 네트워크, 마이크로 론 프로그램들을 통해 이 부분에서 여성 리더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또한 전통적으로 여성의 분야로 인식되고 있는 요리/외식 사업, 교육, 육아는 물론이고 IT, 테크놀로지 등 여성들의 진출이 미미한 분야에서 여성 리더를 양성하는 데도 주력한다. 자료: <http://www.ogunte.com/innovation>.

49) 창업준비학교는 일본의 ‘여성창업UP룸’(요코하마)을 참고해볼 수 있다. 이곳에서는 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이미 창업을 한 이들의 상황과 요구에 맞추어 다양한 층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자료: <http://www.uproom.info>.

운영 전략	주요 내용	주요 참여자
소통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칭)사회적경제지속가능협의체 구성, 운영 · 세대별 일 경험 존중 및 응원의 일상축제 · 여성인력개발기관과의 유기적 구조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경제조직 참여자 · 지역민 · 여성인력개발기관 관계자

주요 내용으로는 (가칭)사회적경제지속가능협의체 구성 및 세대별 일 경험 존중과 응원을 위한 일상축제, 그리고 일자리 전달체계로서 기존의 여성인력개발기관과의 유기적 구조화를 위한 공간 운영 등을 들 수 있다. 여성가족복합시설이 복합화와 블록화의 가치를 내재하고 확산하면서 일자리 및 공유경제 주제 공간으로서 사회적경제를 통한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지역민이 함께 하는 것이 기본 전제가 되어야 한다. 지역민에게 개방적인 공간이라는 원칙 하에 주체들 간의 소통과 교류가 이루어지는 (가칭)사회적경제지속가능협의체의 구성·운영을 통하여 여성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여성가족복합공간이 구현되어야 한다. 또한 세대에 따른 고유한 일 경험 및 여성으로서의 연대 가능성을 확장하기 위하여 다양한 세대의 여성들이 일상적으로 만나고 서로의 경험을 존중하고 응원하는 축제 공간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존에 여성일자리 전달체계로 지역사회에서 오랜 기간 활동해온 여성인력개발기관들과의 유기적 관계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4) 유통하기

운영 전략으로서 ‘유통하기’는 판매와 소비 촉진을 위한 기술적인 접근만이 아니라 발굴하기와 배양하기, 소통하기와 혁신하기 등 일련의 과정들이 선순환 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원 제공의 장으로서 여성가족복합공간이 운영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운영 전략	주요 내용	주요 참여자
유통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포형 창업실 운영 · 자체 제작 상품 연계 지원 · 온라인 장터(HER: Help Each other)⁵⁰ 연계 · 비즈니스 인프라 확보 및 제공 · 여성일자리 관련 정보의 집적 및 유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창업 희망 여성 · 제작공간 이용 시민 · 정보 희망 여성

주요 내용으로는 제작과 전시와 판매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창업보육공간으로서 점포형 창업실 운영, ‘발굴하기’ 전략과 ‘배양하기’ 전략 단계에서 만들어진 제작물의 공유 및 유통, 비즈니스 인프라로서 컨설팅과 미팅룸 등의 내용적·장소적 차원의 복합적 지원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사람 간의 교류만이 아니라 정보의 교류를 위해 여성일자리 관련 정보의 집적과 유통이 이루어지는 정보창고로서의 역할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마케팅은 경영적 관점에서 생산자에서 소비자 또는 사용자에게 상품과 용역이 전달되는 일련의 과정을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되지만, 본 연구에서 마케팅을 ‘유통하기’로 명명하는 것은 앞서 언급했던 세 가지 운영 방향의 하나인 생산-판매-소비-교육의 순환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5) 혁신하기

운영 전략으로서 ‘혁신하기’는 여성가족복합공간이 특정 장소 내에서 특정 참여자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활동의 차원을 넘어서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실현의 장으로서 운영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여성가족복합공간은 ‘성 평등 희망도시 서울’을 구현해내는 선도적 공간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일자리와 공유경제라는 주제 공간의 차원에서 볼 때 새로운 일거리와 대안적 일자리는 여성의 평등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통한 경제력 강화를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지역과 함께 ‘따뜻한 성장’을 이루어내는 대안 경제 구축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

운영 전략	주요 내용	주요 참여자
혁신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젠더 관점의 퍼실리테이팅 역할 강화 · (가칭)무한상상릴레이토론: 답론 생산의 장 · 대안적 일자리 경로 공유를 위한 청소년 진로체험 장 · 시범사업 실시를 통한 사례 구축 · 지역사회 혁신을 위한 여성가족정책 실행의 장 구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젠더 관점의 퍼실리테이터 · 사회적경제 학교 나눔이 · 진로체험 희망 청소년 · 시범사업 참여 여성 · 지역민

50) 온라인 장터(HER: Help Each other)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서울시 여성일자리 종합 계획 수립 연구』에서 추진과제로 제안한 것이다. 이 과제는 온라인 장터가 상품 판매 통로로서만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 여성을 돕는” 방식으로 의미를 확장할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국미애 외(2014), 『서울시 여성일자리 종합계획 수립 연구』, 서울시여성가족재단(근간) 참조.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젠더 관점의 퍼실리테이팅 역할 강화를 들 수 있다. 여성가족복합공간 운영이나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들 각각이 전체를 조망하고 일관성과 다양성을 고려한 공간이 되도록 움직이는 데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 이에 공간 가치와 운영 목표, 운영 방향, 그리고 운영 전략 전반을 관통하며 젠더 관점을 구현해낼 수 있는 퍼실리테이팅 역할이 강조되고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특정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사회적 경제 학교와 별도로 누구나 참여하여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가칭)무한상상릴레이토론의 장이 운영될 필요가 있다.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발랄하게, 엉뚱하게, 발칙하게 상상이 오가는 가운데 여성가족복합공간은 끊임없이 담론 생산이 이루어지는 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청소년에게 대안적 일자리를 보여주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장으로서도 주요한 기능을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 기존의 성별 직업·직무 분리는 단순한 역할 분담의 차원을 넘어 임금, 복리후생, 직업 전망 등 근로조건 및 근속년수에서의 성별 격차로 이어져왔다. 하지만 성별에 따라 적합한 직업과 직무가 존재한다는 관념은 오래되고 익숙한 것으로 개선되기가 쉽지 않다. 또한 무엇이 직업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상상 역시 빈약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안적 일자리 경로를 제시하고 청소년들에게 성 평등적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일자리 및 공유경제 주제 공간은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이 실행되는 장으로서 목표 지향적이면서도 탄력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이에 여성가족정책 가운데 시범실시가 필요한 일들을 소란스럽게 만들어내면서 사례를 구축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몸과 정신의 이분법을 극복하고 노동의 의미를 재구성해나가는 담론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러한 담론과 사례들의 생성, 구축, 그리고 확산은 지역사회 혁신을 만들어내고 궁극적으로 성 평등 희망도시 서울을 구현하며 여성과 지역의 임파워먼트 및 공유경제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근간이 될 수 있다.

2) 가족

지역에 기반한 여성가족시설에서 ‘가족’의 의미는 가족을 구성하는 구성원과 가족을 둘러싼 지역내 공동체와의 상호관계 속에서 재현되어진다. 그렇기에 서울시 여성가족시설에서 구현되어지는 ‘가족공간’에 담아내야할 지향점은 다양해지는 가구 구조의 변화, 가족내 갈등과 위기의 심화, 또한 가족간, 가족들간의 관계단절 등 현안이슈에 대응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의 방향성과 일치하여 진행될 필요가 있다. 특히 여성가족시설이 단지 공간이나 시설의 의미를 넘어 여성가족정책을 실행(do-Tank)하는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이 시설을 이용하는 가족구성원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전달체계로서의 목표를 지향한다.

가족분야와 관련하여 여성가족시설에서 추구해 나아가 할 공간 가치는 서울시 여성가족정책환경에 대응하여, ‘여성, 가족과 공동체를 살리는 공간’을 구현하고, 가족구성원에게 열린 공간, 가족 간 함께하는 공간, 공동체를 키우는 공간으로서의 지향점을 강조할 필요성이 있다.

가족구성원에게 열린 공간은 가족 내의 문제예방과 문제해결을 접근함에 있어 소통의 지원과 다양성에 대한 존중이 요구되어지며, 이를 위해, 가족 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상담, 치유, 힐링을 위한 하위 콘텐츠를 구성할 수 있다. 또한 가족 간 함께하는 공간은 세대간, 혹은 서로 다른 다양한 가족들 간의 물리적, 정서적 교환이 가능한 공간 구성으로 구성원들이 고충과 문제의 주체라기보다는 본인의 역량과 자원으로 타인을 돕고, 나아가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접근한다. 공동체를 키우는 공간은 가족구성원들의 사회적 관계망을 지원하고, 이것이 단지 정보교류와 네트워크 기능을 넘어 지역 공동체의 문제를 공유하고 해결해 나가기 위해 주민의 자발적 조직을 형성하고 활동하는 장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의 역할을 고려한다.

【표 V-2】 ‘가족’ 주제 공간의 공간 가치, 운영 목표, 운영 방향, 운영 전략

공간 가치	여성·가족과 공동체를 살리는 공간		
운영 목표	가족 구성원과 시민들이 체감하는 정책 전달 체계 구축		
운영 방향	가족구성원에게 열린 공간	가족 간 함께 하는 공간	공동체를 키우는 공간
운영 전략	치유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예방&해결을 위한 지원 · 세대 간 서로 다른 가족들 간의 지원 	
	공유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성에 대한 존중 · 돌봄 공유 및 지원 · 주민의 자발적 조직 모델 제시 	
	소통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구성원의 사회적 관계망 지원 · 지역에 기여하는 역량 함양 지원 	

여성가족시설에서의 대상에 따른 주요운영방안은 다음과 같다.

열린공간에서는 가족살림학교와 파더센터를 운영하여 가족문제상담과 남성대상 돌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가족살림학교의 경우, 서울시가 지향하는 여성·가족 가치를 실현하는 장으로서 가족생활에 대한 새로운 기획과 교육을 시범운영하고 이를 확산할 수 있도록 시도한다.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가족교육은 가족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관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기법과 정보제공에 주력해 왔다. 그러나 가족생활은 장시간 근로로 인한 가족시간의 부족, 사교육 팽배로 인한 자녀교육에서의 불안감 확산 등 개인의 노력만으로 개선되기 어려운 사회적 조건 속에서 영위되므로 교육내용의 현실 적용 간에는 괴리가 있어 왔다. 따라서 교육을 통해 어떻게 살아가고 가족관계를 만들어갈 것인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자녀를 양육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제기하고 참여자들이 스스로 생각하게 함으로써 서로의 생각을 교류할 수 있는 장을 활성화

시켜 가족생활의 긍정적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가족교육의 새로운 기획이 필요하다.

파더센터⁵¹⁾는 가족내에서 남성들이 갖는 역할 수행의 어려움과 고민을 지원 하는 거점 공간 구성을 통해, 현재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아버지 교육 내용을 젠더관점에서 재기획하고 지속성 있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를 보급 확산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실제로 기존의 아버지교육은 아버지로서의 역할에 초점을 두고 있어, 일과 가족에서 벗어나 남성들간에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는 확장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함께 하는 공간에서는 위기가족 치유와 가족구성원 힐링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가족와락을 운영하고 세대 간 혹은 서로 다른 가족들 간의 지원을 위한 가족나눔 공간을 운영한다. 공동체키움공간에서는 지역 커뮤니티방 운영과 노노케어 센터를 운영하여, 지역 내의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재능기부 및 노노케어 활동 등을 지원한다. 지역 내의 커뮤니티방 운영의 경우, 지역 내의 여성과 가족구성원의 욕구를 반영하여,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면서 지역 내의 관계망을 형성하여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마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간다.

51) 베를린의 경우, “아버지를 위한 장소, Vaterzentrum 은 단지 아버지들만을 위한 장소가 아닌, 가족을 위해 아버지의 역할을 되돌아보게 함으로써 가족을 재결합시켜 주는 역할도 하고 있다. 독일은 파더센터를 별도로 설치하여 온오프라인을 통해 남성(아버지) 교육 및 상담, 이혼 후 자녀 양육비 분담, 양육권, 자녀와 관계유지, 취업활동, 임신, 출산과정 동행, 자녀 돌봄을 통한 아버지 역할 강화, 배우자 관계 등 다양한 아버지 프로그램을 정보제공, 상담, 교육, 체험 등의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 표 V-3 】 가족공간 운영방안

지향	운영 방안	주요 내용	대 상
열린 공간	‘가족살림학교’ 운영	-가족문제 상담, 치유	- 이혼, 재혼자 대상 가족재설계 - 베이비부머대상 은퇴자 교육 - 1인 가구 대상 홀로 사는 법
	‘파더 센터’ 운영	- 남성 대상 돌봄 교육 - 남성 육아참여 정보제공, - 워킹대디 온오프라인 소통 창구 마련 - 남성대상 요리교실 운영	- 워킹대디 대상 육아법, 자녀 돌봄을 통한 아버지 역할 강화 등 - 은퇴 이후 남성(베이비부머)의 돌봄 지원 - 남성노인 대상 가족 돌봄 교육
함께 하는 공간	‘가족 와락’ 운영	- 위기가족 치유공간 - 가족 힐링 프로그램 운영	- 위기가족 상담과 치유 (초기상담, 맞춤형 위기가족 프로그램 운영)
	‘가족 나눔’ 지원	- 세대간, 서로 다른 가족들간의 지원 - 스스로 돌보기, 돌봄을 공유하기	-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 - 돌봄을 필요로 하는 가족
공동체 키움 공간	‘노노케어’ 활동지원	- 자조모임구성 및 노노케어 활동 지원	- 고령1인가구(여성, 남성) 대상 - 거동이 불편한 노인가구
	‘지역커뮤니티’방 운영	- 지역 내 커뮤니티 지원 - 가구의 임파워먼트 - 재능기부 활동지원	- 베이비부머, 노인가구등

3) 문화·예술

여성가족 복합공간에서 문화 예술 분야는 여성이 삶에 대한 정체성을 회복하고
 임파워링 되고 자기 창조성과 연결되는 한편으로 창조성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자기
 를 발견한다는 가치를 지향한다. 따라서 아마추어에서 전문가까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공간이다.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전문가로 거듭날 수도 있지만, 자아를 찾아가
 는 과정으로 문화와 예술의 일상화를 꿈꿀 수 있는 곳으로 기획되었다. 활동 공간의
 공간 가치는 문화와 예술을 살리는 공간이다.

표 V-4 | '문화예술' 주제 공간의 공간 가치, 운영 목표, 운영 방향, 운영 전략

공간 가치	문화와 예술을 살리는 공간		
운영 목표	자기정체성 회복과 임파워링을 통한 창조성 실현		
운영 방향	여성 창작과 공유 공간	치유를 위한 공간	지역 공동체 활성화 공간
운영 전략	전문성과 아마추어리즘의 조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작업 공간 지원 · 여성가족 갤러리 운영 	
	치유와 창작의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술 치유 센터 · 춤, 음악 치유 센터 	
	삶과 문화예술의 순환 구조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동아리 음악 연주 활동 지원 · 독서, 세미나 등 인문학 공간 	

공간은 크게 창작과 공유, 치유, 지역 공동체 활성화 공간으로 나눌 수 있다. 창작을 위한 공동 작업실과 만들어진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여성가족 갤러리가 창작과 공유를 위한 공간에서 실행될 내용이다. 신진 여성 예술가나 문화 활동가들의 창작 욕구를 진작시키는 공간으로서 공동 작업실을 통해 저렴한 임대비와 자유로운 전시 등을 보장하는 동시에 이러한 전문가들이 지역민에게 재능을 기부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 폐쇄적일 수밖에 없는 공동창작의 공간에는 개인용품을 보관할 수 있는 락커가 설치되어 시간대별 사용자들의 개인 물품 보관 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공간을 통해서 전문가들이 강사로 활동할 수도 있고 그때 일반 참여자의 활동은 나를 소재로 한 글쓰기, 내방에 그림 한 점, 나의 식탁에 놓일 그릇 만들기 등 일상과 예술이 만나서 생활을 이룰 것을 지향할 수 있다.

치유를 위한 공간은 가족 상담 프로그램 참여자나 여성 건강과 치유센터 이용자들이 몸을 쓰는 활동을 통해 치유 받고, 이것이 다시 창작 활동으로 이어질 것을



목표로 만들어지는 공간이다. 상담 및 건강과 연계한 미술 치유 및 춤 치유 프로그램이 다시 창작 활동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은 공간 구성과 참여자 연계에서 중요한 문제이다.

FGI에서 지역 주민 문화예술 지원 공간으로 방음이 되는 음악 활동 공간과 무용 활동 공간에 대한 수요가 높았던 만큼 소규모 지역 모임 수준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공간을 지원할 필요는 충분하다.

전략	내용	대상
전문성과 아마추어리즘의 조화	· 공동작업 공간 지원 · 여성가족 갤러리 운영	- 공간 자치에 동의하는 전문가가 - 지역주민
치유와 창작의 연계	· 미술 치유 센터 · 춤, 음악 치유 센터	- 가족 치유 프로그램 이용자 및 일반시민
삶과 문화예술의 순환 구조 만들기	· 지역 동아리 음악 연주 활동 지원 · 독서, 세미나 등 인문학 공간	- 지역 주민

독서 모임, 세미나, 글쓰기, 내 몸에 맞는 옷 만들기 등 기존에 충분히 해 왔던 활동들이 새로운 의미로 재탄생하는 공간으로 거듭난다. 문화와 예술은 생활과 동떨어진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일부로서의 예술, 삶에 활력을 주는 문화로 자기 존중감을 살린다는 점이 여성가족복합공간에서 지향하는 문화예술 활동의 가장 큰 의미이다.

4) 커뮤니티

지역 맞춤형 여성가족시설이 어떻게 블록과도 같이 역할이 집적되고 분산될 것인가를 고려할 때 지역 수요에 따라 일정 기능이 강조되고 다른 기능이 약화될 수는 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지역에 산재하는 다양한 커뮤니티들과 공간이 어떻게 만날 것인가이다.

골목과 지역을 살리는 공간이라는 가치는 어떻게 실현될 것인지를 문제가 제기된다. 거점 시설이라는 특성은 자칫 찾아오는 공간으로서의 의미만이 강조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가 지향하는 블록 구축의 개념은 비정형성에도 있다. 쌓아진 블록이 언제든지 필요로 하는 곳으로 옮겨질 수 있다. 즉 공간을 통해 구현되는 프로그램이 언제든지 골목으로 찾아갈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다.

【 표 V-5 】 ‘커뮤니티’ 주제 공간의 공간 가치, 운영 목표, 운영 방향, 운영 전략

공간 가치	지역과 골목을 살리는 공간		
운영 목표	지역의 요구에 응답하고 지역의 가치를 만드는 커뮤니티 활성화		
운영 방향	돌봄과 건강의 거점	환경과 생활의 연계	지역 문화 활성화
운영 전략	사각지대 없애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생협+병아보육시설 · 여성건강과 치유센터 · 돌봄 및 복지 연계 네트워크 지원 	
	새로운 가치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주의 백화점 · 함께 하는 유기농 식탁(세대 공감) 	
	지역과 호흡하는 공간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활동가 자율 공간 : 마더 센터 · 움직이는 도서관 및 휴면 라이브러리 · 찾아가는 프로그램 지원 	

앞선 설문조사에서 시민들의 요구는 의료시설에서 가장 크게 드러났다. 이에 지역단위 여성가족복합시설의 기능 중의 하나로 돌봄과 건강의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제시한다. 의료생협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예방중심의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미 은평구나 마포구 등지에 의료생협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만큼 이들 그룹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확산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의료생협과 함께하는 만큼 일반적인 보육의 사각지대인 “감기 등 단순 전염성 질환으로 아픈 아이를 일시적으로 돌봐주는 병아 보육시설”의 설치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보호자의 가용 휴



가시간이 아이의 치유기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반적인 보육과는 차별화되어 시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실제 서남권을 중심으로 활동을 준비 중인 그룹이 있다는 점에서 일정 공간이 확보되고, 의료생협과의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준비될 수 있다.

여성건강과 치유센터는 여성과 가족의 심리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적절한 검사와 상담뿐 아니라 다양하고 전문적이면서도 체계적인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공간이다. 지역 여성들에게 신체, 정서, 심리, 정신, 사회적인 부분을 고려한 통합적 검진을 제공하고 상담과 진단, 다양한 심리치유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일종의 심리치료와 정신건강을 위한 종합병원의 개념으로 파악될 수 있는 곳이다(이선형, 2014). 자치구별 인구 특성에서 동작구 주민의 우울증 경험인구가 11.5%, 영등포구가 10.8%라는 점(남정연 외, 2013)에서 동작구의 여성가족복합공간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지역사회 돌봄, 복지 연계 네트워크 지원은 자치구 내에 복지시설이 취약한 동북권의 광진구에서 보다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개별 활동가들의 역량에 따라 복지 서비스 연계가 파편화되어 있는 현실에서 운영주체가 직접 개입할 수도 있지만, 권역 내 이용 가능 시설이나 서비스를 촘촘히 엮어내는 역할을 할 만한 NGO나 기관이 공간의 일부를 이용할 수도 있다.

환경과 생활의 연계를 주제로 한 내용은 쇼핑 시설 등에 대한 지역민의 수요를 정책적으로 녹여내고자 하는 시도이다. 소비의 새로운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다. 기존의 소비가 물량주의로 인한 환경 문제를 불러 왔다면 유기농 친환경을 모토로 한 여성주의 백화점의 관점에서 소비 공간을 재창조할 수도 있다. 친환경 생리대를 비롯한 유기농 제품을 중심으로 일상용품을 사고 파는 공간이라면 단순한 쇼핑 공간 이상의 효과를 불러올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앞서 살펴 본 일본의 크레용 하우스에서 그 품목이나 운영 방식을 참고할 수 있다.

함께 하는 유기농 식탁은 지역의 어르신이 요리 선생님이 되어 젊은 세대에게 일상에서의 자기 돌봄 능력을 강화시킴으로써 세대 공감의 효과까지 거둘 수 있다는 기대에서 제안되었다. 인근 노량진의 젊은 세대들의 참여가 있다면 대방동의 새로운 여성가족복합공간에서 보다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서울시는 마을공동체 사업 등을 통해 지역 커뮤니티를 지원하는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지역단위 커뮤니티 활동가들이 제기하는 가장 큰 문제는 활동공간의 부재이다. 일정한 사람들이 모여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자, 지역 활동가들이 세미나 회의 등을 진행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의 제공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장소를 이용하는 누구나가 관리하고 책임지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독일의 마더센터의 운영방식을 준용한 공간을 마련해야 함을 제안한다. 자녀 동반이 가능하도록 공간 구성을 다양화하여 세미나 테이블 등을 설치하는 동시에 신을 벗고 들어갈 수 있는 ‘마루’가 필요하다.

한편으로 지역마다 생기고 있는 작은 도서관들이 협소한 공간과 제한된 인력으로 인해 일정 규모 이상의 프로그램 진행이나 장서 보관이 어렵다는 점에도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에 도서관 간 교류와 대규모 도서 맞대여를 연계하는 움직이는 도서관은 찾아가는 프로그램으로 지역 사회 연계를 만드는 블록 구축으로 기능할 수 있다. 또한 공간 내 녹음실 장비를 이용한 어르신 자서전 쓰기 형식의 휴먼라이브러리도 지역 사회 고령자들의 경험과 삶이 전수되는 프로그램으로 세대 간 통합을 도모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모든 프로그램은 지역 사회의 요청이 있을 때 소단위로 움직여 찾아가는 서비스로 기능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한다. 이 연구가 추구하는 여성가족 공간의 지역맞춤형 블록 구축은 정해진 곳에서 틀에 맞춘 형태를 띠기보다는 서울시의 여성가족 정책의 방향과 실행의 측면에서 그 일부가 다른 곳으로 옮겨져 새로운 성과 공존의 가치를 낳을 수 있다는 데 보다 큰 의의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략	내용	대상
사각지대 없애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생협+병아보육시설 · 여성건강과 치유센터 · 돌봄 및 복지 연계 네트워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 주제 지역 모임 및 개인 - 지역 내 생협, 영유아기 자녀 및 보호자 - 지역사회 복지 종사자
새로운 가치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주의 백화점 · 함께 하는 유기농 식탁(세대 공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령별 1인 가구원 - 다문화 가족 및 고령자
지역과 호흡하는 공간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활동가 자율 공간 : 마더 센터 · 움직이는 도서관 및 휴먼 라이브러리 · 찾아가는 프로그램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주민 및 지역 활동가 - 젠더 관점의 퍼실리테이터

5. 기대 효과

지금까지 여성과 가족을 주제로 한 공공시설들이 나름의 가치를 가지고 만들어져 역할을 해 왔으나, 서울시의 여성가족시설이 공공재로서 주민의 요구에 충실히 응답하기 하기 위해서는 기능적인 부분을 전수하고 배우는 이상의 기획이 요구된다. 여성가족시설들이 지역과 밀도 있게 만날 수 없었던 것은 각각의 시설들이 다른 법적 근거에 기대어 만들어지고, 지역의 여성 가족이 그 주요 이용층은 될 수 있어도 그 운영 과정 등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여지가 적었다는 점에도 기인하고 있다. 지역과 밀도 있게 만나는 시설이 되기 위해서는 주민의 수요에 적합한 프로그램이 기획됨과 동시에 시설의 운영에 지역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의사소통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은 이미 드러나고 있다.

기존 시설들의 연계를 중심으로 한 기능적 복합화가 실현된다면 제공되고 있던 서비스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불합리는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기존 시설들이 고유의 기능 외에 지역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의 요구에 발맞춘 성격을 띠는 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 법의 규정에서부터 이용자를 제한하고 있어 지역공동체가 원활한 접근을 할 수 없으며, 시설 자체가 공유 공간으로 기능할 여지는 그만큼 제한적이다.

이에 새로운 여성가족복합공간은 중앙정부로부터 비롯되는 정책과 서울시민으로부터 올라오는 요구의 중간 지대에서 지역민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능동성을 제시하고, 서울시가 지향하는 여성가족 정책을 구체화하는 공간으로서 기능을 요구받고 있다. 그럼에도 요구되는 기능을 가진 공간의 수도 적고 그 역사도 짧다.

서울시 차원의 유일한 여성복합시설인 서울여성플라자는 1996년 1월에 건립이 제안되어 2002년 문을 열었다. 제안에서 설립까지 6년여의 시간이 소요되었고, 서울여성플라자가 문을 연지 다시 10여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야 새로운 여성가족복합공간에 대한 논의가 재개되었다. 여성플라자는 대방동의 부녀보호소라고 하는 사회적 약자 여성을 수용하던 공간이 여성일반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되었다는 점에서 의미부여가 되었으며, 여성들의 다른 가능성을 보여주는 장소로서 기대를 받았다. 서울시의 여성가족 정책을 생산하고 실천하는 공간으로, 젠더 거버넌스를 위한 기반

을 마련하는 장으로서 서울여성플라자는 새로운 시도의 나침반으로서의 역할도 부여 받고 있다. 다시 시작되는 논의의 장에서 서남권의 새로운 여성가족공간은 ‘미군기지 터’라고 하는 전쟁과 상처의 기억을 딛고 평화와 치유의 가치를 살리는 여성과 가족의 공간으로 거듭 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다른 한편 약한 문화 복지 기반을 여성 가족 복합공간을 통해 극복하고자 하는 동북권은 여성가족의 가치를 통해 실현되는 복지와 문화의 모습이 어떻게 기존의 모습과 달라져야 하는지를 제시할 과제를 안고 있다. 여성가족 복합공간이 지역의 요구에 충실하고, 나아가 지역의 역사와 의미를 재구성하는 실행자로서의 역할에 대한 논의는 이후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과제이다.

▶▶▶ 참고문헌

- 강희영(2013a), 서울시 가정폭력예방정책 모니터링,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13b), 서울시 다문화가족 생활실태 분석을 통한 정착 및 사회통합지원방안 연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국미애 외(2014), 서울시 여성일자리 종합계획 수립 연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근간
- 권현진 외(2009), 사회복지시설의 복합화 방안, 인천발전연구원
- 김미현 외(2013), 서울시 사회서비스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이용자 욕구를 중심으로-, 서울시복지재단
- 김수미, 김문덕, 서수미(2009), 일본 공동체 복합지원시설의 복합화 유형과 공간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 논문집, 제20권 2호
- 김수미, 김석영(2013), 공동체복합지원시설의 시설현황 및 복합유형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3 Vol. 13 No6.
- 김은실 외(2003), 서울시 여성관련 사회교육기관의 실태분석과 기능 재정립 방안에 관한 연구, 재단법인 서울 여성
- 나영선 외(2013),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 기능조직 개편을 위한 기본방안 연구, 서울시
남정연 외(2013a), 2013 통계로 보는 서울여성,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13b), 2013 서울시 자치구 성인지 통계,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맹다미(2010), 지표로 본 서울의 도시공간 변화, 서울연구원
- 박현주(2007), 서울시 권역별 문화적 특성에 관한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반영선(2010), 생활권 청소년 수련시설과 교과실제 학교시설의 복합화를 위한 기초연구,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제12권 제3호 통권 43호
- 손문금 외(2013),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안) 성 분석,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손은하(2012), 공유 공간과 커뮤니티, 동북아문화연구 제32집, pp.61-79
- 안숙영(2012), 젠더의 렌즈로 본 복지공간 : 이론적 현황과 전망, 한국여성학 제28권 1호, pp.113-146
- 양혜원(2013), 지역밀착형 복합문화 커뮤니티센터 조성 및 운영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원선영 외(2008), 도시 복합용도시설에 나타난 '지역성'의 특성에 관한 연구-일본 복합용도시설을 중심으로-,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학술대회발표논문집 제10권 1호 통권 16호
- 이선형(2014), 생애주기별 서울시 여성의 정신건강지원방안, 서울시여성가족재단, 근간
- 이슬기(2008), 지역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복합용도 공간 디자인에 관한 연구, 한국공간디자인학회 논문집 제3권 2호

- 이혜민·김경민(2013), 수도권 지역의 범죄 발생 패턴: 공간자기상관성의 발견, 한국행정학회지 53권, pp218-245
- 임선주(2006), 사회성을 제고하는 여성회관의 시설설계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정갑영 외(1996), 문화의 집 모델 및 운영방안에 관한 외국사례 조사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정병순(2011), 서울시 창조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적 방안-영상, 게임, 모바일콘텐츠를 중심으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정희선 외(2009), 여성 관련 복합시설의 프로그램과 공간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학술대회논문집 제11권 1호 통권 19호
- 정희윤 외(2012), 미래서울 2030 : 도시공간의 진화, 서울연구원
- 조연숙 외(2010) 여성인적자원의 활용을 위한 여성신규인력채용의 결정요인연구: 서울시 기업체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제24권 제4호(통권 83호)
- 조영미(2009), 여성 친화 도시 만들기 정책의 실제와 과제: 서울시 여행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회 제25차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 최유진 외(2013), 여성친화도시 공간 조성 사업 발전 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한국여성단체연합(2007), 유럽지역 '돌봄과 교육공동체' 탐방 보고서
- Fenster, Tovi.(2005) "The Right to the Gendered City: Different formations of belonging in everyday life." in Journal of Gender Studies, Vol.12, No.3, pp.217 ~ 231.

■ 참고 사이트

-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 <http://www.womenpro.go.kr>
- 금산다락원 : <http://www.daragwon.net>
- 릴리쿰(용산구) : <http://reliquum.co.kr>
- 부천문화재단 : www.bcf.or.kr
- 생활공방(일본) : <http://www.setagaya-ldc.net>
-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 : <http://family.seoul.go.kr/>
- 여성가족부 블로그 : <http://blog.daum.net/moge-family>
- 여성창UP룸(일본) : <http://www.uproom.info>.
- 햇빛공방 생산자협동조합 : <http://blog.naver.com/hatbit5934>
- Crayonhouse : <http://www.crayonhouse.co.jp>
- Hera Hub : <http://herahub.com>
- In Good Company : <http://ingoodcompany.com>
- NaNa Cafe : <http://www.wearenana.com>

Mothership Hacker Moms : <http://mothership.hackermoms.org>

Ogunte : <http://www.ogunte.com/innovation>.

■ 기타 자료

서울시 2030 서울플랜 발표 자료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젠더그래픽스 2014년 02호

Abstract

Towards the Pursuit of Locally Customized Facility Blocks for Women and Families

Kang, Hee Young

Kuk, Mi Ae

Moon, Eun Young

Research Fellow, Policy Research Department

This study examines the present locations of Seoul's facilities for women and families, and proposes the establishment of locally customized facility blocks for these users. The research methods used here include a survey, document analysis, and focus groups interviews (FGIs) with local leaders and experts.

To identify the demand for facilities geared toward women and families, some items included in the Citizen Survey on Changes in Gender Equality Conditions and City Environment, conducted by the SFWF in 2013 as part of the 2030 Seoul City Master Plan, were selected and analyzed by region.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facilities for women and families in Seoul, administrative data, existing literature, and the city's website were reviewed. From the FGIs with local leaders, the study identified new facility demand and explored ways to realize synergy between existing and new facilities, particularly through effective role division.

The study proposes the following three methods for establishing locally customized blocks of facilities for women and families: functional linkage of existing facilities, space sharing among related organizations, and construction of multi-purpose facilities.

The southwestern and northeastern parts of Seoul are suggested as candidate areas for new multi-purpose facilities. Both areas are characterized by their weak cultural infrastructure and large populations. In the southwestern part, the old US military site in Daebang-dong has already been decided as the site for new facilities. In the northeastern region, land surrounding the Dongbu District Court Office is highly likely to be the site of facilities for women and families as the court office will soon relocate.

This study suggests that multi-purpose facilities be used for programs centered on jobs, family, culture and arts, and community, and for facilitating a sharing economy. To ensure these facilities operate as community spaces, open communication channels between the city and residents should be established so that the latter's views are reflected in facility programs and operations. As well, the facilities should be monitored to ensure that they are in line with the women and family policies of the Seoul City government. These facilities will gain in significance when they meet the demands of residents and redefine the meaning and functions of local community.

부록

- 부록 1 서울시 여성가족 관련 시설 지도
- 부록 2 서울시 여성 관련 시설 지도
- 부록 3 서울시 가족 및 육아지원 시설 지도
- 부록 4 서울시 청소년시설 지도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여성가족시설지도

[여성인력개발기관]

-  여성능력개발원
-  여성발전센터
-  여성인력개발센터
-  여성회관(센터)
-  여성플러자
-  건강가정 지원센터
-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  다문화가족 교육센터
-  한부모가족 지원센터
-  육아종합 지원센터
-  상상 나라
-  청소년 수련관
-  청소년 문화의집
-  청소년특화시설 및 성문화체험관





부록 3 서울시 가족 및 육아지원 시설 지도



청소년수련관 + 청소년문화의집 + 청소년특화시설 및 성문화체험관



2014 정책연구-14

지역맞춤형 여성·가족 지원을 위한 「여성·가족시설 블록」 구축

발행인 이숙진
연구자 강희영·국미애·문은영·홍정아
발행일 2014년 12월
인쇄처 (주)인디엔피
발간등록번호 51-B552561-000033-01
발행처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주 소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54길 18
전 화 02-810-5000(대)

이 책의 저작권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 있습니다.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함께해요 청렴실천, 신뢰해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
www.seoulwomen.or.kr

